

KWDI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젠더 프로파일

김은경 · 윤현주 · 김정수

2011

연구보고서 - 2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젠더 프로파일

연구책임자 : 김 은 경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윤 현 주 (본원 연구원)

김 정 수 (본원 연구원)

연구지원 : 김 정 민 (본원 위촉연구원)

이 영 인 (본원 위촉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우리나라는 2010년에 OECD/DAC 가입과 금년 11월에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 4차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 (HLF-4;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개최 등에 발 맞추어 개발원조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국제개발협력 기여 증진을 위한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 논의에서 젠더는 범 분야적 이슈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UN은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중 하나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채택하였으며,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역시 성 평등과 원조효과성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 맞추어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젠더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이하 ODA) 사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본원은 수원국의 현지 특성에 기반한 정책과 수요를 반영한 현지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금년 2011년에 「아태지역 양성평등 인프라 강화사업」이라는 성인지적 ODA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의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현지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면밀한 현지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고, 워크숍 프로그램에 현지의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두 국가의 양성평등 정책의 장기적 발전과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축적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젠더 관련 정보 및 지식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젠더 프로파일의 주요 목적은 빈곤감소와 개발원조 사업의 분석, 기획, 운영관리, 평가의 모든 단계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경제 사회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이슈들을 제시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젠더 프로파일은 다양한 부문에서 양국의 젠더 이슈를 고찰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국의 현황에 맞는 양성평등 정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젠더 현황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부문별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가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사업에 성 주류화 증진을 위하여 수원국의 젠더 이슈에 대한 지식 및 데이터베이스 증진을 돕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 큰 의의를 두며, 앞으로 한국 개발원조의 젠더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최 금 숙

목 차

I. 서론	1
1. 젠더 프로파일의 의미 및 목적	3
2. 젠더 프로파일 계량 지표	5
3. 젠더 프로파일 정성 지표	6
II. 캄보디아 젠더 프로파일	9
1. 젠더현황 개괄	11
가. 캄보디아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여성	11
나. 성별 통계 및 지표	17
다. 젠더와 빈곤	23
2. 국가 젠더정책 및 법체계	26
가. 젠더정책	26
나. 젠더관련 정부기관	30
다. 젠더관련 주요 법과 정책	34
라. 젠더 프로젝트	38
3. 부문별 젠더분석	45
가. 정치 및 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45
나. 여성 고용 및 경제활동	46
다. 여성 인권 및 여성폭력	52
라. 여성과 농업	61
마. 여성과 교육	66
바. 여성과 보건	71
사. 여성과 사회 인프라, 환경 그리고 수자원 접근성	79
4. 소결	81

Ⅲ. 인도네시아 젠더 프로파일	85
1. 젠더현황 개괄	87
가. 사회문화적 배경과 최근 이슈	87
나. 성별 통계 및 지표	89
다. 젠더와 빈곤	92
2. 국가 젠더정책 및 법체계	95
가. 젠더정책	95
나. 젠더관련 정부기관	98
다. 젠더관련 법체계	101
라. 젠더 프로젝트	103
3. 부문별 젠더분석	117
가. 국가개발정책	117
나. 정치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117
다. 여성 고용 및 경제활동	121
라. 여성 인권 및 여성폭력	126
마. 여성/여아 교육	130
바. 여성/여아 보건	134
사. 여성 농업인과 식량안보	138
4. 크로스-보더 (Cross-Boarder) 이슈	141
가. 지역개발과 젠더	141
나. 여성의 자원 접근성	143
나. 여성 이주 노동자	145
다. 젠더와 HIV/AIDS	148
라. 젠더와 환경	149
5. 소결	151
Ⅳ.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젠더현황 비교분석 및 정책제언	155
1.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젠더현황 분석	157

가. 양국의 여성 지위 현황 비교 (국제지표)	157
나. 주요 부문별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여성 지위 현황의 비교	159
다. 성 평등 증진을 저해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비교	160
2. 국별 정책제안	161
가. 캄보디아 정책 제안	161
나. 인도네시아 정책제안	162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젠더 사업 제안	164
 ■ 참고문헌	169
 ■ 부 록	177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여성관련 기관>	179

표 차 례

<표 I-1> 젠더 계량지표	6
<표 I-2> 젠더 정성지표 분석틀	7
<표 II-1> 성별 인구 분포	18
<표 II-2> 국제 젠더 지표	18
<표 II-3> 성인지적 관점의 국가인구통계	20
<표 II-4> CMDG1 관련 개선사항	24
<표 II-5> 소득 관련 변화 추이	24
<표 II-6> 니어리 라타나크 II의 우선순위	27
<표 II-7> 니어리 라타나크 III의 전략분야	28
<표 II-8> 니어리 라타나크 III의 주요 지표 및 목표	29
<표 II-9> 여성부 개괄	31
<표 II-10> 캄보디아 법 및 관련 수정 조항	35
<표 II-11> 여성의 인권보호 및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	35
<표 II-12>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 및 전략	36
<표 II-13> 2000년대 캄보디아 ODA 수원현황	38
<표 II-14> 양자 기관의 젠더 프로젝트	40
<표 II-15> 다자 기구의 젠더 프로젝트	43
<표 II-16> 의사결정기관에서의 양성불평등	45
<표 II-17> 캄보디아 여성의 정치참여	46
<표 II-18> 의회와 정부의 구성	46
<표 II-19> 국가별 이주 노동자	52
<표 II-20> 캄보디아 이주자 송금액	52
<표 II-21> 캄보디아 여성에 대한 폭력 현황 조사	53
<표 II-22> 가정 내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른 관련 법	54
<표 II-23> 성폭력에 대한 법적대응 방해 요인 및 CEDAW 위원회의 조치 ...	61

<표 II-24> 여성 노동자에 대한 통계	62
<표 II-25> 캄보디아 여성부 토지와 여성농업인에 대한 조사	63
<표 II-26> 현행 토지법과 여성이 겪는 문제	63
<표 II-27> 토지 공동 소유권(Joint Ownership)의 문제점	65
<표 II-28> 지역별 남녀 학교 등록률 (2003년, %)	67
<표 II-29> 교육 분야 양성 불평등	67
<표 II-30> 연도별 지역별 성별 15세 이상 식자율	70
<표 II-31> 캄보디아 새천년 개발 목표 중 여성 관련 조항	72
<표 II-32> 2003-2007 보건부문개선전략계획	73
<표 II-33> 니어리 라타나크 III의 보건관련 주요 목표 및 지표	73
<표 II-34> 캄보디아 모성 건강 지표	74
<표 II-35> 캄보디아 보건에 나타난 양성불평등	74
<표 II-36> 캄보디아 MDG5 관련 개선사항	75
<표 II-37> 2009년 국가 HIV/AIDS 실태 보고	77
<표 II-38> CMDG 6 관련 개선사항	78
<표 II-39> 캄보디아사회경제조사 2003-2004	78
<표 III-1> 국제 젠더 지표	90
<표 III-2> 성인지적 관점의 국가인구통계	90
<표 III-3> 인도네시아 MDG1 관련 개선사항	93
<표 III-4> 소득 관련 변화 추이	94
<표 III-5> MoWECP의 젠더정책 도입 방안	97
<표 III-6> MoWECP 개괄	98
<표 III-7> MoWECP 구성	99
<표 III-8> 기타 젠더관련 정부기관	100
<표 III-9> 기타 정부부서의 젠더관련 활동	100
<표 III-10> 젠더 관련 주요 법과 정부규정	101
<표 III-11> 젠더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부문별)	102
<표 III-12> 2000년대 인도네시아 ODA 수원현황	104
<표 III-13> 양자 기관의 젠더 프로젝트	106

<표 III-14> 다자 기구의 젠더 프로젝트	111
<표 III-15> 인도네시아 여성의 정치참여 및 대표성	119
<표 III-16> 부문별 남녀 고용비율 (2010년)	124
<표 III-17> 인도네시아 가정폭력 현황 조사 연구	128
<표 III-18> 교육 서비스 성별격차 감소를 위한 국가정책과 법률	131
<표 III-19> 지역별 남녀 학교 등록률 (2003년, %)	132
<표 III-20> 인도네시아 MDG5관련 개선사항	136
<표 III-21> 결혼 후 토지 등록 명의 (2002년, Java 지역, %)	144
<표 III-22> 이주 노동자 성별분리자료 (1994-2004년)	147
<표 III-23> 인도네시아 MDG 6 관련 개선사항	149
<표 III-24> 2003년 국가 HIV/AIDS 실태 보고	149
<표 III-25> 인도네시아 젠더관련 대표 기관	152
<표 IV-1> 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의 HDI 및 젠더관련 지표	158
<표 IV-2> 정치·경제·인권 분야별 ODA 젠더사업 주제	165

그림 차례

[그림 II-1] 캄보디아 여성관련 주요 기관	32
[그림 II-2] 캄보디아 사각전략 계획과 성 균형 전략	37
[그림 II-3] 캄보디아의 개발원조 수원체계	39
[그림 II-4] 캄보디아의 개발원조 파트너십	44
[그림 II-5] 성별과 교육 수준에 따른 중퇴율 (2001년-2005년)	68
[그림 II-6] 교육 과정별, 성별, 지역별, 연도별 중퇴율	69
[그림 III-1] MoWECP 조직도	99
[그림 III-2] 인도네시아의 개발원조 파트너십	104
[그림 III-3] 인도네시아 수원체계 조직도	105
[그림 III-4] PPEP 구조 및 체계	122
[그림 III-5] 성별 경제활동 참여율 (1990~2002년,%)	123
[그림 III-6] 성별 고용 성장 추세 (1990~2003년)	123
[그림 III-7] 시간당 성별 임금 격차 (2004년)	125
[그림 III-8] 보건 서비스별 남녀 접근성 (2002년)	136

약어표 (Cambodia)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CDCf	Cambodia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캄보디아개발협력포럼)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유엔차별철폐위원회)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미국중앙정보부)
CMDGs	Cambodia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캄보디아 새천년개발계획)
CNCW	Cambodian National Council for Women (국가여성위원회)
COMMIT	Coordinated Mekong Ministerial Initiative against Trafficking
ESP	Education Support Program (교육지원프로그램)
GDCC	Government-Donor Coordination Committee (원조조정위원회)
GDI	Gender Development Index (여성개발지수)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권한척도)
GII	Gender Inequality Index (성불평등지수)
GMAGs	Gender Mainstreaming Action Groups in Line Ministries (국가여성위원회)
GMAPs	Gender Mainstreaming Action Plans (성주류화 행동계획)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JMI	Joint Monitoring Indicators (공동모니터링 지표)
MoEYS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교육, 청소년 및 체육부)
MoH	Ministry of Health (캄보디아보건부)
MoLVT	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노동부)
MoP	Ministry of Planning (캄보디아 기획부)
MoWA	Ministry of Women's Affairs in Cambodia (캄보디아 여성부)
MRD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캄보디아지역개발부)
NPRS	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y (국가빈곤감소전략)
NSDP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국가전략개발계획)
PAPs	Priority Action Programmes (우선행동프로그램)
SEDP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사회경제개발계획)
TWG	Technical Working Group (기술지원작업반)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유엔인구기금)
UNIFEM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유엔 여성개발기금)
UNWomen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WB	World Bank (세계은행)
WCCC	Women's and Children's Consultative Committees (여성-여아 위원회)

약어표 (Indonesia)

ADB	Asian Development Bank
BAPPENAS	Badan Perencanaan dan Pembangunan Nasional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
BKKBN	Badan Kependudukan dan Keluarga Berencana Nasional (인도네시아 국가가족계획청)
BPS	Badan Pusat Statistik (인도네시아 통계청)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K)
DPD RI	Dewan Perwakilan Daerah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 상원)
DPR RI	Dewan Perwakilan Rakyat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 하원)
DPRD	Dewan Perwakilan Rakyat Daerah (인도네시아 지방하원)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UN
GBHN	Garis-garis besar haluan negara (인도네시아 국가정책지침)
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GII	Gender Inequality Index
GPPBM	Gerakan Perempuan untuk Perlindungan Buruh Migran (인도네시아 여성 이주자 보호운동)
GTZ	The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독일 국제개발협력기관)
HDI	Human Development Index
IFES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ion System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NFID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JHPIEGO	An International Non-Profit Health Organization Affiliated with Johns Hopkins University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DP	Kecamatan Development Project
KNAKTP	Komisi Nasional Kekerasan Terhadap Perempuan / Komnas Perempuan (인도네시아 반여성폭력 국가위원회)
KOPBUMI	Konsorsium Pembela Buruh Migran Indonesia (인도네시아 여성 이주 노동자 연합)

KOWANI	Kongres Wanita Indonesia (인도네시아 여성단체협의회)
KPPI	Kaukus Perempuan Parlemen Indonesia (인도네시아 여성국회의원회)
KUD	Koperasi Unit Desa (인도네시아 마을협동조합)
LBH-APIK	Lembaga Bantuan Hukum Asosiasi Perempuan Indonesia Untuk Keadilan (법률구조협회 여성인연합)
MENUPW	Office of the Minister of State for the Role of Women (여성역할을 위한 국무장관실)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WEMCP	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NDI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U	Muhammadiyah and Nahdlatul Ulama (인도네시아 주류 이슬람 단체)
NMTPF	National Medium-Term Policy Framework for Indonesia's Agricultural Sector
P2WKSS	Peningkatan Peranan Wanita Menuju Keluarga Sehat dan Sejahtera yang selanjutnya
PD Politik	Partai Demokrat: Politik (인도네시아 민주당)
PNPM	National Community Empowerment Programme
PPEP	Program Pengembangan Eksekutif Pertamina
PPSW	Pusat Pengembangan Sumberdaya Wanita (인도네시아 여성자원개발센터)
RKP	Rencana Kerja Pemerintah (RPJPM 하의 1년단위 개발프로그램)
REPELITA	Rencana Pembangunan Lima Tahun (70년대 인도네시아 5개년 개발계획)
RPJM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인도네시아 5개년 중장기 개발계획)
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zation
UN Women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s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PP	Urban Poverty Project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YLSMPL	인도네시아 입법활동 감시 비영리 민간기구
YPAN	Youth Participation Advisors Network (여성아동보호센터)

I

서론

1. 젠더 프로파일의 의미 및 목적	3
2. 젠더 프로파일 계량 지표	5
3. 젠더 프로파일 정성 지표	6

1. 젠더 프로파일의 의미 및 목적

이 젠더 프로파일은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총괄보고서에 부가적인 실용서로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역 맞춤형 개발 사업에서 양성평등 관점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여성 정치·경제·문화 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현 시점에서의 여성문제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여성 자원과 여성문제의 현안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파악하는 작업을 젠더 프로파일링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젠더 프로파일은 개발도상국 여성과 남성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환경, 사회문화적 문맥, 관습적 행동양식, 변화하는 가치관, 전통, 행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젠더 프로파일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사회 경제적 젠더 현황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여성지위 현황을 살펴보고 부문별로 정리한 것으로서, 향후 위 두 국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일반적인 젠더 프로파일은 두 가지의 주요 목적을 갖는다.

첫째, 젠더 관련 문제를 만성적이면서도 동시에 급박한 이슈로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담론을 확장하고, 분류화하는 작업이다. 이번 보고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성불평등을 연구한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젠더 정책과 그 실행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지식에 존재하는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젠더 관련 권리옹호활동(advocacy)에서 제기한 담론들을 통합하고자 한다.

둘째, 젠더 프로파일은 개발도상국의 성차(gender gap)에 대한 공여기관의 이해를 증진시켜, 개발도상국 성주류화 노력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틀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다.

젠더 프로파일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기존의 젠더 관련 국가 전략과 그 이행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평가
-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개발도상국 여

4 ●●●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젠더 프로파일

성과 남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여성과 남성의 역할, 의무, 여성 교육/보건/경제역량강화, 농업, 임업, 어업 분야에의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의 정도와 그 본질에 대한 평가
- 전반적 젠더 시나리오에서 지속적인 이슈 및 새로운 이슈들을 인지 및 분류하고, 여성과 남성의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개발 상황을 촉진 또는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인지
- 젠더 관련 정책이나 그 실행 과정에서 개입이 필요한 분야 소개

본 젠더 프로파일 보고서는 전분야 접근 (Sector Wide Focus)에 기초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의 분야들이다.

- 정치
- 경제: 여성과 남성 인구의 고용 가능성, 시장에 대한 접근성, 기술 교육, 대출 접근성, 비공식 분야, 정책의 틀, 산업 및 노동 정책
- 교육: 초등교육(공식적, 비공식적 교육), 중등교육 및 중등 이상의 교육(고등교육에서의 여성 참여, 등록 트렌드, 남성 등록률 감소의 원인, 성인 식자율, 기술/직업 교육)
- 보건: 특히 아동과 모성건강 보호 서비스, 가족 계획, HIV/AIDs에 초점을 맞춘 1차, 2차, 3차 레벨의 보건 시스템과 서비스
- 인권

이 보고서는 1차적, 2차적 자료 수집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러나 자료 수집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정책과 방법에 대해 편견 없는 기반과 근거를 제공하고, 젠더차원과 관련하여 정책/방법을 평가 및 모니터링 하며, 인식을 제고하고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가 필요하나, 기존의 성별통계에는 한계가 많다. 이러한 한계는 성별통계 개발에 대한 노력 부족, 통계를 위한 자원 투입의 부족, 다른 국가 데이터 우선순위와의 충돌, 성별통계 개발, 관리, 분석, 확산을 위한 계획, 기술, 인프라의 부족 등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이 보충되었다.

- 연구 주제를 분석적, 연대적으로 다룬 2차적 문헌의 광범위한 연구와 검토
- 분석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기존 정량 자료의 수집 및 재구성

통계와 지표가 부족할 경우, 기록, 통계에 의존하는 탁상 연구의 기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선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의 현장방문 자료와 현지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따라서, 인터뷰나 현지 정부 관계자, 정치인, 연구자, 활동가와의 토론을 통해서 1차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젠더 프로파일 계량 지표

젠더 프로파일과 관련하여 계량지표를 사용한 국제원조기구는 대표적으로 세계개발은행과 JICA가 있다¹⁾. 계량지표는 해당국 젠더현황을 양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나, 계량지표만으로는 보다 심도 있는 젠더 현황 및 원인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제개발기관들은 기본인구현황에 대한 성별통계에 기초하기는 하나, 계량지표보다는 정성지표에 의존하여 부문별 젠더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표 I-1>은 두 기관 간 공통된 젠더 계량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KWDI의 젠더 프로파일 계량지표는 계량지표와 정성지표를 연계하여 쓰고 있는 JICA의 형식을 따랐다.

1) JICA의 경우, 계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같이 쓰고 있다.

〈표 I-1〉 젠더 계량지표

젠더 계량 지표	인적 자산	기초인구통계	총인구 성비, 도시인구 성비, 성별 기대수명, 성별 인구증가율, 출산율, 가구 수, 성별 초혼나이
		교육	교육기간, 남녀 문맹률, 남녀 성인 식자율, 초등교육 등록/진학/낙제율 성차, 중등교육 등록/진학/낙제율 성차, 고등교육 등록/진학/낙제율 성차, 고등교육 전공별 성비
		보건	남녀 보건 서비스 접근성, 영아 사망률, 5세 미만 사망률 성비, 폐결핵 사망자 성비, 전염병 사망자 성비, 예방접종율 성비, 성별 영양상태, 산모사망률, 전문의료진분만, 임산부 빈혈, 피임률, 성별 식수원 접근성, 성별 위생시설 접근성, HIV/AIDS 보균자 비율 성비
	사회적 자산	부문별 공공지출	보건, 교육, 복지, 국방, 젠더, 기타
		정치적 대표성	국회에서의 여성 대표성, 여성 장관급 공무원, 여성 고위 공무원, 여성 고위 관리자 비율 (민간기업), 여성 전문 기술자 비율
		젠더국가정책	여성역량강화, 보건부문, 교육부문, 성인지 예산, 여성폭력, 젠더 현안
	경제적 자산		일인당 GNP, GDP 증가율, GDP 디플레이터, Gini 지수, 산업별 GDP, 해외원조 / GNP, 실업률 성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임금 성비, 산업별 고용비율, 여성 이주 노동자, 고용인구 성비, 산업별 고용비율 성비

자료. JICA, 2011; 세계개발은행

3. 젠더 프로파일 정성 지표

대부분의 국제 원조기관에서 정성지표에 무게를 두고 젠더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JICA (일본), BRIDGE (영국), AfDB (아프리카개발은행), EC (EU) 등이 있다. 정성지표를 쓰는 기관의 경우 공통적으로 젠더에 대한 역사·문화적 고찰, 국가 젠더정책 및 법체계, 정부 젠더기관, 젠더 원조 프로젝트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가개발정책, 정치, 경제, 교육, 보건, 농업, 환경 등 주요 사회부문 별로 수치화되기 힘든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젠더 프로파일 정성지표 평가를 위해 본 연구 보고서는 다음의 <표 I-2>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각 부문별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I-2〉 젠더 정성지표 분석틀

부문		내용	기관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정도	G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 시 기대수명의 성차 남녀 성인 식자율 및 교육기간 남녀 소득격차 	UNDP
	G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및 의사결정 참여의 성차 (국회의원 성비) 경제활동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결정권의 성차 (전문직, 관리 및 행정직 성비) 	UNDP
젠더관련 원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조 사업이 양성평등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사결정, 직업윤리, 활동과 정에서의 다양성을 존중했는지 여부 이러한 것들이 사업의 효율성과 어떻게 연계되는 지 파악 	DFID (영국)
해당국 정부 성 주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젠더조약 이행에 대한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여부 정부 조직 내 젠더 담당 기관, 담당자의 유무 젠더 담당 기관의 역량 및 전문가 교육 여부 국가 프로젝트 내 성 주류화 전략의 유무 자체적 평가 및 결과관리 시스템 유무 조직 문화 - 직원 성비, 직원 성 교육, 직장 문화의 성 평등 정도 	UNDP
사법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보호 - 여성 보호를 위한 법의 유무, 재산권 (특히 토지)의 성 평등 정도 법 의식 - 여성의 사법 제도 및 절차 (특히 소송 절차)에 대한 인지도, 관련 기관의 지원 및 도움 판결 - 피해자, 원고, 피의자, 증인, 배심원의 성 고정관념, 비공식적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성 차별, 사법제도의 젠더문제에 대한 영향력 	BRIDGE (영국)
여성의 정치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 공무원 성비,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남녀 참여 정도,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및 영향력 변화 정도 여성단체 네트워킹 -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설립, 강화, 협력 중인 여성단체 여성 리더십, 여성의 자존감과 자신감 개선 	BRIDGE, Oxfam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 작업 분담량 여성의 자기개발 투자 기회 민간 부문 조직 문화의 성 평등 정도 경제적 자원 (토지, 자산소유권, 상속) 접근성의 성 평등 정도 국가 고용 및 소득 창출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었는지 여부 	BRIDGE, Oxfam

8 ●●●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젠더 프로파일

부문	내용	기관
여성 인권과 여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폭력의 양적 증감 여부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인식의 개선 정도 • 여성폭력 피해 당사자의 인식 변화 정도 • 군인, 경찰, 판사 대상 연수과정에 젠더 교육 포함 여부 	BRIDGE, Oxfam
젠더 갈등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학대, 폭력 증가 • 청년층 남성 실업률 증가 • 두려움에 의한 여성의 집 밖 출입 감소 • 민족 간 신뢰 감소 • 사회적으로 가십 증가 • 지역 사회 토지 분쟁 해결 시 여성의 참여 감소 	UN Women

자료. Annalise Moser, 2007

II

캄보디아 젠더 프로파일

1. 젠더현황 개괄	11
2. 국가 젠더정책 및 법체계	26
3. 부문별 젠더분석	45
4. 소결	81

1. 젠더현황 개괄

가. 캄보디아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여성

1) 캄보디아의 역사

식민통치 - 1950년대

캄보디아는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프랑스 식민통치와 세계 2차 대전 중 일본군 점령기를 견뎌내고,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1950~60년대 당시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비교적 잘 사는 나라에 속했다. 국민 1인당 소득이 주변국가보다 훨씬 더 높았으며, 주변국가에 농산물을 수출하기도 하였다. 국토의 70% 정도를 구성하였던 숲은 지방 및 시골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으며, 전체 인구는 약 4~4.5백만 정도였다.

1960년대

60년대 중반, 캄보디아 경제는 느리게 성장하였고, 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냉전시대의 여러 신생독립국들이 겪어야했던 민주화 과정과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며, 시아누크(Norodom Sihanouk)국왕 정권이 무너지고 임시 군부독재통치 기간을 겪었다.

1970 - 80년대

5년간의 내전 후 캄보디아는 1975년 폴 포트(Pol Pot)와 크메르 루즈(Khmer Rouge)에 의해 농업사회주의(agrarian socialism)를 표방한 공산주의가 시작되게 된다. 크메르 루즈 정권은 도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국민 전체를 원래 살던 지역에서 이동시켜 국내이재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로 만들게 된다. 사유재산 및 금전소유는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구조와 사회문화적 인간관계는 철저히 파괴되며, 모든 국민은 캄보디아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정권의 소유물로 전락하게 된다. 베트남전쟁 직후 1979년 크메르 루즈 정권이 축출되고 약 10년

(1980~89)간 베트남 군부통치를 겪는 동안, 구 소련연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무역, 원조 등 금수조치를 겪게 된다. 또한 80년대는 특히 서부와 서북부 지역에서의 무력분쟁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정도로, 캄보디아는 격동의 시기를 겪게 되며, 1989년 베트남 군부통치가 끝난 후에도 일부 내전은 지속되게 된다.

1990년대

1989년부터는 이전까지 정부소유로 있던 협동농장은 사유화되기 시작했고, 캄보디아 정부는 크메르 루즈 시대 때부터 철저히 탄압되었던 교육시설 재건 및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가 재건을 시작하였다. 1991년 파리 평화협정을 기반으로 UN평화유지군은 캄보디아에 복수정당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과도기 정부를 지원하였다. UNTAC(유엔 캄보디아 과도정부)²⁾는 내전 및 분쟁에 관여한 무장집단의 무장해제 및 동원해제를 감독하였으며, 캄보디아로 유입되는 국제원조 및 재건 사업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93년 최초의 민주적 자유선거를 통해 민주적 연립정부(democratic coalition government)가 탄생되었다. 이후 의류공장과 같은 노동 집약형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캄보디아의 방대한 임업과 농업부분에 대한 상업적 개발과 투자 그리고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1993년에서 1997년까지의 국민총생산(GDP)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2000년 - 2011년

1998년 캄보디아 연합정부는 다시 혼란기를 격게 되고, 제 2차 총선을 통해 안정기를 찾았다. 그 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매년 약 8%의 성장을 보였으며, 주 원동력은 도시에 위치한 의류생산공장 및 관광업이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에 적합한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자연조건을

2) 유엔 캄보디아 과도정부(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는 캄보디아의 기본적인 안보와 치안유지, 그리고 민주통치를 위해 미화 약 17억 달러(\$1.72 billion)의 예산을 지출함.

활용하지 못하고, 논과 밭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현재 캄보디아는 여전히 사회기반시설 및 인적자원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며, 농업 및 지역 개발을 위한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2) 캄보디아의 종교와 문화

소승불교

캄보디아는 미얀마, 태국과 함께 소승불교(상좌부 불교)를 국가적 종교로 삼고 있는 나라로서, 불교가 종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³⁾. 캄보디아에서 불교는 14세기 앙코르 제국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정착되게 되었으며, 초창기 불교는 귀족 중심으로 전파된 종교로서 정책을 비롯한 사회문화경제구조 형성 전반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한 소승불교는 사회를 받드는 정신적-윤리적 기본이 되었기에 캄보디아 사람들 개개의 가치관 및 내면세계 형성에 근간이 되었다. 근대의 격동기와 오랜 식민통치 그리고 분쟁을 통해서도 쉽게 희석되지 않고,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불교와 사회계층

아울러 종교는 각 계층별로 준수해야하는 규율과 규범을 확립하는 사회 지배 철학으로 작용하면서 농업사회에서 지배와 피지배층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종교지도자는 귀족과 더불어 사회 지도층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의 행정수장이나 지방 귀족들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결정 사안이 있을 때 불교 사원의 최고 지도자 혹은 스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교사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왔다. 또한 각 지역마다 마을단위로 사원 중심의 종교 활동, 그리고 이와 연계된 문화 및 교육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는

3) ‘캄보디아의 종교와 문화’는 캄보디아 현지 조사 및 전문가 면담내용 그리고 정미경 (2009)를 참고하여 서술함.

않지만 자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불교를 통한 지배 계층과 일반대중의 관계

지배 계층은 주로 왕족, 귀족, 사원의 지도자들이었으며, 이들은 노동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피지배계층은 생산 및 노동활동에 참여하였다. 종교적 활동에 있어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귀족 즉, 지배층의 경우에는 지혜나 명상과 같은 정신활동이 현세에서의 중요한 종교수행 과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중 및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일상적 삶에서 생산적 노동 활동을 통해 보시를 하여 업보를 줄이는 것이 권장되었다. 특히 모든 사람은 전생과 현세의 업(Karma)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내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불교의 윤회설은 평민들이 공덕활동 즉, 보시(giving)를 통해 내세의 삶에서 보다 큰 행복을 누리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 이처럼 불교의 영향이 짙은 캄보디아인들은 전생의 업 (past karma)에 의해 현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조건이 주어졌다는 믿음에 기초한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현세에서 주어진 상황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캄보디아의 지배 계층은 불교의 국교화를 통해 왕권과 신권을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불교를 통치이념화 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식민지배자들에게 왕족 혹은 귀족들과 편승하여 상좌부불교를 용인하고 장려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농업을 통한 생산활동을 강조하는 불교의 종교적 윤리는 식민통치자들에게 있어 국가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자원을 통한 자본축적 및 지배를 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쓰였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심적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는 방식으로 종교 활동을 영위해왔다.

불교와 경제활동

소승불교에서 경제활동참여 및 부의 축적은 현세의 안락한 삶보다는 정

신적 안정과 내세의 행복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소승불교에서의 시장의 원리는 ‘생산과 나눔’이다. 즉 자본주의의 ‘생산과 분배’는 ‘재생산을 위한 투입’인 반면, 소승불교에서는 사회자본화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소승 불교의 ‘나눔’은 사원 등의 종교적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종교적 기관은 다시 소비시장의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기능이 유지되어 왔다. 다시 말해 생산과 소비의 관계에서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불교와 소비

불교국가로서 캄보디아 내의 경제활동 특히 국민들의 소비활동은 종교적 특색을 띤다. 국민의 대다수가 불교도인 캄보디아는 불교의 윤회설에 영향을 받아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 소비활동을 하는 소비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캄보디아 대중의 소비활동은 사원 등의 종교기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기부활동을 통해 공덕을 축적하는 경제활동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곧 피지배계층으로 하여금 다음 생에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삶을 가지고 태어나기 위해 소비하는 내세 지향적 소비의 문화를 형성하게 했으며, 아울러 지배계층이 현세에 누리는 권력과 부의 정당성을 용인하는 사회구조를 파생시킨다.

3) 문화와 여성 성역할 그리고 차밥 쓰레이(Chbap Srey)

카르마(Karma)와 여성의 성역할

캄보디아에서 불교 및 불교적 가치관인 업(Karma)의 영향은宿命론적 가치관으로 작용하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역할을 규정지었다. 남성의 경우 일생에 한번은 반드시 비구승이 되어야하는데, 이러한 종교 행위는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전생에 지은 업보를 사하고, 내세에서 지도층 또는 왕족으로 환생하여, 현세보다 나은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한 의미를 내포한다. 반면에 전생에 업보가 많은 경우, 그 결과로 현세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라는 불교적 믿음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캄보디아의 불교 문화적 요인은

여성을 청결하지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결국 비구승이 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처럼 캄보디아에서 비구승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심지어 남성들 사이에서도 비구 생활을 마친 남성은 사회적으로 보다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비구 생활이 근본적으로 차단된 여성의 경우에는 일상적 경제활동과 생산노동에 참여하여 남성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내세를 위한 덕을 쌓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된다.

성역할과 직업

캄보디아의 소승불교가 승인하는 직업군은 농업, 교역, 축산업, 경비업, 공무원, 기능직(수공업 및 지역산업포함)이다. 이중 육체적 노동을 통한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농업과 교역 및 축산업은 주로 여성들의 직업이며, 행정적이고 정신적 노동에 기반을 둔 공무원, 기능직 그리고 경비업의 경우 주로 남성들이 담당해야 하는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즉 여성은 남성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의무를 지니며, 남성은 사회적, 정치적 결정권을 지니는 것으로 활동영역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캄보디아 내에서는 불교문화가 지배적이지만, 20세기에 들어서 불어 닦힌 사회주의로 인해 여성에게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결정권한이 부여되고, 이들이 교육 및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종교적 믿음에 기초한 노동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산업화의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여성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 문화적 상황에서 경제활동은 여성 스스로의 선택 보다는 의무로 인식이 되어왔다. 1990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채택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 강도는 더욱 가중되게 된 반면, 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나 사회 정치적 참여의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

차밥쓰레이 (Chbap Srey)와 성평등

차밥 쓰레이 (Chbap Srey)는 원래 캄보디아 여성으로서 적절한 모습 및

역할에 대해 열거한 시(poem)이다. 차밥 쓰레이에 열거된 여성의 이상적인 성 역할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남성을 따르고, 존경하며, 지원하는 역할로 규정하며, 무엇보다도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인은 남편의 개인적인 하인(servant)이며,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⁴⁾ 유엔차별철폐위원회 (CEDAW)는 캄보디아의 남녀 성역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해 주목하고, 특히 차밥 쓰레이에서 묘사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시키고, 여성의 인권과 캄보디아에서의 남녀 간 성평등 실현을 저해시키는 요소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바 있다(UN, 2006). 캄보디아는 1992년 10월 15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준했으며, 부속 의정서(Optional Protocol)에도 가입했다.

차밥 쓰레이에서 묘사된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는 캄보디아의 사회전반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장년층 및 노년층 여성일수록 차밥 쓰레이에 묘사된 모든 행동양식을 준수해야한다고 믿고 있으며, 젊은 여성층에서도 일정부분 따라야하는 양식으로 인식하고 있다(Roeun, 2004).⁵⁾

나. 성별 통계 및 지표

캄보디아의 인구는 2011년 7월 기준 약 14,701,717이며, 크메르인 90%에 베타남계 5%, 중국계 1%, 기타 4%의 인종분포를 이루고 있다. 국민 94.4%의 종교가 불교이며, 이슬람교는 2.1%의 분포를 보인다(CIA, 2011).⁶⁾ 2005년 기준 전체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51.4%이고, 지방인구는 84.4%, 도시인구는 15.6%로 대다수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20세 이하 인구의 비율은 1998년 56.1%에서 2005년 49.7%로 약 6.4% 감소하였다(JICA, 2007, 1).

4) UN CEDAW Cambodia 2006 Report에 의하면, 차밥 쓰레이는 아내가 잘 때 남편을 향해 등을 돌리지 말 것과 남편이 화가 났을 때 대응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다. CEDAW (2006) “Women's Anti-Discrimination Committee Considers Cambodia's Report; ‘Code of Conduct’, Trafficking, Quotas Among Issues Addressed” 참조. <http://www.un.org/News/Press/docs/2006/wom1530.doc.htm> (2011.10.30. 접속).

5) Roeun (2004)의 조사에 의하면, 일부 젊은 층 여성은 차밥 쓰레이의 내용을 무시해도 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6) CIA (2011) The World Factbook의 Cambodia 소개 참조.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b.html> (2011.10.29 검색)

〈표 II-1〉 성별 인구 분포

성별 인구 분포	남성/여성
출생당시	1.045/1
15세 미만	1.02/1
15~64세	0.95/1
65세 이상	0.6/1
전체 인구	0.96/1

자료. CIA, 2011

1) 국제 젠더지표 (HDI, GDI, GEM, GII)

캄보디아의 2010년 현재 HDI(인간개발지수)는 0.494로, 총 169개국 중 124위로 상당히 낮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HDI(인간개발지수)가 1980년 0.391에서 2010년 0.650으로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캄보디아의 HDI(인간개발지수)는 지역 평균보다 계속해서 낮은 양상을 보여 왔다. 캄보디아의 2009년 GDI(여성개발지수)는 182개국 중 116위, GEM(여성권한척도)은 91위로 2007년의 GDI 113위, GEM 83위보다 오히려 하락하였다.

〈표 II-2〉 국제 젠더 지표

국제 개발 지표	통계수치											
	(1) HDI			(2) GDI			(3) GEM			(4) GII		
	지수	순위	연도	지수	순위	연도	지수	순위	연도	지수	순위	연도
	0.494	124	2010	0.588	116	2009	0.427	91	2009	0.672	95	2010
	-	130	2005	0.567	99	2007	0.364	73	2007	-	-	-

자료. UNDP 2005;2007;2009;2010

UNDP는 2010년 인간개발지수 보고서부터 GDI와 GEM을 대체하여 GII(성불평등지수)를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GII는 재생산 건강, 권한강화, 경제활동의 3개 부문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측정하며, 이 3개 차원에서의 성별

불평등으로 인한 인간개발의 저하를 반영한다(UNDP, 2010, 6). 캄보디아의 GII는 0.672로, 총 138개국 중 95위에 머물렀다. GII 측정의 구체적 내용 별로 살펴보면, 먼저 권한강화 부문에서는 총 의석의 16%를 여성 의원이 차지하고 있고, 중등교육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율은 12%로 21%인 남성보다 낮다(UNDP, 2010, 6). 재생산 건강 부문에서는 100,000건의 출산 당 540여명의 여성이 임신과 관련된 문제로 사망하며, 사춘기 출산율은 1,000건의 출산 당 39건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UNDP, 2010, 6).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76%로, 86%인 남성보다 10%가량 낮은 수준이다(UNDP, 2010, 6). 캄보디아와 지리 및 개발의 기준에서 이웃이라고 평가되는 라오스의 순위는 88위이고 태국은 69위인 점과 비교해 볼 때, 캄보디아의 GII는 주변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2) 성인지적 관점의 국가인구통계

캄보디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전체 의석 비율은 2005년 기준 약 10.9%이고, 2006년의 여성의 하원의원 비율은 9.8%, 상원의원 비율은 14.8%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제한적임을 나타낸다. 2005년 기준 여성장관의 비율은 0.1%이고 여성 입법관, 상원의원, 공직자, 관리자 비율은 약 14%이며, 여성의 전문직 및 기술 노동직 진출 비율은 약 33%이다. 이외에도 캄보디아의 여성은 여전히 빈곤, 가정폭력, 인신매매, 높은 모성 사망률 등, 다양한 위험과 불평등에 노출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ICA, 2007, 2).

〈표 II-3〉 성인지적 관점의 국가인구통계

	통계지표												
기본 인구 통계 지표	(1) 총인구			(2) 도시인구			(3) 기대수명			(4) 인구증가율		(5) 출산율	
	연도	전체	여성	연도	비율	여성	연도	남성	여성	연도	비율	연도	비율
	2010	14.30 (단위: 백만)	51.7 %	2009	22.2%	-	2005	52	60.1	2000- 2009	1.9	2009	2.9
노동 과 고용	(1)총 고용에서 분야별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					(2)실업률							
		농업	산업	서비스업	총 실업률	지방 실업률	여성 실업률	지방 여성 실업률	남성 실업률	지방 남성 실업률			
	2003	64.8	11.6	23.7	7.1	7.2	6.7	6.6	7.6	7.9			
	2004	60.3	12.5	27.2									
	(3) 고용관련 성별 분리 지표												
					여성			남성					
	추정 소득(PPP), 2004				\$2,077			\$2,793					
	무보수로 가족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 2004				60.4%			39.6%					
	자영 비율, 2004				42.5%			57.5%					
	임금 노동자 비율, 2004				41.5%			58.5%					
	(4) 고용 형태	농업 종사자 비율, 2004		51.3%			48.7%						
				총 농업 종사자: 50.2%									
		비농업 자영 비율, 2004		53.9%			46.1%						
				총 비농업 자영 종사자: 26.7%									
	(4)노동력 지표								(5)아동 노동자 수 / 아동 가사 노동자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지방 비율	지방 남성	지방 여성		여아	남아			
	7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2004	7,013,887명	48.3 %	51.7%	86%	47.9 %	52.1 %	7-9세 / %	30851/ 4.4	28768 / 1.8			
								10-14세 / %	61335 / 6.9	76548 / 7.9			

	통계지표									
	경제활동 인구 중 15세 이상 비율, 2004	83.7 %	83.7 %	81.15	86%	84%	88.3 %	15-17세 / % 전 연령 (7-17세) / %	47228 / 4.4 139414 / 11.8	47370 / 10.5 152686 / 7.6
경제 활동 지표	(1)빈곤지표						(2) 농업 지표			
		지방	다른 도시	프놈펜	캄보 디아 전체		농업 및 지방 개발에 책정된 국가 예산 비율	4%		
							2001 토지법 채택 이후 새로 발행된 토지 명의	80,000+		
	식량 빈곤선 (1인 1일, 리엘), 1993-4 / 2004	1185 / 1782	996 / 1568	882 / 1389	-		평균 토지 소유 사이즈	0.98 hectare		
							토지 미소유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21		
	식량 빈곤선 이하 인구, 1993-4 / 2004	22.0 / 22.2	20.0 / 11.4	3.0 / 1.0	20.0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로 등록 된 토지 비율	78		
							농업 토지가 없는 지방 가구 비율	15		
							연간 토지 미소유 가구 증가 비율	2		
	(3)경제구조				(4)부문별 연평균 성장률					
		1999	2008	2009	1989-99	1999-09	2008	2009		
	농업	43.3	34.9	35.3	4.2	5.2	5.7	5.6		
	산업	19.1	23.8	22.6	12.6	13	4	-2.5		
	제조업	14	13.6	15	17.3	12.5	3.1	-6.0		
	서비스업	37.6	41.3	42	6.5	9.5	9.0	-1.4		
여성 보건 이슈	(1)보건 직원 (2004)				(2)모자 보건과 아동 보호					
	인구 대비 의사 비율)			1: 5,220		전문적 출산 전 관리를 받는 비율			69.3%	
	공공 보건 전문가 수 / 증가 비율			19105 / 8.6		파산풍 예방 접종을 받는 비율			76.7%	
	의사 수 / 증가 비율			2586 / 20.5		철분 보충을 받는 비율			62.9%	
	약사 수 / 증가 비율			742 / 36.9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출산 비율			43.8%	
	등록 간호사 수 / 증가 비율			8231 / 3.3		보건 시설에서의 출산 비율			21.5%	

통계지표							
	(3) 아동 예방접종 비율(%), 2000 / 2005			(4) 보건과 위생 (2004)			
	남아	42.6 / 69		깨끗한 물 접근성(캄보디아/지방)	44 / 40		
	여아	37.2 / 64.2		위생시설 접근성(캄보디아/지방)	20 / 16		
	(5) 모성과 아동 사망률(2000/2005)			(6) 아동 백신접종 비율(%),2000/2004			
	출산 100, 000 건 당 모성 사망	437/417		홍역	55.4/76.9		
	출산 1000건 당 신생아 사망	37 / 28		결핵	71.4/91.4		
	출산 1000건 당 유아 사망	95 / 65		소아마비	51.5/77		
	출산 1000건 당 아동 사망	33 / 19		전체	39.9/66.6		
여성 여아 교육	(1) 교사와 학교	성별 교사 비율, 2000-06	여학생 / 남학생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41.7 / 58.3	30.8 / 80.8	33.3 / 66.7		
		선생 대비 학생 비율	2000 / 2004	50.1 / 55.1	18.5 / 25.1	-	
			2005-06	50.8	31.7	29.4	
		학교 수	2002 / 2006	5741 / 6277	534/911	163 / 252	
	(2) 총 등록률과 순 등록률 (2005-06)	총 등록률	여학생 / 남학생	89.7 / 93	50 / 60.5	15.3 / 23.1	
			전체	124	55.3	19.3	
		순 등록률	여학생 / 남학생	89.7 / 93	30.4 / 32.1	9 / 12.7	
			전체	91.3	31.3	11.3	
		여학생 등록 비율	2001-02 / 2005-06	46.5 / 47.3	36.2 / 44.9	32.1 / 38.8	
	(3) 식자율, 2004	7세 이상 식자율		여성	남성	전체	
			도시/지역	78.6 / 65.3	88.9 / 80.8	83.5 / 72.7	
		전체	67.4	82.1	74.4		
		15세 이상 성인 식자율	도시/지역	76.9 / 61.6	91.7 / 83.3	83.8 / 71.6	
			전체	64.1	84.7	73.6	
		15-24세 식자율	도시/지역	88 / 76.8	92.8 / 87	90.8 / 81.9	
	전체		78.9	87.9	83.4		

통계지표							
(4) 중퇴율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2001-02	9.55	10.84	20.8	17.3	16.5	16.2	
2002-03	9.52	10.76	22.9	20.4	23.3	23.3	
2003-04	12.2	9.67	22.5	28.8	18	20.5	
2004-05	12.1	11.4	23.5	21.4	15.7	17.8	
(5) 기술, 직업 교육 및 트레이닝			(6) 학교 생존율(2005)				
	전체	여성 비율		여학생	남학생		
2000-01	6169	29.4%	1-5 학년	54.9%	56%		
2001-02	7943	19.9%	1-6 학년	47.6%	48.7%		
2002-03	6790	26.8%	1-9 학년	24.8%	27.9%		

자료: JICA 2007(주 1 단위: 백만)

다. 젠더와 빈곤

1) 빈곤

캄보디아는 1993년에서 2006년까지 13년 동안 빈곤을 약 17% 감소시켰으로써 큰 성과를 보였다. 1994-2004년까지 지방의 빈곤은 22%, 프놈펜 지역은 60%의 빈곤 감소율을 보였다. 이처럼 캄보디아는 지난 10년간 빈곤감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으나, 빈부 격차와 불평등의 문제는 빈곤과 함께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

빈곤감소는 주로 도시지역의 경제활동과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최근의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발맞춘 배분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캄보디아 극빈층의 소비가 국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8.5%에서 2007년 6.6%로, 오히려 감소하였다(Ministry of Planning, 2010, 8-10).

〈표 II-4〉 CMDG1 관련 개선사항

MDG 1. 빈곤과 기아 퇴치		지표 (%)	1993	2007	2015 목표
목표 1	1993-2015년 기간 중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1/2로 감소	1.1.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 비율	47	30.1	19.5
		1.2 빈곤 하위 20% 계층이 국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8.5	6.6	11
목표 2	1993-2015년 기간 중 기아 인구 비율 1/2로 감소	1.5 식량 빈곤선 이하인 인구 비율	24	18	10

자료: MoP 2010

2004년 기준 빈곤선(poverty line)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은 약 35%이며,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은 지방에서 가장 높고, 프놈펜에서 가장 낮다. 캄보디아는 90년대 중반까지 여전히 지방에서는 크메르 루즈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국가적 추적 통계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World Bank, 2006a).

〈표 II-5〉 소득 관련 변화 추이

빈곤층 현황 관련 지표	1993	1994	1997	2004	2005	2007
빈곤선 이하 인구(%)	-	-	36	31	-	31
식량 빈곤선 이하 인구(%)	24	-	-	-	19.7	-
\$1.25 (ppp) 이하 계층 (%)	-	48.6	-	40.2	-	28.3

자료: CIA 2011; World Bank 2011a

2) 빈곤과 여성

UNDP의 보고서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 빈곤의 문제는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성과 특히 여성 가장 (female headed household)의 가정은 더욱 빈곤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회적 자본과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가장은 소속된 지역 내에서의

의사결정권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UNDP, 2011). 또한 캄보디아 기획부(MoP)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적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여성의 필요에 맞는 은행 신용대출이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기회 및 여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기회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Planning, 2010; UNDP, 2011).

빈곤의 여성화

캄보디아 여성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빈곤층 대상의 성별 통계자료 수집 및 성인지적 분석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빈곤이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은 다른 빈곤의 이슈들에 대한 통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아동노동을 통해 살펴보면, 빈곤은 아동 노동에 영향을 주며, 여아의 노동 참여율이 남아의 노동 참여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14-17세 연령대의 아동노동에 있어서 여아는 50%, 남아는 36%가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MoWA, 2008a, 26-28). 여성가장은 빈곤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는데, 여성가장가구(female headed household)의 자녀는 남성가장가구(male headed household)의 자녀에 비해 아동 노동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여성가장가구의 여아 60%와 남아 48%는 아동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남성가장가구 아동노동률(여아 43%, 남아 3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양학적 통계를 통해 보면, 15세 이상의 성인 남성인구는 성인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주식(staple food)를 섭취하고 있으며, 고기, 계란 등의 고 영양 식품의 섭취에 있어서도 여성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MoWA, 2008a, 26-28).

2. 국가 젠더정책 및 법체계

가. 젠더정책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수조건이다. 법과 정책으로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많은 노력들은 지속적인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적 정비나 정책의 입안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최근에는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여성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니어리 라타나크(Neary Rattanak)의 연도별 계획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니어리 라타나크 I (1999 - 2003)

여성부는 ‘여성은 소중한 보석이다’라는 의미의 ‘니어리 라타나크(Neary Rattanak)’라고 불리는 5개년 국가 전략 계획을 채택하였다. 여성의 가치를 남성보다 열등하게 보는 시각이 담긴 ‘남성은 금이고 여성은 천이다’라는 캄보디아 속담에 반하는 의미로서 만들어졌다. 니어리 라타나크 I은 1999-2003년 동안 운영되었으며, 베이징행동강령에 기반을 두어 교육, 보건, 법적 보호, 경제개발, 성주류화라는 5가지 분야를 우선순위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MoWA, 2004c).

니어리 라타나크는 지역개발부(MRD), 보건부(MoH), 교육, 청소년 및 체육부(MoWVA) 등 핵심 정부 부처와 함께 성주류화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여성부 공무원이 주요 부처와 지방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젠더 관련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MoWA, 2004c).

2) 니어리 라타나크 II (2004 - 2008)

제 2차 니어리 나타나크는 신정부의 국가전략에 포함되었다. 니어리 라타나크 II는 니어리 라타나크 I과 같은 영역을 다루되 우선순위에서 I과는 차

이가 있다. 여성부의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며, 법적 보호, 성평등, 그리고 교육을 위한 새로운 부서를 생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6〉 니어리 라타나크 II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1	수자원, 에너지, 토지, 정보 등을 포함한 경제자원의 균등한 분배원칙에 입각한 여성의 참여 강화.
2	가정폭력, 인신매매, 강간과 그 외의 다른 폭력들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3	산모와 영아 사망, 영양결핍이슈와 HIV/AIDS 등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과 여아의 권리 보호
4	교육, 문해력, 기술훈련 등에 대한 여성과 여아들의 권리 보호
5	정부기관의 모든 영역에 여성들의 지속적인 참여 장려

자료. MoWA 2008a

여성부는 니어리 라타나크II의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사회경제개발계획 II (2001-2005)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국가 전략개발계획 2003-2005의 개발에도 깊이 관여되었다. 여성의 이슈나 관심사가 주요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니어리 라타나크 II의 내용을 반영한 국가정책은 국가전략개발계획안(NSDP), 사회경제개발계획 (SEDP), 국가빈곤감소전략 (NPRS), 캄보디아 새천년 성장, 고용, 평등, 효율을 위한 사각전략 등이 있다.

3) 니어리 라타나크 III (2009-2013)

2011년 현재 캄보디아 여성부는 2009-2013년까지의 5개년 계획, 니어리 라타나크 III를 진행하고 있다. 니어리 라타나크 II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더 향상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교육에서의 성평등, 여성의 법적 보호, HIV/AIDS 예방 및 보호를 비롯한 공공 보건 문제, 그리고 여성의 정치 참여 이렇게 5가지의 전략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성주류화 및 젠더이슈의 범분야적 도입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7〉 니어리 라나타크 III의 전략분야

전략 분야 1: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p>남여 모두에게 공평한 빈곤퇴치전략과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실행, 사업 및 고용 기회의 확대,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취약, 빈곤, 실업 및 장애 여성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자 함.</p> <p>전략 분야 1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로 농업 분야 임금 노동의 여성 점유율, 산업 분야 임금 노동의 여성 점유율, 서비스 분야 임금 노동의 여성 점유율을 제시하였으며, 달성 목표 시기를 2015년으로 정함.</p>
전략 분야 2: 여성 및 여아 교육과 태도와 인식의 변화
<p>초등/중등/고등 교육에서의 여아 참여 확대, 여성을 위한 문해 교육 및 기술 개발 프로그램 촉진, 사회적 도덕성과 가족의 가치를 증진을 목표로 함. 부모의 역할과 여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 인식을 증진하고, 교육 단절 여성과 여아를 위한 비공식 교육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취학 전 학교와 부모 역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함.</p> <p>구체적인 목표로는 고등교육까지 각 교육 단계별 남학생 대비 여학생 비율을 100%까지 달성, 대학 교육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을 85%까지 달성, 여성 교사, 부교장, 교장의 비율 증가 등을 설정함.</p>
전략 분야 3: 여성과 여아의 법적 보호
<p>여성과 여아에게 법적보호에의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의 제정 및 법의 집행에 관여하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에 여성과 여아의 인권 및 젠더 문제가 포함되도록 하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 및 재할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임. 성폭력,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상담 서비스와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양자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 매커니즘의 강화를 명시함.</p> <p>전략 분야 3의 가정폭력이 범죄로 인지되는 비율,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상담된 가정폭력 사건의 비율, 법정에서 가정 폭력에 대해 보호 명령을 내린 건수, 지역 위원회에서 가정 폭력에 대한 관리적 결정을 내린 건수,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신매매 피해자 수를 이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 함.</p>
전략 분야 4: 여성과 여아의 건강 및 영양 향상 / HIV/AIDS
<p>여성과 여아가 기초적 건강관리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HIV 예방 방법을 사용하며, 여성생식 및 보건환경 대한 지원 그리고 영양학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내용. 이를 통해 여성생식 및 보건에 대한 건강정보와 서비스를 개선하고, HIV/AIDS의 배우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주요 전염병 및 말라리아 예방에 대한 여성의 인식을 강화하고자 함. 구체적인 지표로 임산부 사망률 비율, 철결핍성 빈혈을 가진 임산부 비율, 현대적 자녀터울기술(7)을 사용하는 기혼 여성 비율, 임신 클리닉을 방문하는 15-49세 임산부의 HIV 감염 비율, 임신 클리닉을 다니는 여성이 HIV 테스트를 한 비율, 말라리아 사망 비율 등을 개선하는 것을 설정함.</p>
전략 분야 5: 여성의 공공 의사결정과 정치
<p>정치와 공공 결정 분야의 동등한 여성 대표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실행, 거버넌스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의사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자신감(confidence) 개발이 전략분야5의 핵심내용. 국가와 지역 정부 차원의 임명 및 선출 지위에서 여성의 공정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모든 차원의 공무 조직의 의사 결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포함함.</p>

지표로 국회, 상원, 여성 장관, 여성 공무원, 지역 단체장 위원회, 지역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지정함. 지역 위원회의 여성 리더 비율 또한 지표에 포함되어, 여성의 실질적 정치권한강화를 목표로 삼음.

자료. MoWA 2008b

〈표 II-8〉 니어리 라타나크 III의 주요 지표 및 목표

지표	실제		목표	
	년도	수치	년도	수치
성주류화 행동계획을 가진 부처, 기관의 수	2007	15	2013	27
성주류화 행동계획이 실행	2007	5	2010	15
New Cambodia Gender Assessment가 준비 및 배포됨	2008	달성	2013	달성
성인지적 지표를 포함하여 국가전략개발계획(NSDP)의 성주류화	2007	달성	2013	달성
CEDAW 주기적 보고서의 작성, 상담 및 공식 제출	2008	draft	2010	제출

자료. MoWA 2008b

4) 니어리 라타나크와 성주류화

5개 전략 분야의 달성을 위한 기반으로, 니어리 라타나크 III는 성주류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성주류화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가 및 분야별 정책과 계획 그리고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에서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주류화(mainstreaming) 하는 것으로, 모든 차원에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개발 파트너들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주요 지표 및 목표로서 성류화 행동계획을 가진 부처와 기관의 수 확대, 성주류화 행동계획의 실행 사례 확대, 새로운 캄보디아 젠더상황 분석(New Cambodia Gender Assessment)의 준비 및 배포, CEDAW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성인지적 지표를 포함한 국가전략개발계획(NSDP)의 성주류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7) 장기적 피임기술을 통한 연년생 자녀의 출산을 피하고, 출산된 자녀간의 터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니어리 라타나크 III는 감시 및 평가를 위한 계획도 설정하여 포함하고 있다. 여성부는 니어리 라타나크 III에 기반하여 TWG-G⁸⁾, 캄보디아 여성위원회(CNCW) 및 기타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연간행동계획을 개발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행동계획의 검토 및 준비는 니어리 라타나크 III 5개년 계획의 실행 기간 동안 매년 연말에 이루어진다. 여성부 및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연간 행동계획과 연간 보고서뿐만 아니라, 전략계획의 지표들을 활용하여 단기 및 중기의 진전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여성부, 캄보디아여성위원회, TWG-G는 관련 부처, 기관, 지역 및 국제 개발 파트너들과의 공유를 위해 주기적으로 성평등과 성주류화에 관한 진전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며, 니어리 라타나크 III의 이행에 관한 감시와 후속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나. 젠더관련 정부기관

1) 여성부 (Ministry of Women's Affairs in Cambodia)

캄보디아 여성부는 1997년에 성인지적 정책과 성평등 프로그램 촉진에 중점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 정부부처가 되었으며, 크게 3가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국가정책 형성과정에서 성주류화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부 장관은 2001년에 각 부처 장관 및 유관 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차관급 위원회로 설립된 국가여성위원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둘째, 관련 정부부처, 양자다자 공여기관의 성평등 관련 개발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지원 및 협력조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여성의 능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법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8) Technical Working Group on Gender는 젠더분야 전문기술지원을 위한 작업반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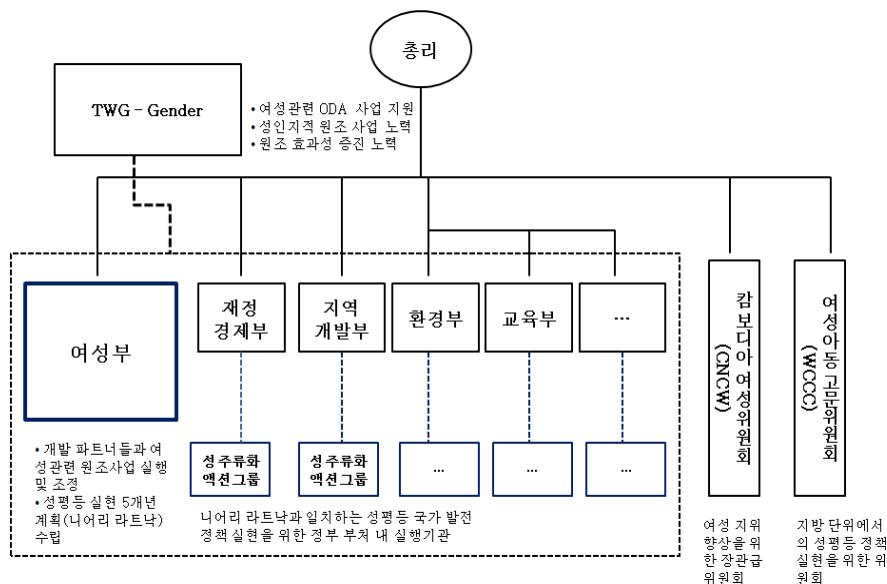
〈표 II-9〉 여성부 개괄

명칭	Ministry of Women's Affairs
설립	1996
예산	GDP이 약 0.39%(2003년 기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정부 정책에서의 성주류화 •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호 •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와 경제 발전에의 참여 • 여성과 청소년, 아이들의 보건과 영양 증진 • 여성과 여아 대상 교육, 문자, 기술 트레이닝 • 거버넌스 기관 및 의사 결정에서의 여성 참여
역할	국가정책 형성과정에 성주류화 메커니즘 구축, 관련 정부부처, 양자·다자 공여기관의 성평등 관련 개발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지원 및 코디네이팅, 여성의 능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법 개발

자료. JICA 2007

여성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성인지 정책과 성평등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부의 성평등 발전 5개년 계획인 Neary Rattanak(여성은 귀중한 보석)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Neary Rattanak I (1999-2003), Neary Rattanak II (2004-2008)를 수행했으며, 현재 Neary Rattanak III (2009-2013)가 진행 중이다. 또한 양자, 다자 공여기관의 성평등 관련 개발 프로그램/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및 코디네이팅 업무를 맡는다.

2) 젠더관련 정부기관



[그림 II-1] 캄보디아 여성관련 주요 기관

국가여성위원회 (Cambodian national Council for Women: CNCW)

국가여성위원회는 2001년에 설립되어, 성주류화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제 협약은 물론 정부의 법, 정책 및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총리로부터의 여성 및 양성평등을 위한 특별 정책 및 지시사항에 대한 각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각 부처 장관 및 유관 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장관급 위원회로서,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법, 정책 및 규정 사항의 이행을 촉진, 관리 및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 수행을 돕는다. 이를 통해 각 부처내의 성인지적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관련 국제 조약을 이행하고 후속조치를 담당하며, 4년에 한번씩 CEDAW에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 작성한다.

부처 성주류와 액션그룹 (Gender Mainstreaming Action Groups in Line Ministries: GMAGs)

GMAG는 거의 모든 부처에 설립이 되며, 성주류화 행동계획(Gender Mainstreaming Action Plans)을 기획 및 실행한다. GMAG는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성평등 노력을 촉진하고 감시하며, 정부 정책이 Neary Rattanak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 부처의 GMAG는 TWG-G의 멤버로 활동하도록 2인의 담당자를 두고 있으며, TWG-G를 통한 부처 간 회의 및 젠더 관련 공여국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TWG-G의 의장은 여성부 장관이며, TWG-G의 멤버로는 위에 언급한 부처별 담당자, 공여국/기관, NGO등을 포함하고 있다.

젠더부문 기술지원작업반 (Technical Working Group on Gender: TWG-G)

기술지원작업반(TWG)는 Government-Donor Consultative Committee (GDCC)의 틀 안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성평등, 파타너십, 원조조화, 분권화 등 크로스커팅 이슈에 관하여 매년 Joint Monitoring Indicators (JMI)를 발표하고, 원조 정책 및 개발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지원작업반(TWG)은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에 대한 정부와 원조기관 공동의 이행 서약을 통해 생성되었으며, 원조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정부 주인의식 및 개발 어젠다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04년 설립된 TWGG는 여성부를 의장으로 하고 UNDP, JICA를 공동조력자로 하며, 각 부처 및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조직이 멤버로서 참여하고 있다.

여성부 장관은 타부처의 TWGG 담당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필요시 여성 및 젠더관련 행사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해 해당 부처의 장관에게 협조요청서한을 보낼 수 있다.

여성-여아 위원회 (Women's and Children's Consultative Committees: WCCC)

캄보디아는 2001년부터 분권화와 탈집중화(Decentralization and De-concentration)

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수도, 지방정부, 시정부, 군 및 그 이하 지역에 대한 행정관리법⁹⁾ 그리고 지방 정부 소속 기관으로 WCCC가 만들어졌다. WCCC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 아동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방 위원회, 의회, 자문 위원회 등에 제안과 고문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다. 젠더관련 주요 법과 정책

1) 헌법

여성의 헌법적 권리와 관련된 구체적 조항은 헌법 31조와 35조이다. 31조는 캄보디아 왕국은 국제인권선언에서 천명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 정의에 기반하여 인권을 존중하며, 성별에 상관없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신념과 종교, 정치성향, 종족, 사회적 신분 등에 상관없이 국민의 인권을 존중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5조는 캄보디아 시민에게 성별에 차이 없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보장되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Cambodian Committee of Women, 2007).

2) 법

헌법에 기초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조항으로 ‘가정폭력과 희생자 보호를 위한 법(2005)’, ‘중대범죄 처벌법(2001)’,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1989)’, ‘유괴, 인신매매, 인권착취 방지법(1996)’, ‘노동법(1997)’ 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의 이행 및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으며, CEDAW에 충족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도전과제들이 남아있다(Cambodian Committee of Women, 2007).

9) Law on th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the Capital, Provinces, Municipalities, Districts and Khans

〈표 II-10〉 캄보디아 법 및 관련 수정 조항

법률 및 규정	내 용	날짜
임신중절법	여성의 임신에 대한 권리 보장; 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중절의 절차와 조건에 대한 규정 명시	1997년 채택
1997 노동법	고용에서의 평등과 성에 기반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나, 여성의 이익에 반하는 다수의 차별적 조항 보유	1997년 채택
HIV/AIDS 예방과 통제에 관한 법	차별 금지를 포함하여 HIV/AIDS 감염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	2002년 채택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	이혼, 재산, 잔인성 및 아내 폭행에 관련된 조항 제공. 2006년 1월 16일-2월 3일 동안 열렸던 CEDAW 회의에서, 위원회는 캄보디아 정부에게 남성과 여성의 최소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올릴 것을 촉구. 이는 CEDAW 조항 16, 위원회 일반 제안 21,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일맥상통.	1989년 채택

자료. JICA 2007

〈표 II-11〉 여성의 인권보호 및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

법률 및 규정	내 용	날짜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	가정폭력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이는 피해자에게 두려움 및 충격을 주기 위한 목적의 협박을 포함; 남편, 아내, 아동 및 한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 제공; 지역 권위체에 의한 개입 및 지역 법원의 보호 명령에 의한 보호 방안 설립	2005년 채택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	결혼 안에서 이루어진, 배우자 양쪽의 노력과 소득에 의해 일궈진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양쪽 배우자 모두에게 보장	1989년 채택
토지법 2001은 크메르인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	토지 사용권을 규제와 관련된 조항 포함	2001년 채택
유괴, 인신매매, 인권착취 방지법	사법 공무원에게 인신매매 범죄자의 체포 및 기소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힘을 부여	1996년 채택

자료. JICA 2007

〈표 II-12〉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 및 전략

법률 및 규정	내 용	시작연도
성장, 고용, 평등, 효율을 위한 사각전략	젠더를 4개 목표 성장 분야 중 하나로 지정	2004
국가전략개발계획	캄보디아 새천년 개발 목표, 빈곤감소전략, 국가인국정책을 아우르는 개발 프레임을 명시	2002
캄보디아 새천년 개발 목표	지역화된 8개 MDG 목표와 캄보디아만의 1개 추가 목표인 지뢰제거와 피해자 지원	2003
니어리 라타나크 I, II, III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정부 부처를 보완할 수 있는 여성부의 비전과 5개년 계획을 정의; 계획의 목표는 불리한 조건에 놓인 집단에서 국가의 귀중한 자산으로, 캄보디아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	1999 - 2013

자료. JICA 2007; MoWA 2008b

3)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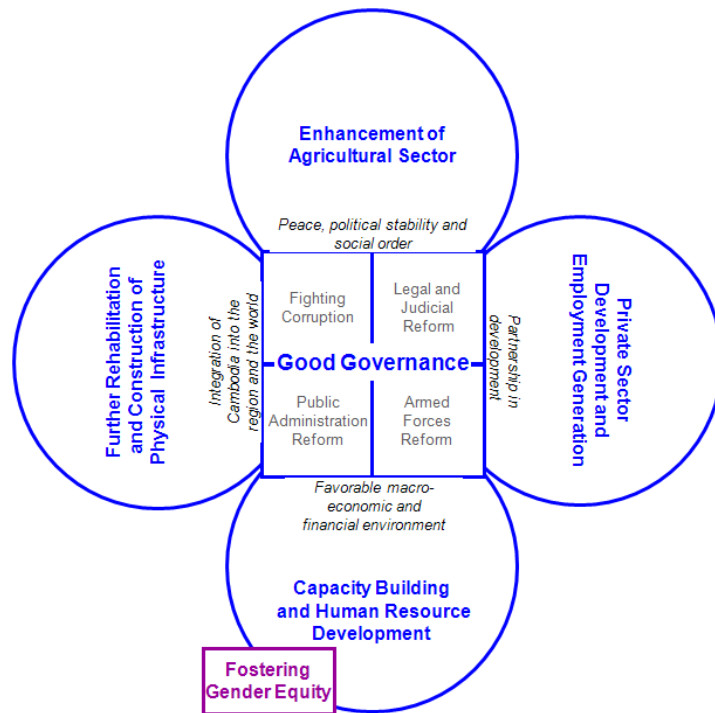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2004년에 발표된 ‘사각전략’(성장, 고용, 평등 그리고 효율을 위한 사각전략)¹⁰⁾은 1998년-2003년 ‘평화정착 및 국내정국의 안정’, ‘국제사회에의 편입’, ‘경제개발 및 개혁을 통한 빈곤타파’를 핵심목표로 삼았던 훈센정부(제2기 연립정부)의 ‘삼각전략’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대된 정책으로 캄보디아 최우선 과제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빈곤퇴치전략(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y)’을 실현하기 위한 총체적 마스터플랜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각전략은 전략적 성장을 위한 4대 영역을 제시하는데, 제 1영역으로 농업부문의 육성, 2영역으로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창출, 3영역으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그리고 제 4영역으로 능력배양 및 인력자원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2006~2010년에는 사각전략의 핵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계획으로서 국가전략개발계획(NSDP)가 수립되었다(Royal Government of Cambodia,

10) 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Efficiency

2005, 3-7). 니어리 라타나크 II는 사각전략 및 국가전략개발계획과 연동되어 진행되도록 채택되어, 젠더와 여성역량강화를 포함하는 정책적 큰 틀로 분류될 수 있다.



자료. Hak and Siphath 2011

[그림 II-2] 캄보디아 사각전략 계획과 성 균형 전략

4) NGO 법

2011년 가장 논란이 되었던 법 중 하나는 NGO법 개정을 둘러싼 문제였다. 현재 주요 원조국들의 쟁점으로 부상하여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1월 11월로 예정된 제 4차 CDCF(2011-2013년)가 무기한 연기되어 있다. 미국 등 서구사회의 주요 원조공여국들은 시민사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NGO법이 캄보디아에서 개정되는 것에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NGO 법 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 젠더 프로젝트

1) 캄보디아 원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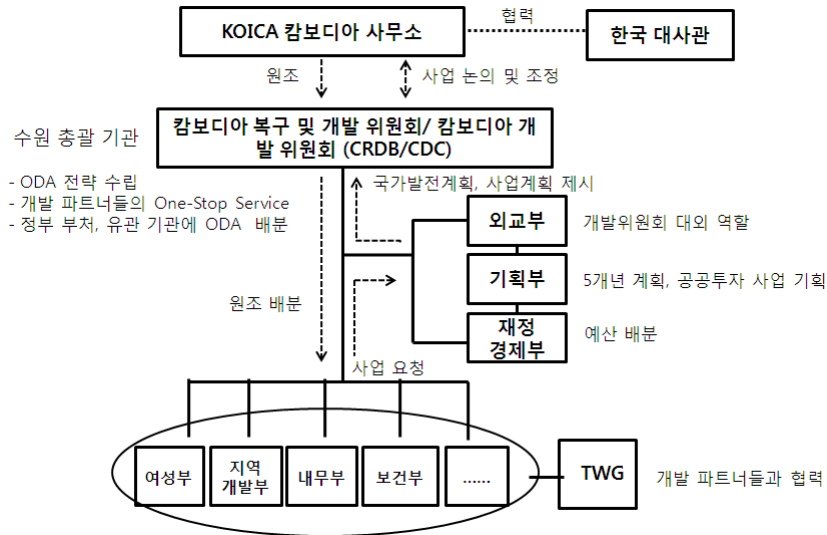
캄보디아는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다자기구(WB, IMF, ADB) 등의 유무상 원조기관으로부터 원조 및 기술지원에 관한 지원금액이 매년 5억불 이상 유입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34). 전체 원조 총액에서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약30% 이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25). 또한 부정부패의 만연(부패지수158/2009년)과 취약국으로서 겪는 문제들 그리고 전체인구의 약 36%가 최저생계선 이하인 최빈국으로서 겪는 빈곤퇴치의 문제 등, 굵직한 문제들이 산재한 나라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마련은 캄보디아의 빈곤탈출과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표 II -13〉 2000년대 캄보디아 ODA 수원현황

(단위: 100만 달러)

ODA		총 ODA (% of GNI)
연도	총액	
2005	171.24	8.9
2006	150.43	7.6
2007	199.6	8.2
2008	279.68	7.6
2009	239.93	7.3

자료. OECD DAC 2011



[그림 II-3] 캄보디아의 개발원조 수원체계

캄보디아 개발원조 협력체계의 두 핵심 축은 캄보디아개발협력포럼(Cambodia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CDCF)과 원조조정위원회(Government-Donor Coordination Committee, GDCC)이다. CDCF는 캄보디아 정부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정부와 외부의 원조파트너들 간 고위급 포럼이다. 외부의 원조 공여국 으로서는 중국이 처음으로 이 포럼에 참여하였으며, 2005년부터 매년 공동 모니터링 지표(JMIs)를 개발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와 원조공여자들로 구성된 원조조정위원회(Government-Donor Consultative Committee, GDCC)는 JMIs 개발 과정을 분기별로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젠더 관련 지표들도 매년 JMIs에 반영되고 있으며, 몇 몇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 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2005년 JMIs에서 NSDP에 성주류화를 포함시 킬 것과 가정폭력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사례가 있다(MoWA, 2008a, 178-179).

2) 젠더 원조프로젝트

캄보디아 정부의 주요 개발원조 파트너로서 크게 ‘국제금융기구’, ‘유엔

산하기구’, ‘EU’, ‘양자 개발파트너’, 그리고 ‘캄보디아의 NGO’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규모 9억 8천 9백만 달러 중에서 젠더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였다.

최근 10년간 각 정부부처와 공여기관 간에 이루어진 젠더 프로젝트들은 53개이며 그 중에서 23개는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30개는 진행 중이다.¹¹⁾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젠더 프로젝트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양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젠더 프로젝트의 추이를 볼 수 있으며, 양국가가 각각 어떤 기구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하는 점과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십 구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14〉 양자 기관의 젠더 프로젝트

원조기관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현지 협력기관	
				NGO	정부부처
JICA(일본)	Gender Mainstreaming and Policy Development through Upgrading Information and Research Capacity (PGM)	2003-2008	여성부 및 주요 부처의 성평등 연구와 정책 실현을 위한 역량 강화	GADC ¹²⁾	농림수산부, 기획부, 상업부, 지역개발부, 통계청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ject *UNICEF와 협력	1998-현재	항생제와 비타민A 제공을 통한 모자 건강 증진		보건부
	Girls' Education Project * Care International 과 협력	2002-	여아를 위한 방과 후 교실, 장학금, 기숙사 지원 등 여아의 교육 기회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교육체육부
	Development Study on Strengthen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 Performance	2006-	캄보디아의 모자 건강 현황 분석, 보건부의 모자 건강 서비스 제공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보건부

11) CRDB/CDC, THE CAMBODIA ODA DATABASE. Reporting Year: 2010. 양자/다자 기구의 젠더관련 프로젝트/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 http://cdc.khmer.biz/Reports/reports_by_sector.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조기관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현지 협력기관	
				NGO	정부부처
GIZ(독일) * CIM ¹³⁾ 와 협력	Promotion of Women's Rights	2002- 2009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 부의 정책 지원, 가정폭력 금지 법안 로비, 시민사회 조직의 피해자 보호 지원		여성부, 사법부
AusAid (호주) *IWDA ¹⁴⁾ 와 협력	IWDA Community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 NGO Cooperation Agreements	2010- 현재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지역의 태도 및 행동 변화 유도, 지역의 범죄 예방 및 여성의 안전 강화	ADHOC ¹⁵⁾	여성부
USAID (미국) * Asia Foundation, World Hope International과 협력	Counter Trafficking in Persons in Cambodia	2004- 현재	National Task Force on Trafficking 설립, 인신매매 관련 감시 방안 마련, 피해 자 보호 기준 마련		여성부, 인신매매와 착취에 대한 국가대책본부
CIDA (캐나다) * Oxfam Quebec과 협력	Anti-human Trafficking	2004-	인신매매지원센터 설립, 예 방 캠페인		
DANIDA (덴마크) * ADDA ¹⁶⁾ 와 협력	Integrated Women Empowerment Project	2005- 2011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 조직의 설립과 관리를 통한 여성 농부들의 권한 강화		농림수산부
DFID (영국) *Health Poverty Action과 협력	Action Research to Advocacy: Empowering Indigenous Women to Realise their Maternal Health Rights in difficult Environment of Cambodia and Peru	2008- 2011	선주민여성의 안전한 모성 에 대한 권리 증진 및 모성 문제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 증진		보건부
AECID (스페인) *PYD ¹⁷⁾ 와 협력	Improve Opportunities and Encourage Cambodian Women's Role in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Areas	2008- 2012	여성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성적인 권리 증진		여성부

원조기관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현지 협력기관	
				NGO	정부부처
NORAD (노르웨이) * NPA ¹⁸⁾	Women's Rights in Banteay and Meanchey	2005-	여성 인권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캠페인	PADV ¹⁹⁾	
KOICA (한국)	바테이 병원 역량강화사업	2011-	모자보건 분야의 보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후한 병원시설과 장비를 모자보 건센터로 개보수하고 모자 보건 교육에 필요한 의료진 파견 및 한국초청연수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보건부

* 양자기구와 협력한 해당국 NGO를 표기하였음.

자료: MoWA 웹 사이트; 기관별 웹 사이트; CDC/CRBD ODA 웹사이트; MoWA 웹사이트;
JICA(2007), Cambodia Country Gender Profile, p.46-49 재인용.

-
- 12) Gender and Development for Cambodia
 - 13) Center for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 14) International Women Development Agency
 - 15)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 16) Agricultural Development Denmark-Asia
 - 17) Pazy Desarrollo
 - 18) Norwegian People's Aid
 - 19) Project Against Domestic Viol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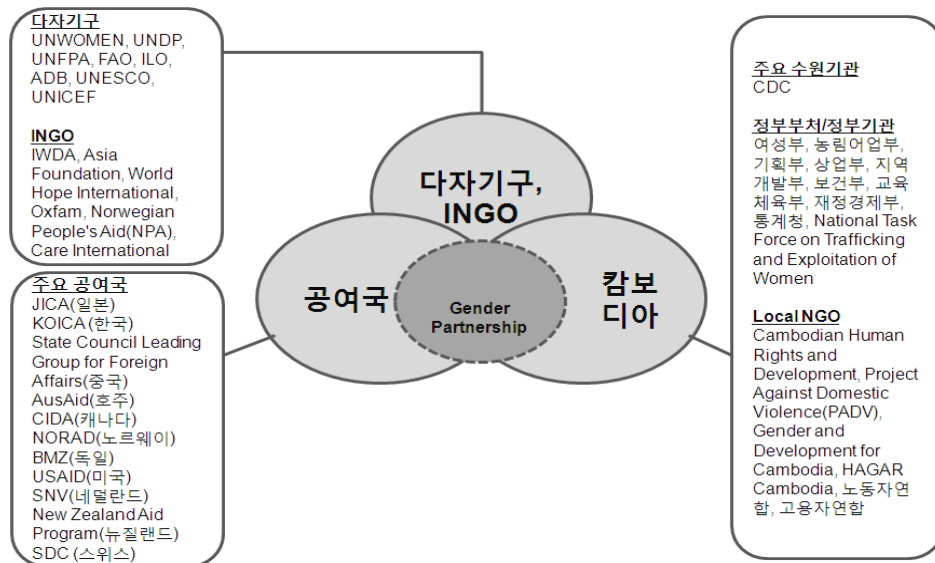
〈표 II-15〉 다자 기구의 젠더 프로젝트

원조기관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현지 협력기관	
				NGO	정부부처
UNDP *SNV (네덜란드) 와 협력	Partnership for Gender Equity	2004-2010	여성부의 역량 강화, 여성 대상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여성부, 통계청
ADB	Sustainable Employment Promotion for Poor Women	2002-2004	여성의 고용기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기업가 스킬 교육 제공 및 관련 네트워킹을 위한 여성부의 역량 강화		여성부, 지역개발부, 상업부, 교육체육부
	Action Plan for Gender Mainstreaming in Agriculture	2006-2010	농업 분야와 지역 개발에서의 성 주류화가 가능하도록 농림어업부의 역량 강화	Employer's Federation, Cambodian Union Federation	재정경제부, 농림어업부
ILO * AFD ²⁰⁾ , PAD ²¹⁾ 와 협력	Regional Programme for Expansion of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EEOW)	2001-2006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향상을 위해 노동 관련 법안 제정 및 실행 검토, 지방 정부의 성주류화 실행, 지역 커뮤니티에서 여성 대상 프로그램 실행	APDO ²²⁾	JICA
UNIFEM	Promoting Safety of Women Workers in the Beer Industry (PSWWBI)	2009-2012	맥주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 희롱과 폭력을 예방	Care International Cambodia, SABC ²³⁾	여성부
	CEDAW Southeast Asian Programme	2006-2007	CEDAW와 CMDG에 대한 트레이닝 모듈 개발	Silaka	여성부
	Cambodia Gender Assessment	2003-2008	캄보디아 성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데이터 수집	캄보디아 현지 NGO 다수	여성부
UNICEF *Oxfam과 협력	A Global Women Empowerment Program	2004-2007	마을 기반의 여성 저축 공동체 형성, 여성권한강화 그룹 형성, 여성 문맹 교육을 통한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	Pact Cambodia	
FAO	Assisting Cambodian Women to Improve Household Food Security and Family Economy	2001-2003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영양 및 식량 안보에 관한 트레이닝, 여성 대상 소규모 크레딧 프로그램		여성부

원조기관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현지 협력기관	
				NGO	정부부처
UNFPA	Reproductive Health-Community based distribution of contraceptives	2001-2003	지역에 기반을 둔 피임약의 보급 등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보건부, 여성부
	HIV/AIDS Policy for Women & Girls	2003	여성과 여아 대상 HIV/AIDS 정책 및 워크숍		보건부
	Reproductive Health and Gender Advocacy	2002-2004	재생산 건강 부문의 성평등을 옹호, 지원하는 정부 기관과 NGO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자와 미디어의 이해 증진	캄보디아 보건 NGO 다수	보건부

* 다자기구와 협력한 양자기구 또는 NGO를 표기하였음.

자료: CDC/CRBD ODA Database 웹사이트; MoWA 웹 사이트; 기관별 웹 사이트; JICA(2007), Cambodia Country Gender Profile, p.46-49 재인용.



[그림 II-4] 캄보디아의 개발원조 파트너십

- 20) Association Farmers Development
- 21) People Association Development
- 22) Ankor Participatory Development Organization
- 23) Solidarity Association of Beer Promoters in Cambodia

3. 부문별 젠더분석

가. 정치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캄보디아는 2005년 젠더 권한 척도(GEM)에서 73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하위에 속한다. 정치영역은 남성적인 (Masculine)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성은 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공공영역에서의 업무 수행능력과 이성적 판단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힘들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한다. 또한 여성이 정치영역에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역할과 의무를 동시에 감당해 내야하기 때문에, 일-가족 양립의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실제로 이를 반영한 듯 캄보디아의 여성 정치인은 독신인 경우가 많다(CDRI, 2010).

〈표 Ⅱ-16〉 의사결정기관에서의 양성불평등

의사결정기관/원	순위/백분율
GDI(젠더 개발지수)	99
GEM (젠더권한척도)	73
여성보유 국회 의석 수	9.8%
여성보유 상원의원 의석수	13.1%
여성 입법자, 정부고위층, 관리자	14%
여성 전문가와 기술자	33%
여성 지역의회 의원	8.9%

자료. MoWA 2004a

최근 중앙정부 수준에서 여성공직자의 비중을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캄보디아 사회에서는 정치 영역에서의 주체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뿌리 깊다는 것을 보여주듯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반면 여성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정부 내 임명직 고위 정치인에 대한 여성 비율은 매우 적은 것에 반해, 선출직 여성공직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표 II-17〉 캄보디아 여성의 정치참여

구분	여성의 정치참여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 여성 비율은 12% (2003)에서 22% (2008)로 증가 2015년 CMDG 목표는 30%, 현시점 투자 목표는 19.5%로, 현시점 투자 목표 기준으로 목표 달성 궤도에 올라 있는 것으로 평가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원의 여성 비율은 13% (2003)에서 14.8% (2007)로 증가 2015년 CMDG 목표는 30%, 현시점 투자 목표는 18.7%로, 현시점 투자 목표 기준으로 느린 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장관	여성 장관 비율은 6% (2003)에서 8% (2008)로 증가
차관	여성 차관 비율은 5% (2003)에서 14.6% (2008)로 증가
지방 지사	여성 지방 지사는 0명임
지방 부지사	여성 부지사 비율은 1% (2003)에서 16.5% (2009)로 증가
지방 의회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은 8%(2003)에서 14.6%(2009)로 증가

자료. MoP 2010

〈표 II-18〉 의회와 정부의 구성

총선시기	의회	정부
1993년	CPP(51)/FUN(58)/BLDP(10)/Moulinaka(1)	의회 내 모든 정당으로 구성
1998년	CPP(64)/FUN(43)/SRP(15)	CPP+FUN
2003년	CPP(73)/FUN(26)/SRP(24)	CPP+FUN
2008년	CPP(90)/FUN(2)/SRP(26)/NRP(2)/HRP(3)	CPP+FUN

자료. 조영희 2009

나. 여성 고용 및 경제활동

헌법과 여성고용

캄보디아 헌법은 남성과 여성간의 고용평등을 보장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차별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한 가치보장을 위해 남녀 간의 동등한 보수에 대한 Convention No.100을 조약한 바 있다(NGO CEDAW Committee, 2005). 또한 1997년 노동법에 의해 고용평등을 보장하

고 있다. 그러나 법조항의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여성을 남편에 대해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여성차별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나아가 여성 이주 노동자의 불공정한 대우, 착취, 학대 및 인신매매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제적 환경과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MoWA, 2008a.)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과 여성경제참여

국가의 핵심발전 전략인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경제분야에 있어서 여성지위 발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심지어 여성부의 Neary Rattanak II에서도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여성인력 역량강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실직상태의 빈곤층, 장애, 젊은 여성의 경제적인 능력 취득을 통해 빈곤층 감소를 목표할 것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여성 미취업인구 중 대다수에 속한 소수민족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법과 여성

현 노동법은 농장 종사자들에 대한 성별을 남성의 시각으로 법문을 서술하고 있으며²⁴⁾, 여성에 대한 몇 가지 차별조항을 가지고 있다(NGO CEDAW Committee, 2005). 전체인구 중 50.2%가 농업종사자이고 그중 여성 농업인구는 51.3%로 남성 48.7% 보다 많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여성은 농사, 수렵, 임업분야에서 75%이상으로 남자의 69%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NIS/MoP, 2004)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의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다. 부당한 해고와 차별에 대해 여성들의 법적인 대응을 허락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은 없는 상황이다. 캄보디아 공무원에 위한 고동법령²⁵⁾은 여성을 남편에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24) 농업종사자에 대한 조항 100은 농장종사자들이 ‘그들의 아내와 의존적인 자녀들’을 위한 쌀 배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거 문제를 다룬 조항 207은 노동자는 ‘아내와 적법한 자녀, 또는 비적법한 자녀 이외의 어떤 이와도 주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5) The Law on Co-Statute for Civil Servants of the Kingdom of Cambodia

성별 고용 현황

남성은 법률가, 고위 공직자,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군인 등 상위 직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여성은 판매원, 사무원, 의류 산업 종사자 등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캄보디아 여성의 노동 참여는 71%로 높은 편이며, 전체 노동자의 60%가 농업, 어업, 임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농업/어업/임업에서의 여성종사율은 62%로 남성의 58%보다 상위한다.

경제분야에서의 여성의 의사 결정권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은 의사결정의 위치에 있지 못하다. 공공행정 분야의 84%, 교통과 건설 분야의 91%, 금융분야의 96%에서 남성이 의사결정자의 위치에 포진되어있고, 캄보디아에서 여성종사산업인 의류 산업 분야에서도 공장 매니저 및 직원조합의 장 등 의사결정권이 있는 위치는 대부분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MoWA, 2008a).

경제분야에서의 성역할과 임금

캄보디아 여성 중 15세 이상 연령대의 83%가, 15-19세 연령대의 68%가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 노동인력은 전체 노동력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성인력의 53%는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고용되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 가업에 종사하고 있다. 임금 노동 시장에서 약 20%만이 임금 노동 고용자로 되어있지만, 성별분리통계를 통해 보면 남성 노동자가 23%, 여성 노동자가 17%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임금 노동자의 1/3이 의류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서비스업종 및 공공행정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임금 노동분야 중에서 공공행정분야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7%이다(MoWA, 2008a, 23-60). 참고로 아동 노동인력의 대부분은 15-17세 연령대의 여아이며, 대부분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저임금을 주는 단순노동분야에서의 여성의 불균형한 높은 고용분포, 여

성의 고용기회에 대한 불평등은 여성 고용 분야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교육을 받지 못한 15-29세 노동인구 중에서도 남성의 급여가 여성보다 7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인력 중 단지 12%만이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고용상태에 있으며, 그 중 26%는 의류산업 종사자이다. 현재 여성들에게 동등한 임금, 고용확보, 고용수당을 보장해주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은 없는 상태이다(JICA, 2007). 지방과 도시간의 보수 격차는 국내이주 또는 해외이주 취업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MoWA, 2008a, 23-60).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저해 요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우선 인식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아에 대한 교육은 남아의 교육만큼이나 중요시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한 조사에 의하면 심지어 여성응답자의 약 45%가 여아보다는 남아를 교육시키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06). 두 번째로 여성의 일가족 양립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성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며, 동시에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도 함께 지니게 된다. 실제로 여성은 가사노동과 임신, 출산 뿐 만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위한 빨감, 식수와 음식을 책임진다. 그러나 자원의 고갈로,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한 대체자원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Sopheap, 2007).

일부 남성의 경우 가사와 양육을 위해 아내의 경제활동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로 여성의 제한된 교육기회 및 높은 문맹률을 들 수 있는데, 여성 노동자의 약 70% 정도가 초등교육 이상의 교육기관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여성부 통계에 의하면 캄보디아 남성인구의 약 1.2%와 여성인구의 약 0.4%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경제활동을 위한 이동이 어려운 점과 문화적으로 '남성의 일'이 더 중시되는 환경,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MoWA, 2008a, 23-60).

캄보디아의 의류산업과 여성

캄보디아 경제에 주요한 기여를 하는 산업은 의류와 건설분야이며, 의류 생산 분야는 여성노동자가, 건설분야는 남성노동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건설 노동자의 임금은 의류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48%가 높다(ADB and CRD, 2004).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한 것으로, 이들 중 대다수가 지방 및 시골지역에서의 낮은 가뭄과 홍수로 인해 쌀농사에 타격을 입어 생계가 막막해진 대가족 출신들이다. 그 중 50% 이상은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이며, 25세 이하의 연령분포를 나타낸다(ADB and CRD, 2004)..

의류산업 종사자의 보건관련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많은 고용인들이 적절한 보호구 착용을 하지 못한 채, 옷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그대로 흡입하고 있으며,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식품을 매개로 감염되는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여성 노동자들의 질병치료 및 건강을 위한 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본 생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양하는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다. 이들 의류산업 종사자의 평균 월급여는 근무외수당까지 포함하여 미화 약 \$50- \$75 달러 수준이며, 이들의 한 달 기본 생활비는 \$20~\$40가 소요된다. 따라서 개인차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한 달 기준 가족 송금액은 약 \$10~\$30정도이다(ADB and CRD, 2004).

지금까지 의류, 신발 등의 수출은 캄보디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동력이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경제구조가 다양한 산업분포를 보이지 못하고 봉제산업에 대한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은 향후 세계경제위기 등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을 포함한 인적역량강화 및 산업구조의 개혁을 통해 현재의 취약성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이주노동과 여성

경제활동 및 고용과 연관 지어 캄보디아 여성들이 취약한 영역은 젊은

미혼 여성들의 노동을 위한 이주(migration)이다. 특히 본국에서 지속적인 생계유지 기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인신매매와 노동착취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Derks, 2006, 18).

캄보디아 여성들은 국내로는 프놈펜과 시엠 리압 등의 도시로, 국외로는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노동이주를 하고 있으며, 노동이주여성의 숫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이주 여성의 약 50%, 남성의 약 30%가 가족 부양을 위해 이주노동을 선택하며, 약 10% 정도가 결혼이주를 하고 있다(UNESCAP, 2006, 6-21).

노동부(MoLVT)의 통계에 따르면 9,154명의 캄보디아인이 노동의 목적으로 노동부에 등록 후, 말레이시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를 하는데 (표4-6), 이 중 5,309명(58%)이 여성이다. 대 말레이시아 이주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주로 가사 도우미로 종사하고 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는 대부분이 남성인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하는 이주 노동자는 여성비율이 높다(Lee, 2006).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은 말레이시아인데 캄보디아 정부는 1997년에 말레이시아와 노동 수출 협약을 맺고 '캄보디아노동공급(Cambodian Labour Supply)'과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두 기관에게 캄보디아의 노동력을 말레이시아로 노동 이주를 시킬 수 있는 허가권을 부여하였다. 2006년 기준 11개의 사설 모집 기관이 등록되었고, 이 기관들은 이주 노동자에게 언어, 문화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로서의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IOM, 2006, 36-37).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는 대다수가 여성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공장, 가게 보조, 대규모 플랜테이션 및 건설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들 여성노동자들의 연령은 17-30세이며,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고, 영어소통능력이 부족하여 본인의 의사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들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여행 서

류의 몰수, 임금 체불, 이동 제한, 보건 서비스 제한, 성희롱 등이 있으며, 특히 고용주에게 의식주의 전부를 의존하고 이동의 제한을 받는 여성 가사도우미의 경우 기타 공장 및 가게 노동자에 비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ESCAP, 2006, 3-4).

〈표 II-19〉 국가별 이주 노동자

(단위: 명)

연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남성	여성	가사도우미	전체	남성	여성	가사도우미
2003	573	73	500	500	756	638	118	-
2004	809	105	704	582	674	516	155	-
2005	1776	467	1309	1008	468	432	36	34
2006	895	267	687	497	566	508	58	-

자료. Lee 2006

〈표 II-20〉 캄보디아 이주자 송금액

(단위: 백만 US\$)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송금액	200	297	353	325	338
근로자 송금액	160	180	184	187	140
근로자 보상금	4	4	4	5	5
이주자 이전액	36	114	165	133	193

자료. World Bank 2011b

다. 여성 인권 및 여성폭력²⁶⁾

1)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사례는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20% 증가했다(Shelton, 2007,

26) 여성 인권 및 폭력부분에서 캄보디아 여성부를 제외한 정부 부처 자료의 경우 JICA (2007)에서 재인용함.

42). 인신매매와 성폭력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 또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가정폭력문제를 저지하기 위해 2005년 가정폭력 법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법 시행은 극도로 미약하다.

1990년대 초반이래, 인신매매 피해 여성이 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성적착취, 강제적인 가사노동과 공장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 평균 10만 명의 여성과 아동들이 캄보디아에서는 물론 다른 국가에서까지 성매매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인신매매의 방법을 통해 성매매산업에 유입되고 있다.

〈표 II-21〉 캄보디아 여성에 대한 폭력 현황 조사

연구	세부 내용 및 결과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04 (ADHOC,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HOC이 2004년에 접수받은 성폭력 사건은 326 건 연구 성폭력 사건의 39%는 피해자 나이가 18세 미만이고, 4%의 피해자가 5세 미만 아동임. 성폭력 가해자의 2/3가 피해자의 지인임.
Men Against violence toward Women Pilot Project Evaluation. (PADV,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폭력의 정의로 24%는 비육체적 폭력, 16%는 육체적 폭력, 16%는 언어폭력과 육체적 폭력을 포함하는 폭력을 선정. 성적 폭력을 언급한 사람은 없었음. 23%의 응답자가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며느리에게 이혼의 수치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라고 대답.
Cambodian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49세 여성의 23%가 폭력을 경험
The Situation of Women in Cambodia (LICADHO,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메르 루즈 시기를 겪은 36-50세 나이 그룹 여성들이 높은 가정 폭력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사회의 폭력성과 가정에서의 폭력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
Violence Against Women: A Baseline Survey (UNIFEM,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수의 남성들이 여성이 남편과 논쟁하려 들거나 순종하지 않고, 돈의 사용에 대해 질문할 경우 극한 폭력이 정당화된다고 응답. 응답자의 58%가 여성이 남편과 논쟁하려 들 경우, 때에 따라서 총을 쏘거나 산을 뿌리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응답.

자료. MoWA 2005

가정폭력, 여성 인신매매,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상황을 근절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의 집행, 공교육, 법 집행자에 대한 의식 교육, 피해자에게 법-의료-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총체적인 개선과 관심이 요구된다.

2) 가정폭력

캄보디아 기혼여성의 약 1/4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 또한 캄보디아의 여성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상원은, 가정 내 폭력 금지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²⁷⁾, 국왕은 법으로서 승인²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여성보호에 중대한 기본적 인권보호법을 13년에 걸쳐 통과시켰으며, 정작 아직 캄보디아 내에서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LICADHO, 2006). 여성부의 5개년 계획 Neary Rattanack II도 가정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 제정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표 II-22〉 가정 내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른 관련 법

United Nations Transnational Authority in Cambodia
UNTAC(유엔 캄보디아 과도정부) 통치 당시 적용한 사법부, 형사법, 소송절차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강간, 성추행, 성폭력을 범죄로 다루고 있음.
The Law on Aggravating Circumstance of the Felonies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중죄에 대한 법으로 강간을 범죄로 분류 함.

자료. JICA 2007

가정 내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통해 보호를 받는 경우는 매우 적다. 오히려 여성들의 법적인 대응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사법재판제도에 대한 불신과 가해

27) 각각 2005년 9월 16일과 9월 29일.

28) 2005년 10월 24일, King Sihamoni

자에게 득이 되도록 하는 판사의 임의식 형사법 해석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과, 강간이나 성폭력의 경우 신고에 필요한 진단서를 받기 위한 고가의 병원검진비용은 여성폭력피해자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처럼 심각한 가정폭력의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여성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을 만들고, 특히 가정폭력의 문제를 캄보디아 MDGs (Cambodia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포함하여 해결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를 이행하는 주체들에 대한 교육, 즉 경찰, 법률가, 판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가정 내 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교육하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

가정폭력은 남녀 간의 성역할, 사회적 관계, 폭력에 대한 인식과 가치에 대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발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공여 기관, 정부 기관, NOG등)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괄목할 만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5년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3개 주에 거주하는 3,000명의 응답자에게 여성폭력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었다. 응답자 중 64%는 아내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한 남편을 알고 있으며, 22.5%는 실제 본인이 남편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거의 23%에 달하는 15-49세의 기혼여성들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GTZ, 2005, 34; JICA 2007).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젊은이들 중 74%는 지난 몇 달 동안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MoEYS, 2004, 15). ADHOC (2006)의 연구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 수 있는 몽둥이, 뿔죽한 도구, 도끼, 총 등등을 사용함으로써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고 잔혹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폭력적인 남편, 정부, 또는 현재의 아내, 또는 과거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영원히 고통 받기를... 그들의 얼굴이 괴물처럼 망가져서 아무도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기”를 원하며, 어떤 여성 폭

력 피해자는 그들에게 산성물질을 부어 공격한 사례도 있었다. (LICADHO, 2004:14).

가정폭력과 젠더

가정폭력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폭력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상당히 복잡한 이슈²⁹⁾들과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고, 방치할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되게 된다. 가정폭력의 높은 발생률은 캄보디아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hbab Srey 라는 행동규범에서 기인된 여성의 행동규범은 언제나 남편을 위해 봉사하고 복종해야하며, 피해를 입었더라도 함구하는 것을 미덕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은 가정폭력 발생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버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형성하게 된다. 캄보디아 여성들은 가정 내 폭력을 신고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다(LICADHO, 2006).

가정폭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 즉시성 및 실효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관련법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를 보호하고 가정 내 폭력을 예방하는 조항으로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가정사 문제에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 실효성이 부족하며, 정책을 포함하여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3) 인신매매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는 캄보디아 내에서 불법이다. 캄보디아 헌법 (Articles 31, 45, 46 & 48)은 유괴, 인신매매, 인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캄

29) 급격한 사회변화와 성장, 알코올 복용, 가난, 도박, 가정불화, 교육 부족, 폭력에 대한 장기간 노출 (예를 들면 내전 또는 부모의 폭력내력) 등이 이러한 요소에 포함된다. (MoWA, 2005; DCA-Cambodia, 2006, 11; CCC-ADI, 2005, 24-31; JICA 2007)

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문제에 있어 국제 NGO, 지역 NGO³⁰⁾ 그리고 각 부처³¹⁾와 함께 연계노력을 펼치고 있다. 캄보디아 국가여성위원회 CNCW는 모든 종류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줄이고 근절하려는 목표로, 캄보디아 여성의 지위, 역할, 사회적 복지 증진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았다.

2000년 3월, MoWA는 핀란드 정부와 함께 여성과 아동의 불법거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공적인력을 국경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개년 프로그램에 동의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또한 2004년 10월에 다른 5개 국가와 함께 인간 불법거래에 대항하는 COMMIT³²⁾ 양해각서에 조인했다. 이 양해각서는 인간 불법매매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신매매에 대해 특히 취약한 여성과 아동에 대해 특별히 인지하고 있다(JICA, 2007).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집행 및 이행의 실효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이민 범죄에 대한 소송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신매매 가해자를 처벌하는 입법이 불충분하고, 법 집행의 부족과 면죄의 빈도수가 높으며, 부족한 송환, 재정착, 갱생을 위한 조치 등 실효성 확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LICADHO, 2006, 16-17).

여성대상 인신매매 현황

1990년도 초반 이래 캄보디아 여성의 인신매매는 증가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 여성은 성적착취, 강제적 가사노동 및 공장노동에 이용되고 있다(UNIFEM, 2004a, 117). 그 결과 2005년, 캄보디아는 여성 인신매매가 가장 성행하는 나라 중의 하나라는 국제적인 인식을 얻게 되었다. 국제 여성인신매매와, 특히 이웃하고 있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약 100,000명의 여성과 아동들이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되고 있다(UNIFEM, 2004a, 116).

30) ECPAT, ILO-IPEC, AFESIP, CWCC 등

31) 여성부 (Ministry of Women's Affairs: MoWA), 노동 및 직업 훈련 부(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MoLVT), 사회-재향군인-청소년 재활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Veterans, and Youth Rehabilitation: MoSVT),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MoT).

32) Coordinated Mekong Ministerial Initiative against Trafficking

시엠립의 앙코르 와트 주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0% 이상의 아동이 관광객들로부터 성적인 접근을 받았었다고 대답하였다(Oung, 2002). 캄보디아가 성관광의 목적지로서 인식됨에 따라, 인신매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신매매되는 여성 및 여아의 연령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Asia Regional Cooperation to Prevent People Trafficking, 2003).

인신매매와 성착취

캄보디아 여성부의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인신매매의 피해 원천지, 중간 경유지, 목적지의 3중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캄보디아 여성들은 주로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로 성적 착취와 공장 노동 및 가사 도우미를 위한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으며, 아동들은 성적 착취와 구걸, 거리 물건 판매 등을 위한 노동 착취의 목적으로 주로 베트남과 태국으로 팔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유입되기도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주요 종착지는 프놈펜(Phnom Penh), 시엠립(Siem Reap), 그리고 시하누빌(Sihanoukville)등이 있다.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는 인신매매되기 전에 가사 노동도우미로 일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직업알선자를 따라갔으나 강제적으로 성적 착취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³³⁾

국경을 초월한 인신매매와 여성

캄보디아는 또한 베트남, 중국 등에서 태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 유입되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다. 그중 가장 많은 피해자는 베트남 여성과 여아로 이들은 캄보디아 성산업 종사자 중 2번째로 높은 구성을 보이고 있다. 2004-2006년의 기간 동

33) OAFESIP Cambodia의 홈페이지 참조.

http://www.afesip.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7:12-december-2009-is-observed-as-national-anti-human-trafficking-day-in-cambodia-&catid=44:activities&Itemid=80 (2011.10.31. 접속).

안 캄보디아로 재입국한 인신매매 피해자는 태국에서 589명, 베트남에서 231명, 중국에서 59명, 라오스에서 2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캄보디아 여성부가 태국에 머물고 있는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만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3은 가족 또는 공동체 구성원 등 아는 사람에 의해서 납치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인신매매의 심각성에 비해,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신매매에 대한 정확한 공식적인 최신 통계자료는 없다. 그러나 근래의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불법거래 되고 있는 여성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LICADHO, 2006, 7). 또한 다른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태국에서 추방당한 캄보디아인들은 147,000 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인신매매로 인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MoWA, 2004b).

인신매매에 취약한 여성과 문화적 요인

UNIFEM(UNWomen)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인신매매는 가난, 부정부패, 미약한 법집행, 그리고 경제적, 법적,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남녀 간 불평등 상황에서 촉진된 상황으로 해석 된다. 또한 정당하고 성취감을 주는 고용기회에 대한 부족 (특히 지방에서), 가정폭력과 학대와 같은 개개인의 가정환경적 배경, 숙련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 증대방안의 부족과 안정된 직장을 기대 할 수 있는 교육 기회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기도 한다(ARCPPT, 2003, 5-6).

4) 성폭력

캄보디아 형사법 (Article 33)은 성폭행을 범죄로 성추행을 경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규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UNIFEM, 2004a, 115).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지지하는 다른 정책들은 법령으로서 지정되었으나, 2007년을 기준으로 아

직 성폭행에 대한 처벌과 예방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ICA, 2007).

성폭력에 대한 법적 즉시성 및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

성폭행에 대한 효력 있는 대응을 방해하는 요소(LICADHO, 2006, 8)로는 관련 처벌법이 미흡한 것과 법집행자(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들에 의한 법의 잘못된 해석, 면죄, 부정부패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과 법집행자와 가해자 사이의 부정거래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있다(ADHOC, 2006, 25).

성폭행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법정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유죄가 판명이 쉽지 않아, 가해자가 체포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WA, 2004a, 115). 또한 성폭행은 여성과 성에 대한 캄보디아의 사회적 문화적 관점으로 인해, 가장 잘 인정되지 못하는 범죄이기도 한다. 윤간(gangrape)은 특히 우려되고 있는 범죄인데, 남자 대학생들 사이에서 주로 성매매업 종사자, 의류산업 종사자, 신식 여성(srey kalip: modern women)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윤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MoWA, 2004a, 115; LICADHO, 2004, 11).

캄보디아의 연간 성폭행 피해 여성의 숫자에 대한 정확한 국가적 통계는 없지만 NGO에 보고되는 강간, 윤간, 아동과 어린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례들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폭력피해여성을 지원하는 NGO에 접수되는 사건 수만 해도 각 기관 당 수백에서 수천 개에 달한다.³⁴⁾ 대부분의 캄보디아 가정에서는 수치스러움과 불명예 때문에 성폭행과 관련된 법적 공방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신 피해보상지불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종종 있고, 성폭행 사건에 대응하여 피해 상황이 공개되는 것 보다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WA, 2004a, 115; LICADHO, 2006, 12; ADHOC, 2006, 23).

3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년 3월 캄보디아 출장 현지 인터뷰.

〈표 II-23〉 성폭력에 대한 법적대응 방해 요인 및 CEDAW 위원회의 조치

요인	재판제도에 대한 불신
	기소에 드는 비용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문화적 근거 없는 믿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비공식적인 보상으로 문제종결
조치	가정 내 폭력에 대한 법령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접근을 실행하는데 최우선을 둘 것.
	가정 내 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대중매체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사회적 인식을 높일 것
	특히 가정 내 폭력과 관련된 새로운 법에 대해, 사법부, 법률집행 공직자, 법률전문가, 사회복지가 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여성들의 폭력 사례 신고를 고무하기 위해, 여성 판사, 여성 법률 집행 공직자들을 늘릴 것
	갱생을 위한 주거지, 법적, 의료적, 정신적 지원을 포함하는,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자료 UNIFEM 2004a; LICADHO 2006; ADHOC 2006; CEDAW 2006; JICA 2007

라. 여성과 농업

캄보디아의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이들 대부분은 2헥타르 미만의 영세농이다. 농촌지역 여성의 경우, 농업생산량의 80%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여성농부 비율은 전체 농업 인구 중 65% 이상이다.

농업분야에서의 여성차별

캄보디아 여성 농부의 절반은 문맹이거나 초등교육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지원, 금융서비스 등 관련 정보 및 정부시책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0%에 불과하며, 여성들이 신용대출조합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설령 여성농부가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남성들 보다 훨씬 작은 금액의 신용

대출만 허락되는 경우가 많다(Sopheap, 2007). 또한 여성은 농업 종사율이 높은 반면, 농업분야의 정책 및 국가적 의사결정권에 있어서도 배제되고 있으며, 그 예로 여성은 농민 수자원 사용 위원회(Farmer Water User Committees)의 60%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권 자리에서 배제되어 있다(Deutsch, 2006).

〈표 II-24〉 여성 노동자에 대한 통계

항목	비율
가족 일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지방 여성 비율	4.6%
농업에 종사하는 지방 여성 비율	89%
생계를 위한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여성 비율	56%
시장지향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여성 비율	54%
여성가구주 가구 중 토지미소유 비율	21%
토지 미소유 전쟁 과부 비율	50%
2001년 이후, 여성과 남성 공동 명의로 등록된 토지 비율	78%
여성의 소득에서 지출된 가정 소비 비율	50% 이상
'fish processing' 작업 종사자 중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비율	63%
마이크로금융 대출자 중 여성 비율	70-85%

자료. MoWA 2008b

1) 토지 소유와 여성

토지 사유화와 여성

캄보디아는 식민시대와 분쟁을 거치면서 1970년대에는 토지 대장의 조직적 파괴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토지에 대한 재분배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으로 제한되었고, 1989년에 개인의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가 부활함에 따라, 1992년부터 토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인증을 통한 토지권'과 '관습적 토지권'이 공존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공식 시스템을 통한 소유증명문서 발행은 많은

비공식적 비용이 소요되고, 토지 거래와 관련된 규칙의 모호함 그리고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농부의 토지권과 토지 소유권 확보 과정(land tilting process)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여성은 자신의 권리보호 및 토지권 확보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25〉 캄보디아 여성부 토지와 여성농업인에 대한 조사

조사항목	내용
토지권	토지 자유화의 불명확한 법률 조치로 인해 발생한 혼란은 여성의 토지권,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토지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토지배분	농업용 토지의 배분은 가족의 규모에 따라 이루어짐. 여성가구주 가구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 크기의 토지를 배분 받지 못함 을 끼친 것으로 조사됨. 이는 식량 확보를 위한 채무로 이어지고, 결국 토지를 팔아서 토지 미소유자가 되는 악순환 발생.
과부의 토지소유권	'전쟁 과부'는 그 외의 인구에 비해, 훨씬 적은 비율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남. 토지를 소유한 전쟁 과부 인구 중 84%가 0.5 헥타르 미만의 토지를 소유. 전쟁 과부의 절반 가량은 토지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토지 미소유 가정	토지 미소유 가정은 일반 가정의 1/8이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1/5로 증가. 여성가구주 가구는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빈곤으로 인해 토지를 매도했을 확률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MoWA 2008a

〈표 II-26〉 현행 토지법과 여성이 겪는 문제

여성이 남편과 오랫동안 헤어져 산 경우에도, 여성이 부모로부터 상속한 토지는 여성의 동의 및 인지 없이 남편과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
이혼 여성, 별거 여성, 버려진 여성들의 경우, 토지가 일관된 방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못함. 어떤 토지는 전 남편과 공동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어떤 토지는 부인 혼자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등, 토지 등록이 혼잡함.
캄보디아의 현 상속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함. 이로 인해 배우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를 취약한 상태로 만들 가능성이 높음.
여성이 남편 소유의 토지로 옮겨갈 경우, 친정 부모의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는 없어지는 경우가 많음.

자료. Thiel, 2010

2001년 토지법의 통과 이후에, 캄보디아 정부는 다수의 실행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 중의 하나가, 토지 소유권 확보와 토지 등록 시스템의 설립을 추진하는 토지관리운영프로그램(LMAP)이다³⁵⁾. LMAP의 핵심 요소는 토지 등록으로서, 2002년과 2007년 사이 11개 지역에서 체계적인 토지 등록이 실시되었다(Mehrak, 2008, 1).

성인지적 토지 정책과 공동 소유권(Joint Ownership)

‘캄보디아 정부의 토지 정책에 관한 전략 체계(RGC Strategy Framework on Land Policy)’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토지 정책이 모든 캄보디아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필요에 대해 인지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성인지성의 주요한 원칙은, 남편과 아내 간의 공동 소유권 형태의 토지권 확보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Mehrak, 2008, 2).

공동 소유권 제도 시행 이후, 1백만 건 이상의 토지 소유권이 발행되었으며, 20%의 소유권이 아내 명의로, 5%가 남성 명의, 그리고 70%가 공동 소유권으로 발행되었다(Mehrak, 2008, 14).

토지 공동 소유는 토지를 결혼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경제자립 방법이 없는 여성일 경우 별거, 이혼, 남편의 다중 결혼 관계, 사별 등의 상황에서 토지는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된다. 토지는 여성에게 자립의 토대가 되며, 여성 가구주로서의 가족형성/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토지 소유권의 공식화는 토지에 대한 법적 권한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판결을 낮추고, 여성의 소유권 박탈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이다(Mehrak, 2008, 14).

35) Land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Program, LMAP.

〈표 II-27〉 토지 공동 소유권(Joint Ownership)의 문제점

문제점	내용
토지판결 가이드라인	토지 판결 가이드라인(Land Adjudication Guideline)'은 남편과 아내가 오래 떨어져 산 경우, 한 쪽 배우자가 어떻게 토지 등록을 할 수 있는지의 절차 등이 담겨 있음. 그러나 지방정부의 관련 담당자들은 대부분 '토지 판결 가이드라인'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절차와 규칙을 무시하고 토지가 무조건 공동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사례 발생. -> 이혼 여성, 별거 여성, 버려진 여성의 경우, 토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음.
토지제도 변경내용	몇몇 여성들의 경우 기존의 비공식적인 토지 시스템이 오히려 더 나았다고 언급함. 이혼과 재혼 그리고 혼인 당시 생긴 자녀들의 상속권 등 복잡한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판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서, 오히려 토지 공동 소유권에 의해 전 남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함.

자료. Mehrak 2008

2) 농촌과 여성

농촌지도사업과 여성

여성은 정부의 '농촌지도사업(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농부 인구의 0.7%만이 농촌지도사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MoWA, 2008a, 58-60). 이는 캄보디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에 기인한 것으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남성은 기계와 기술의 사용 및 큰 육체적 역량이 필요한 직무, 여성은 종자 준비 및 관리, 잡초 제거, 저기술 해충 관리에 관련된 직무로 역할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농촌 연구 및 지도 활동은 여성 농부의 활동보다는 주로 남성 농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오고 있다.

여성의 경우, 농촌지도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려면 평균 9km를 거리를 이동하여 지역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여성들은 이동 중 안전의 문제 및 가사노동에 대한 의무를 이유로 오랜 기간 집을 비우고 떠나있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지도요원들 중 여성의 비율은 5~10%에 불과하다(MoWA, 2008a, 58-60).

여성농업인을 위한 법적 제도마련의 중요성과 함께,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 여성맞춤 서비스 있어야하고, 여성의 식자율을 고려할 때 남성보다 이동성이 현저히 낮은 여성의 상황을 고려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 여성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성의 농업분야에서의 활동과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농업수산물부 약 8,000명의 공무원 중에서 약 20%정도가 여성이며, 특히 결정 권한이 있는 중요 요직에 진출한 여성은 극소수이다(MoWA, 2008a, 64). 또한 농촌교육분야의 경우, 여성 직원의 비율은 5-10% 밖에 되지 않는다. 2002-2003년 왕립농업대학(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17%였다(JICA, 2007).

마. 여성과 교육

교육관련 법과 정책

캄보디아 정부의 사각정책 (Rectangular Strategy)은 ‘만인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05년까지 초등-중등교육에의 성 불균형을 해소하고, 2015년까지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여아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 교육의 질적 향상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2년 까지, 교육청소년체육부는 교육전략계획 (ESP), 교육지원프로그램(ESP)라는 교육정책과 전략 계획을 구축하였다.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12개의 우선행동지침 (PAPs)가 있지만, 남녀 학생 모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라는 목표 하에 실제로 많은 불평등을 겪고 있는 여아에 대한 교육기회가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JICA, 2007).

교육분야 내에서의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청소년체육부는 NGO와 국제기구들과 함께 지역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소득상승과 기초 기술 확립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행평가나 현 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현존하지 않는다(JICA, 2007).

여성교육의 중요성

캄보디아 GDP에서 교육에 지출되는 비율은 2009년 기준 약 2.1%로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153위로 그 지출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CIA, 2011). 캄보디아의 양성 불평등 현상은 교육 분야에서도 발견되는데, 특히 남아와 여아의 초등교육 진입율 대비 상급학년/교육기관으로의 진입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여학생의 직업학교 진학 비율도 남자의 절반 이하이며, 여아가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는 제한적이어서 직업교육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양장과 재봉 같은 분야로 집중된다. 또한 초등, 중등교육 교과서에는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과 남녀 차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차갑 쓰레이(Chhap Srey)의 내용이 교육되고 있다.

〈표 II-28〉 지역별 남녀 학교 등록률 (2003년, %)

교육수준	남성			여성		
	도시	지방	전체	도시	지방	전체
초등교육	92.7	93.3	93	89.7	90.1	89.7
2차 (중등) 교육	49.9	29.7	32.1	50.3	27.4	30.4
2차 (고등) 교육	26.7	9.3	12.7	26.1	6.3	9

자료. JICA 2007

〈표 II-29〉 교육 분야 양성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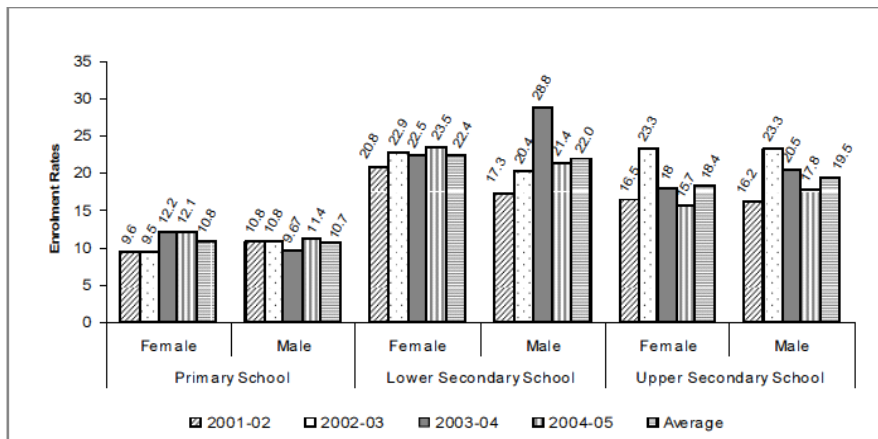
	성인 식자율 남성대비 여성비율	초등학교 입학 남성대비 여성비율	중등학교 입학 남성대비 여성비율	직업학교 입학 남성대비 여성비율
연도	2003	2002-03	2002-03	2002-03
비율(%)	76	95	64	40

자료. Sopheap 2007

여성의 기초교육 진입

2010년 캄보디아 MDG 보고서에 의하면, 초등교육의 실현 및 문맹률 퇴

치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으나, 초등 교육에서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 진입하는 비율에서는 여전히 애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 및 훈련된 인력을 흡수 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의 부족 현상은 교육지속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특히 빈곤과 교육의 선택지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교육을 지속시킬만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하며, 또한 부정부패로 인해 무상교육이 실현되지 못하고, 비공식적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병폐도 함께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MoP,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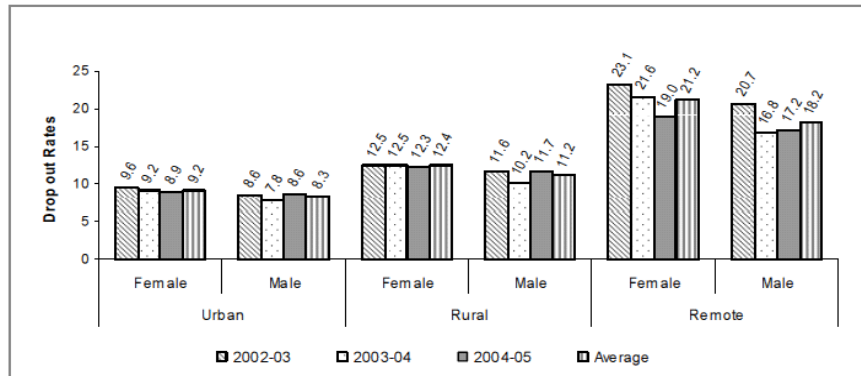


자료: JICA 2007

[그림 II-5] 성별과 교육 수준에 따른 중퇴율 (2001년-2005년)

여아 교육 단절의 원인

여아의 상급학교 진학 및 교육지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빈곤, 성 고정관념, 초혼, 공식/비공식적 학비, 잦은 이주가 가장 일반적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남아의 교육을 위해 여아의 교육기회가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캄보디아의 문화적 상황에서, 여아 스스로도 중퇴 및 교육기회 박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JICA 2007

[그림 II-6] 교육 과정별, 성별, 지역별, 연도별 중퇴율

여성교사 수의 중요성

여성 교사의 수는 여학생들에게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다. 여성 교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5-06년 여성교사는 7만8606명의 전체 교사 중 40.2%를 차지하였고, 2009-2010년에는 초등학교 여성교사의 수가 약 46%로 증가하였다(MoP, 2010). 그러나 중등/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여성교사 비율은 30% 정도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JICA, 2007).

여성 식자율의 파급효과

2010년 기준 식자율은 15-24세 여성그룹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25-44세 연령대의 여성 식자율은 개선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식자율은 여성의 고용 및 정책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 수단이며, 자녀의 건강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성 식자율 개선을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MoP, 2010).

〈표 Ⅱ-30〉 연도별 지역별 성별 15세 이상 식자율

교육과정	1998		총	2004		총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여아	70.8	54.3	57.0	76.9	61.6	64.0
남아	88.3	77.6	79.5	91.7	83.3	84.7
총	79.1	64.9	67.3	83.8	71.6	73.6

JICA 2007

여성과 교육분야에서의 사각지대: 농촌, 소수민족, 장애인 여성

농촌지역의 여아 특히 소수민족이나 장애를 가진 여아들 그룹은 교육 사각지대로서 제한적인 교육의 기회가 부여된다. 여아 교육의 방해 요소는 여성은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성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또한 농촌 여아들에게는 중등교육시설의 부족과, 통학거리, 교통비와 등하교길의 안전 문제도 장애로 작용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농촌여성, 소수민족과 장애여성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과 특히 학교 입학률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기위해 CEDAW, 북경행동강령 제 10항, MDG 2항과 3항에 근거한 여아의 보편적 초등교육을 목표로 임시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여아의 학업을 방해하는 조혼이나 강혼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할 것을 촉구하고, 여성의 교육과 직업의 다양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과, 교과 과정과 교과서에서의 성 고정관념을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CEDAW, 2006).

교육내용에서 성평등 실현의 중요성

성 고정관념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은 교육내용을 통해서 강화되기도 한다. 차밥 쓰레이에 대한 교육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교과 과정에서의 성 주류화 및 교과 과정 재정비를 통해 성 고정관념에 대한 제거를 단행하기 전에는 캄보디아

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교육과 직업훈련

캄보디아 교육 청소년 스포츠부에 따르면, 기술 교육이나 직업 훈련의 혜택을 받는 여성은 2006년 기준으로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여아의 높은 중퇴율을 막기 위해서는 빈곤지원대책과 여아를 위한 장학금의 증대, 극빈층 및 소외된 여아들이 교육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로 하다고 밝히고 있다.

비공식교육의 투자는 원조의 도움으로 1996년 이후 증가 하였으나, 이는 겨우 1999년 전체 교육 투자의 3%에 불과하였다. 개발과 여성 기관들은 여성의 훈련을 목표로 하고, 다수의 비정부단체가 취약 여성인 폭력피해여성, 여성 노숙자, 여성 노점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은 규모가 제한적이고 캄보디아의 국내법과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기술 훈련은 전통적인 기술 훈련, 바느질, 머리손질, 직물 짜집기 등 여성 노동의 성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훈련이며, 그마저 여성의 접근성이 쉽지 않다. 여성의 낮은 식자율과 낮은 교육기회 그리고 기술 훈련교육에의 제한적인 참여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되어야하는 주요한 문제이다(ILO, 2001; UNIFEM, 2004a).

바. 여성과 보건

1) 일반 보건 현황

모성사망률

캄보디아는 높은 산모사망률과 유아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의 영양결핍과 임산부와 갓 태어난 영아들의 높은 HIV/AIDS 확산 등 다양한 보건관련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정상 출산 10만 건 당 461건에 이르는 산모 사망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MoP, 2010), 영아 사망률 또한 정상출산 1000건 당 95건에 이른다.

캄보디아 MDG 목표 중 모성사망률은 2015년까지 100,000당 250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높은 모자사망률의 원인은 산파의 부족, 전통적 산파 및 적절한 기술 및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산파를 통한 출산, 안전하지 못한 낙태, 산모의 영양상태 (산모의 57%가 철분 부족 빈혈) 등이 있다(MoP, 2010). 그 외에도 여성과 산모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점과 열악한 보건시설, 빈곤층 여성의 의료서비스 접근의 취약성 등의 문제들도 포함된다.

보건관련 법과 여성

캄보디아 헌법은 빈곤국민의 보건의료권 및 의료서비스이용권을 보장하며 빈곤층 대상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낙태에 관한 법률’과 ‘HIV/AIDS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모성과 아동을 고려한 질병예방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ICA, 2007).

〈표 II-31〉 캄보디아 새천년 개발 목표 중 여성 관련 조항

2015년 달성 기한 여성 관련 캄보디아 새천년 개발 목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하루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2015년까지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2015년까지 누구나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피임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자료. MoP 2010

캄보디아 보건부는 캄보디아 MDG에서 제시되는 보건관련 목표는 캄보디아 실정상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세부 목표로 재설정하였다(MoH, 2002).

〈표 II-32〉 2003-2007 보건부문개선전략계획

2003-2007 보건부문개선전략계획 중 2007년 달성 세부 목표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을 45%에서 31%로 감소시킨다.
영아 사망 건수를 신생아 1,000명 당 95건에서 84건으로 감소시키고 5세 미만 유아 사망 건수를 신생아 1,000명 당 125건에서 111건으로 감소시킨다.
산모 사망 건수를 신생아 10만 명 당 437건에서 305건으로 감소시킨다.
15-49세 여성의 현대적인 피임 실천률을 19%에서 35%로 끌어 올린다.
5-49세 인구의 HIV 감염률을 2.8%에서 2.1%로 감소시킨다.
말라리아 발병률을 11%에서 8%로 감소시키고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을 10%에서 7%로 감소시킨다.

자료. MoH, 2002

보건의료 분야의 개선을 위해 니어리 라타나크 III은 다음의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표 II-33〉 니어리 라타나크 III의 보건관련 주요 목표 및 지표

주요 지표 및 목표				
지 표	실제		목표	
	년도	수치	년도	수치
임산부 사망률 비율 (출산 100,000건 당)	2005	472	2010	243
			2015	140
철결핍성 빈혈을 가진 임산부 비율	2005	57.1	2010	39
			2015	33
현대적 자녀터울 기술을 사용하는 기혼 여성 비율	2005	27	2010	44
			2015	60
임신 클리닉을 방문하는 15-49세 임산부의 HIV 감염 비율	2006	1.1	2010	2
			2015	1.5
스스로를 HIV 위험군으로 판단하는 여성의 콘돔 사용 비율	2000	1	2010	5
			2010	10
임신 클리닉을 다니는 여성이 HIV 테스트를 한 비율	2005	53.1	2010	80
말라리아(사망 비율)	2005	0.36	2010	0.2
			2015	0.1

자료. MoWA 2008b

보건예산

캄보디아의 보건부문 국가예산은 GDP의 10.9% 정도이며, 이는 1인당 연간 GDP 33달러에 해당하는 액수에 불과하다. 캄보디아 왕실은 ‘건강평등기금(Health Equity Fund)’을 마련하여 가난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면제 혜택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으며, 부정부패로 인한 비공식적 의료비를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대개 의료 전문가들의 낮은 급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한다.³⁶⁾

〈표 II-34〉 캄보디아 모성 건강 지표

지 표	1997-2005
캄보디아 피임 보급률 (contraceptive prevalence)	24%
캄보디아 출산 전 관리 커버율 (Antenatal Care Coverage)	38%
숙련된 보건 전문가의 도움에 의한 출산	32%

자료: Cambodian Women Health Organization³⁷⁾

〈표 II-35〉 캄보디아 보건에 나타난 양성불평등

지 표	비율
산모 사망률	437/100,000
영아 사망률	95/1000
인산부 HIV/AIDS 확산	9%
매매춘 종사 여성 HIV/AIDS 확산	28.8%
가정 내 폭력 경험	23%
임산부 영양 결핍	66%

자료: MoWA 2004a

36) JICA (2007)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보건의료분야 임금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인접국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보다 훨씬 낮은 형편이다.

37) Cambodia Women Health Organization의 “Maternal Mortality Statistics” 참조. <http://c-who.org/issues.htm>. (2011.10.30 접속).

〈표 II-36〉 캄보디아 MDG5 관련 개선사항

CMDG 목표 5. 모성 건강 증진	지표	기준 연도	수치 (%)	현재	수치 (%)	2015 목표
1.1. 모성사망률 감소	모성사망률 (출산 100,000건 당)	1997	437	2008	461	250
	총 출산률	1998	4	2008	3.1	3
	숙련된 보건 전문가가 참석한 출산	2000	32	2008	58	87

자료. MoP 2010

여성과 아동의 영양실조는 중대한 문제이다. 생후 6개월 이하 영아의 15%가 발육부진을 겪고 있으며, 3-5세 유아의 경우 그 수치가 53%에 달한다. 15-49세 여성의 21%는 저체중이며, 여성들에게 만연한 영양결핍은 영유아사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빈곤층 영유아의 식생활과 보건의료서비스이용결핍, 부적절한 건강습관도 영유아사망의 주된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WHO, 2007).

가족계획과 여성보건

CMDG의 가족계획 보급 목표는 2015년까지 60%이며, 2010년 기준 약 26%까지 달성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가족계획은 모자사망률을 30% 가량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MoP, 2010, 24-26). 캄보디아 정부는 2005년 CEDAW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캄보디아여성의 약 95%가 출산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나, 약 19%만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불법 낙태, 즉 가정집이나 무허가 진료소에서 행해지는 낙태는 캄보디아에서 산모사망의 주요 원인 중으로 지목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MoWA, 2004a).

교육, 보건, 여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여성일수록, 보건 서비스 및 출산과 연관된

전문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oWA, 2004a). 적어도 중등 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우 50%가 현대적이거나 전통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는데 반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여성들은 그 수치가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06; JICA 2007).

농어촌 여성과 보건

농어촌 여성들은 보건서비스 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진료소까지의 거리 및 무거운 재정부담은 여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2) HIV

2009년 기준 캄보디아의 HIV/AIDS 감염인구 수는 약 63,000으로, 이중 여성감염인 수는 35,000에 달한다(National AIDS Authority, 2010). 감염자 중 여성의 비율은 56%로, 이는 1997년의 38%에서 약 20%가량 증가한 수치이다(NCHADS Surveillance Unit, 2007). 20-24세의 여성은 같은 나이의 남성그룹보다 3배의 HIV/AIDS 감염률을 보이고 있고, 25-29세의 여성그룹은 전 연령층에 비해 HIV의 감염률(여성:남성 = 1.3%:0.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연령대의 남성그룹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UNIFEM, 2009). UNAIDS의 조사에 의하면, HIV 감염 예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수준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UNAIDS, 2011). 또한 한 명 이상의 성적 파트너를 가진 15-49세 응답자 중, 콘돔을 사용한 비율은 여성이 8.6%, 남성이 40.9%로 보고되고 있다(UNAIDS, 2011).

캄보디아에서 HIV/AIDS는 1991년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후 감염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인구의 2% 감염에까지 도달한 바 있다. 이후 HIV 감염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감염률이 인구의 0.5%로 감소하였다. 임신한 여성이 HIV 모자감염 방지를 위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32.3%에 달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성산업

(sex industry)을 HIV/AIDS 감염 전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성매매 업소를 대상으로 콘돔 사용을 홍보하는 ‘100% 콘돔 사용 프로그램’을 1998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UNAIDS, 2011).

〈표 Ⅱ-37〉 2009년 국가 HIV/AIDS 실태 보고

항목	내용
총 성인(15-49세)인구 중 HIV 감염률	0.5%
총 성인(15-49세) HIV 감염자	63,000
성인 여성 (15-49세) HIV 감염자	35,000
AIDS로 인한 사망	3,100
항 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HIV 감염자 비율	86%

자료. UNAIDS 2011

일반 인구의 HIV 감염은 감소하였지만, HIV감염 고위험군의 감염은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캄보디아의 HIV/AIDS 감염 고위험 그룹은 성매매 종사자, 마늘을 사용하는 마약 복용자 그리고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이다. 성매매 종사자의 감염률은 1999년 36.8%에서 2006년 14.7%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의 감염 비율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시엠립, 바탐방 등의 도시에서는 0.8%인데 비해 프놈펜에서는 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마늘 사용 마약 복용자의 감염률은 가장 높으며, 2007년 24.4%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고위험군의 감염률은 여성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들은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HIV를 감염시킬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의 HIV 검사실시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³⁸⁾ 캄보디아내의 HIV 감염 전파율은 한때 현격하게 역제가 되었던 적이 있으나, 캄보디아의 열악한 보건 시스템 및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은 지속적인 HIV/AIDS의 감염 대책 마련에 우려되는 점이다(USAID, 2010).

38) UNAIDS(2011) 에 따르면, 여성 성매매종사자의 68.1%,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의 58%, 마늘 사용 마약 복용자의 35.3%에 불과하였다.

〈표 II-38〉 CMDG 6 관련 개선사항

CMDG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지표	기준 연도	수치 (%)	현재	수치 (%)
1.1. HIV/AIDS 의 확산 감소	15-49세 성인의 HIV 감염 비율	1997	1.9	2008	0.7
	출산 전 클리닉을 방문하는 15-24세 임신부의 HIV 감염 비율	1998	2.1	2006	1.1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진행 HIV 감염자 비율	2002	3	2008	92

자료. MoP 2010

〈표 II-39〉 캄보디아사회경제조사 2003-2004

1.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작성한 비전문가용 건강 상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민의 약 10%가 건강이 '불량' 또는 '매우 불량' 한 상태에 있다.
2. 세대주 보고에 따르면 의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인구 중 약 4% 또는 538,000명이 장애를 지니고 있다. 노인층은 주로 시력, 청력, 거동에 불편을 겪는다.
3. 한 달 평균 인구의 18%가 질병이나 부상 또는 다른 건강 관련 증상을 겪으며 그 가운데 2/3가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4. 2세 이하 영아의 97%가 일정 기간 동안 모유를 먹지만 초유 수유를 받는 경우는 30%에 불과하며 28%는 출산일 다음날부터 수유를 받는다. 2세 이하 영아의 약 13%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다.
5. 14세 이상 캄보디아 남성의 40%가 매일 흡연을 하며 여성 흡연자의 비율은 4%이다. 흡연은 시골지역에서 널리 성행하지만 인구의 거의 90%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6. 캄보디아에서 HIV/AIDS에 대한 의식은 매우 높은 편이다. 14세 이상 인구 중 90%가 에이즈에 대해 들은 적이 있으며 약 88%는 에이즈 예방법 중 하나로 콘돔 사용을 언급한다.
7. 캄보디아 가구의 약 90%가 모기장을 사용하지만 겨우 4%만이 살충제 함유 모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 JICA 2007³⁹⁾

39) 2003년 11월 - 2005년 1월의 캄보디아사회경제조사(CSES) 2003-2004, 15개월 데이터에서 발췌 (JICA 2007 재인용).

사. 여성과 사회 인프라, 환경 그리고 수자원 접근성

1) 사회 간접 인프라와 여성

캄보디아는 내전 시 인프라 파괴와 이후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 국가들에 비해 사회발전을 위한 기본 시설 및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이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도로의 20%만이 아스팔트 포장 도로이고, 50%의 도로는 돌, 자갈, 흙으로 이루어진 비포장 도로이며, 나머지 30%는 거의 흔적만 남아있어 이로 인한 캄보디아 전역에 걸친 원활한 운송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ERIA, 2007).

캄보디아 정부는 높은 전기 사용료와 지역별 제한적 전력 접근성을 지역 개발과 민간 부문 개발의 장애로 보고 있다. 캄보디아의 전력 생산 비용은 주변국에 비해 3배에서 5배 가량 비싼 상황이다. 캄보디아 지방 가구의 8.6%만이 전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등유나 배터리를 사용한 조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RIA, 2007)..

전화 이용 비율은 4%, 인터넷 접근성은 0.2%에 불과하다. 캄보디아의 식량 자족과 식량 안보 획득에 핵심적인 관개 시설은 캄보디아 지방 가구의 16%만이 확보하고 있고(ERIA, 2007), 나머지는 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캄보디아의 보건의료체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열악한 편에 속하며, 보건의료 서비스접근성과 비용면에서 여성 및 빈곤층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인구 6,808명 당 1명의 의사와 598명당 1명의 보건 관련 직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ERIA, 2007).

부족한 사회 인프라는 여성의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고, 교육기회의 접근성을 낮게 하며, 자아실현 및 지위향상에 많은 제약을 가져다준다. 사회 인프라의 개선은 여성역량강화 및 차별철폐에 중요한 직·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2) 환경과 여성

캄보디아는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개발의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되는 국가이다. 캄보디아 인구의 75% 가량이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경제활동 및 식량 생산에 있어서 토지 의존도가 높다. 농업과 임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이며, 자연환경에 기반을 둔 관광업은 국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 된다. 캄보디아 국토는 약 30%의 농지, 60%의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지 중 관개 시설이 확보된 토지는 7.1%에 불과하다. 국가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토지의 비율은 18.5%이다 (World Bank, 2006b).

주요 환경 문제로 산림파괴를 예로 들면, 1990-2005년의 기간 동안 캄보디아의 삼림 파괴 비율은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1.3%였다(World Bank, 2006b). 캄보디아의 산림은 1970년대에 비해 15%가 감소하였으며, 산림파괴의 주된 원인은 불법 벌목으로 전체 산림파괴의 94%를 차지하고 있었다 (World Bank, 2006b).

캄보디아의 자연환경은 음용수 및 농업용수로의 수자원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풍족하지만, 부족한 수도 시설로 인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관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자연 재해, 특히 잦은 홍수 피해를 겪고 있다. 2000-2002년의 홍수는 많은 국내실향민을 양산한 역사상 최악의 홍수로 기록되고 있다.

이처럼 캄보디아는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후에 민감한 산업 (농업/임업/어업/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이 분야에 대한 여성인구는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환경변화의 여성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3) 안전한 수자원과 여성

깨끗한 음용수에 대한 접근성은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29%에 불과하다. 도시 거주자의 53%, 지방 거주자의 25%가 깨끗한 음용수를 얻고 있으

며, 그 외의 인구는 안전한 수자원 획득을 위해 1~2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WA, 2004a). 그리고 음용수 확보의 책임은 대부분의 경우가 사일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부여된다.

ADB에서 수행한 참여적 빈곤 측정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여성 조사 참여자들은 건기 시 하루의 대다수의 시간을 요리, 세탁, 목욕 등을 위한 수자원 획득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고, 수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ADB, 2001). 건기 수자원 획득에 여성들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은 우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수자원 확보와 활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가정의 음용, 요리, 목욕을 위해 안전한 수자원의 편리하고 신속한 접근을 원하고 있었던 반면, 남성들은 수자원 획득에 들이는 시간 자체는 크게 개의치 않는 대신 농업 관개 시스템을 원했다. 캄보디아 지역개발부는 마을의 수자원 위원회에 세 명의 여성과 두 명의 남성을 포함하게 하고, 수자원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 여성은 지역사회에서 의사표현 및 결정력이 남성에 비해 낮고, 남성에 종속적인 문화적 상황을 볼 때, 여성의 필요가 반영된 수자원의 운영 및 수자원개발사업의 실현은 낮을 수 있다.

수자원 접근성은 비용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주는데, 이는 빈곤층의 안전한 수자원 확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빈곤층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여성의 경우, 식수와 농업을 위한 수자원 관개시설의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는 취약성이 있다.

4. 소결

역사적으로 캄보디아는 불교문화권의 큰 흐름 속에 근대화과정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했다. 남녀 간의 성역할은 현대에 들어 수 십 년간 경험한 내전과 빈곤의 상흔과 함께 고착되어 불균형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국가적 취약상황은 성인 남성들에 대한 대량학살로 이어졌고, 여성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아져서 18세 이상의 성인 여성들이 전체 인구비율의 60-65%에 이르게 되었다(MoWA, 2004a).

현재 캄보디아에서 남녀 간의 성역할은 한마디로 설명하기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여전히 최고의 신부감은 차밥 쓰레이(Chbap Srey)에서 묘사된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고 존경을 받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가정 내에서의 모습은 여성의 가정 부양을 위한 재정적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권을 행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MoWA, 2008a). 또한 대학생 및 직장인들 사이에 신식 여성(srey kalip: modern women) 용어로 불리는 여성상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팽배해 있는, 문화 속에 고착된 전통적 성역할 및 초등 교육에서부터 배우게 되는 이상적 여성상 ‘차밥 쓰레이(Chbap Srey)’는 예를 들어 남성이 병에 걸리거나 가사가 기울게 될 경우, 가족 내에서 여아의 교육기회가 가장 먼저 박탈되고, 어린 나이부터 생업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여성과 여아의 식자율과 교육 수준은 범분야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낮은 교육과 식자율은 여성과 여아의 직업선택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 적절한 임금과 처우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진출에 장애가 되며,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증가시키게 된다. 기본적인 정보습득이 어렵게 될 경우, 보건시설 및 정부정책 접근성을 떨어트리며, 나아가 산모의 건강 그리고 육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여성의 고위관직진출 및 빈곤퇴치를 더디게 하고, 정부시책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인지 및 활용력을 현저하게 떨어트리게 된다.

긍정적인 점은 국가적으로 교육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진화하고 있으며, 점차 많은 수의 캄보디아인들이 이러한 차밥 쓰레이의 모습을 전통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성역할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현대여성은 강하고 똑똑하며 의사표현이 분명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대되고 있어 스스로의 권리 및 역량강화, 성장기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실제로 캄보디아의 젊은 여성들은 NGO 활동을 통해, 상급교육기관 진학을 통해 여성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와 경제 발전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관리들 사이에서도 균형적인 발전 및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역량강화 및 성평등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⁴⁰⁾

캄보디아의 높은 유소년/청년층/여성 비율은 캄보디아 사회가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장기적 지원 프로그램과 인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개발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의 개발이슈 전 분야에 걸쳐 성 주류화 및 인적역량강화의 주제는 캄보디아 개발효과성의 최고 전략이자 가장 효과적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캄보디아의 분쟁 및 취약상황으로 인해 전 국민이 직·간접 폭력의 피해자였던 것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국민적 캠페인은 캄보디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시책 및 국민적 노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⁴¹⁾. 또한 여성, 남성, 그리고 아동 등 다양한 폭력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자아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 및 법의 실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공적개발원조 및 개발협력을 통해 캄보디아의 발전과 MDG 달성을 위해 일하는 다양한 공여기관 및 NGO는 캄보디아에서 여성역량강화 및 성 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여성 및 여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교육/보건/개발 등 전 분야에 걸쳐 성 인지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여성역량강화 및 성 주류화의 분야는 정치적 과정 (political process)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여성과 여아 지원 분야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

4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캄보디아 기초현황조사 당시 캄보디아 대학생, 정부관계자, NGO전문가들과의 면담내용 (2011년 3월).

4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2011 KWDI 워크숍 당시 캄보디아 참석자들은 한국발전의 원동력은 한국인들의 교육수준과 정신력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캄보디아에서 필요한 것은 한국인과 같은 강한 정신력과 ‘할 수 있다’는 의지라고 말함.

록 협력해야 한다.

끝으로 개발원조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무역, 투자 등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들은 양국 간의 경제-정치-문화 교류의 과정 속에서 여성 및 여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이들 국가의 정책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조사 및 정책개발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 속에서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한국의 다양한 정책들이 캄보디아의 여성과 여아 그리고 인적역량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추적관찰조사도 필요하다.

III

인도네시아 젠더 프로파일

1. 젠더현황 개괄	87
2. 국가 젠더정책 및 법체계	95
3. 부문별 젠더분석	117
4. 크로스-보더 (Cross-Boarder) 이슈	141
5. 소결	151

1. 젠더현황 개괄

가. 사회문화적 배경과 최근 이슈

1) 종교 및 전통관습의 성차별적 요소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3천백만 명 정도로 말레이인 (80%)과 그 외 소수 민족 27개로 구성되어 있다 (JICA, 2011, 7).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다 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이지만 무슬림이 가장 지배적인 종교로서 무슬림 전통적 요소가 사회문화에 많이 남아있다. 최근 들어 국가 차원에서 성 평 등 증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문화적으로 여전히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 (Shari'a)”의 성차별적 요소에 의한 남성 우월적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1999년 “지방 자치권리법 No.22/1999”와 “지방정부 재정 개선법 No.25/1999”이 통과된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재정적 자율권이 보장되는 전면적 분권화를 거치면서 성 역할에 대한 보수적인 종교해석으로 회고가 가속되었다⁴²⁾.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법령 No.22/1999” 제 7항에 의해 종교에 대한 고려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분권화는 지방정부에게 행정적, 재정적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단위로 샤리아의 이행을 강화하려는 강경 무슬림 집단들⁴³⁾의 시도를 더욱 용이하게 한다. 특히 아체(Aceh)는 “법령 No.22/1999”에 예외적인 지역으로서 “지방자치 권리법 No.18/2001”에 의거해 샤리아 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소유권, 상속권, 경제 활동권, 교육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적 관습법인 “아다트(Adat)” 역시 분권화와 함께 지역별로 재고되고 있다.

42) 이후 22/1999는 지방행정법 32/2004로, 25/1999는 33/2004로의 개정을 거치면서 중앙정부는 의도적으로 주(province) 대신 지구(district; kecamatan)를 지역사회 의사결정의 핵심 단위로 정해 케카마탄 단위에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고있다 (ADB, 2006a, 37).

43) 인도네시아 주류 이슬람 종교인 Muhammadiyah and Nahdlatul Ulama (NU)에 속하지 않는 보수 종교집단이다.

2) 최근 젠더이슈

인도네시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젠더 이슈는 크게 (1) 성차별적 종교와 관습, (2) 여성의 정치적 참여, 그리고 (3) 성희롱과 여성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문화, 다종교 사회이지만 언어나 지역, 인종을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평등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판차실라 (Pancasila)⁴⁴⁾”라는 건국이념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관대한 사회 분위기이지만, 판차실라 도입 이전의 무슬림 종교나 지역사회 관습에 따라 여전히 여성을 사회적으로는 남편에게 종속적이고, 가정 내에서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존재로 인식하는 관습이 남아있는 지역이 다수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여성의 국회 진출은 점진적으로 증가⁴⁵⁾하고 있지만, 정당 내 성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성 당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으며⁴⁶⁾, 국회 내 위원회 중 보건이나 아동,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9, 10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내무나 토지, 자원 등을 담당하는 2, 7위원회⁴⁷⁾의 여성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33개 주 중 3개 주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으며, 2009년까지 여성 주지사는 한 명에 그쳤다 (JICA, 2011, 8).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법 No. 10/2008”을 제정하여 국회와 각 정당 내에서 30%의 여성 할당량을 채우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44) 판차실라는 1) 신에 대한 믿음, 2) 정의와 공손에 대한 믿음, 3) 국가의 통일성에 대한 존경, 4) 민주주의 증진, 5) 사회 평등에 대한 존경의 다섯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JICA, 2011, 8)

45) 인도네시아 여성의 국회 진출은 2004-09년 12% 이하에서 2009-2014년 평균 18%로 증가하였다 (UNDP, 2010).

46) 여성비율이 낮은 정당은 5.3%이고 가장 높은 정당의 경우도 24.3%에 그치고 있다.

47) ‘제 9 위원회: 보건, 노동, 이주, 시민권, 식량 및 의약품 모니터링기관’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45%, 그리고 ‘제 10 위원회: 국가 교육, 청년과 운동선수, 관광, 그리고 국회 도서관’의 경우 26%에 달한다. 그러나 ‘제 2위원회: 내무, 지역분권정치, 국가기관, 토지’의 경우 여성비율이 7.2%로 매우 낮고, ‘제 7위원회: 에너지와 광물 자원, 환경, 연구, 기술’ 역시 여성의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JICA, 2011, 7)

마지막으로 반여성폭력 국가위원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연간 54,425건의 여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남편이나 친지에 의한 폭력이 90%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경제적 폭력 (52%), 감정적 폭력 (22%), 물리적 폭력 (17%), 그리고 성폭력 (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JICA, 2011, 9). 반여성폭력 국가위원회의 노력으로 2004년 “가정폭력근절법 No. 23/2004”이 제정되었으며, 각 정부부서에서 여성폭력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인적자원 및 이주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가이드라인’을 곧 발간할 예정이다.

나. 성별 통계 및 지표

1) 국제 젠더지표 (HDI, GDI, GEM, GII)

인도네시아의 성 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2007~2009년 기준 세계 93위 (0.72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민당 GDP (2009년 기준, 109위)나 HDI (Human Development Index: 2009년 기준, 111위) 등의 다른 발전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편이다. 그러나 GDI에 비해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량강화와 정책결정 참여도를 나타내는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은 2009년 96위 (0.40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UNDP, 2009, 181-84). 또한 가장 최근에 측정된 성 불평등 지표인 GII (Gender Inequality Index)와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2010년 100위 (0.680)로 과거의 GDI나 GEM와 비교 시 성 평등 지표 관련 세계 순위가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UNDP, 2010, 156-60).

〈표 Ⅲ-1〉 국제 젠더 지표

국제 개발 지표	통계수치											
	(1) HDI			(2) GDI			(3) GEM			(4) GI		
	연도	지수	순위	연도	지수	순위	연도	지수	순위	연도	지수	순위
	2010	0.6	108	2007	0.726	93	2009	0.408	96	2008	0.680	100
	2007	0.734	111	2005	0.721	94	2005	-	-	-	-	-

자료: JICA, 2011; UNDP, 2010; UNDP, 2007/08

2) 성인지적 관점의 국가인구통계

최근까지도 인도네시아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2% (하원 18%, 상원 0%)에 불과하다 (IPU, 2011). 이는 국가 차원에서 여전히 여성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가 제한적임을 나타낸다. 또한 2000~2003년 사이 인도네시아 여성의 정규직 채용 기회는 28% 감소했으며, 2002년 기준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0% 정도에 불과했다 (ADB, 2006a, 9-16). 또한 인도네시아 여성은 여전히 빈곤, 가정 폭력, 인신 매매, 높은 모성 사망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B, 2006, 57-70).

〈표 Ⅲ-2〉 성인지적 관점의 국가인구통계

(단위: 백만 달러)

	통계수치														
기본 인구 통계 지표	(1) 총인구			(2) 도시인구			(3) 기대수명			(4) 인구증가율		(5) 출산율		(6) 가구 수	
	연도	전체	여성	연도	비율	여성	연도	남성	여성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연도	총계 ¹
	2010	237.5	49.7%	2010	44.3	NA	2008	68.5	72.5	2000-09	1.35	2010	2.10%	2008	57688.9
	2009	224.7	NA	2009	53.7	NA	2007	68.8	72.8	2000-05	1.4	2009	2.13%	2007	57006.6
젠더 정책 및 정치 활동 지표	(1) 부문별 공공지출 / GDP											(2) 국제조약 비준			
	보건		교육		복지		국방		젠더		기타		연도	명칭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1984	CEDAW	
	2007	2.2%	2007	3.5%	-	NA	2009	0.9%	-	NA	-	NA	2000	CEDAW 의정서	
	2006	1.9%	2006	3.6%	-	NA	2008	1%	-	NA	-	NA	2000	MDGs	

	(3)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율										(4) 국가 젠더기구							
	정부						민간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보호부							
	국회		장관		고위공무원		관리자급		전문기술자		반여성폭력 국가위원회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국가 인권위원회							
	2009	12%	2008	11%	-	NA	04-08	22%	-	NA	인구가족계획정보활동센터							
	(5) 국가 젠더정책과 관련 법																	
	2009년	재정부 No. 119/2009 "국가프로젝트평가 가이드라인"								2004년	인도네시아 아주 노동자 보호법 (법규 No. 39/2004)							
	2009년	BAPPENAS No. KEP30/M.PPN/HK/03/2009 "성인지예산위원회 설립"								2004년	가정폭력근절법 (No. 23/2004)							
	2008년	내무부 No. 15/2008 "지역별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2000년	대통령령 No. 9/2000 "국가개발계획의 성주류화"							
	경제 활동 지표	(1) 일인당 GNP		(2) GDP 증가율		(3) GDP 디플레이터		(4) Gini 지수		(5) 산업별 GDP (%)				(6) 해외원조 / GNP				
연도		액수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연도	지수	연도	농업	공업	서비스	연도	비율				
2009		\$2349	2009	4.5%	2009	8.4%	2007	37.6	2009	16	49	35	2009	0.2				
2008		\$2245	2008	6%	2008	18.2%	2005	39.4	2008	15	49	37	2008	0.2				
(7) 실업률			(8) 경황율 (%)			(9) 임금 성비		(10) 산업별 고용비율 (%)										
연도		전체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 0.78 (2011)		연도	농업		공업		서비스		기타		
2009		7.87	8.47	67.23	83.65	50.99	1 : 0.7 (2002)			총	여성	총	여성	총	여성	총	여성	
2008		8.39	14.7 ²	(11) 고용인구 비율 (%)			전체	남성	여성	2010	39.8	37.9	12.1	43.6	20.6	52	27.2	19.2
(10) 여성 이주노동		70%	71.3				49.9	0.24	2008	40.3	37.3	12.2	43.1	20.6	50.4	26.7	18.3	
여성 여아 교육		(1) 교육 체계			(2) 교육기간		(3) 문맹율 (%)			(4) 성인 식자율 (%)								
	초등 6년			남성	여성	15-24세		전체	연도	전체		남성	여성					
	2차 6년			8.24년	7.32년	남성	여성	남 : 여	2009	92.58		95.65	89.68					
	3차 2-4년					1.44	1.26	1 : 2	2008	92.19		95.38	89.10					
	(5) 교육 과정별 등록, 진학, 낙제 비율 (2009, %)																	
	초등교육				2차 (중등) 교육				2차 (고등) 교육									
	성별	등록	진학	낙제	성별	등록	진학	낙제	성별	등록	진학	낙제						
	전체	94.37	71.20	1.64	전체	67.43	38.88	2.49	전체	21	11.24	NA						
	남성	94.49	30.49	NA	남성	66.79	21.73	NA	남성	22	5.81	NA						
	여성	94.24	30.53	NA	여성	68.12	17.15	NA	여성	20	5.43	NA						

(6) 3차 교육 (전공별)	전공		교육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		의학		기타									
	남성		NA		NA		NA		NA		NA		NA									
	여성		NA		NA		NA		NA		NA		NA									
여성 여아 보건	(1) 보건 서비스 보급						(2) 영아 사망률			(3) 5세 미만 사망률			(4) 폐결핵 사망자									
	연도	의료침대 수 (환자 1,000 당)		연도	의사 수 (환자 1,000 당)		연도	전체	여아	연도	전체	여아	연도	전체	여성							
	2002	600		2003	130		2008	31%	28%	2008	41%	37%	2009	27%	NA							
	1998	600		2000	160		2005	34%	30%	2005	46%	41%	-	NA	NA							
	(5)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6) 예방접종율 (1년 단위)				(7) 영양상태													
	연도	전체	여성	BCG	DPT	수두	총총	저체중 아동 (5세 미만)		탈수완화요법		요오드 결핍										
	-	NA	NA	91%	91%	83%	80%	18% (2003-08)		54% (2005-08)		59.5% (2004)										
		NA	NA					NA		NA		NA										
	(8) 생식 건강																					
	산모 사망률 (100,000 출산건수 당)			전문의료진 분만			임산부 빈혈			피임률			총 출산율		초혼 평균나이							
	2007년	228		2010년	73%	-	NA	2010년	61%	2010년	2.10%	2005년	23.4									
	2005년	226		2009년	73%	-	NA	2009년	61%	2009년	2.13%	-	NA									
	(9)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10) HIV/AIDS												
	안전한 식수원 접근성						위생시설 접근성						HIV 보균자 비율			HIV/AIDS 인지 인구 % (15-24세)						
	전체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연도	%	연도	%	연도	%	연도	%	연도	%	연도	%	연도	%	연도	%	연도	%				
	06	80	08	89	08	71	08	52	08	67	06	37	07	0.2	08	0.3	08	0.1	10	20.3	10	19.8
	02	78	05	90	05	70	05	49	05	66	02	38	01	0.1	-	NA	-	NA	07	1.4	07	2.6

자료: JICA, 2011; SUSENAS, 2007; BAPPENAS, 2004 (주¹ 단위: 천, 주² 연도: 2005)

다. 젠더와 빈곤

1) 국가빈곤감소정책과 MDG 목표1 달성 가능성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 1과 관련해 2000년대 초반 빈곤선 1달러 미만 최저소득계층 감소가 달성되었고, 기아 역시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그러나 2002년 기준으로 국민의 52%가 여전히 국제 빈곤선 2

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7.2%는 1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연명하고 있다. 여전히 5세 미만 아동의 27.3%가 저체중이며, 자급적 식량작물 수급 정도 또한 낮으며 빈곤상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 역량강화와 성 평등을 위한 사회적 여건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ADB, 2006a, 4-5).

〈표 Ⅲ-3〉 인도네시아 MDG1 관련 개선사항

MDG 1. 빈곤과 기아 퇴치		지표 (%)	1990	2002
목표 1	1990-2015년 25년 기간 중 빈곤선 \$1 미만 최저 소득계층 1/2로 감소	빈곤선 1달러 (PPP) 이하 인구	20.6	7.2
		소득 격차	2.7	3.0
목표 2	1990-2015년 25년 기간 중 기아 인구 1/2로 감소	체중미달 5세미만 아동	35.5 ¹	27.3
		일일섭취 권장량 2,100kcal 미만 영양분 섭취 인구	69.5	64.6

자료. ADB 2006a (주 ¹ 연도: 1992년)

2) 인도네시아 빈곤층 현황

1970년대 이래 인도네시아 정부는 빈곤층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중앙통계기관인 BPS (Badan Pusat Statistik)에 따르면, 빈곤선 이하 소득 수준인 최저소득계층 (Income Poverty)의 비율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래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17%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2004년 기준 지방의 최저소득계층 비율 (20%)이 도시지역 (12%)보다 높았다. 그러나 소득 격차의 경우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4.33포인트로 벌어진 이래 계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빈곤층 삶의 질은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수의 인도네시아인들이 빈곤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2002년 PPP 달러 기준으로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인구는 7%에 불과했지만, 2달러 미만의 경우는 52%에 달했다 (ADB, 2006a, 7-8; ADB, 2006b, 19-23).

〈표 Ⅲ-4〉 소득 관련 변화 추이

빈곤층 현황 관련 지표	1990	1993	1996	1996	1999	2002
최저 소득계층 (%)	15.08	13.67	11.34	17.55	23.43	18.20
소득격차 (P1)	2.71	3.85	1.70	1.75	4.33	3.01
Severity index (P2)	0.72	1.11	0.41	0.42	1.23	0.79

자료. ADB, 2006a

3) 인도네시아 빈곤층 여성

일반적으로 여성가장 가정이 일반 가정보다 가난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하고 지역별 문화 관습에 따른 편차도 크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간개발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들에 대한 지표인 HDI보다 성불평등 정도를 적용한 GDI가 약간 높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GDI 순위는 2007~09년 기준 159개국 중 93위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순위가 낮은 라오스(115위)보다 고작 22단계 위이다. 아울러 젠더와 빈곤의 상관관계 중 하나인 소득의 성별격차도 1986년 0.6에서 1997년 0.7, 2011년 0.78로 감소폭이 매우 적다 (ADB, 2006b, 35-36).

1990년 이래 인도네시아 국민의 65% 정도가 하루 평균 2,100kcal 미만의 음식을 섭취하고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의 식량부족문제가 심각하다. 여성의 경우, 특히 임신 기간 중 영양실조 비율이 1996년 15%에서 1998년 18%로 증가했다. 철이나 요오드와 같은 미량 영양소 부족은 특히 심각해서 63%의 임산부와 40%의 가임기 여성이 철 결핍성 빈혈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ADB, 2006a, 7). 이러한 영양실조 문제는 가정 내 식량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제한적 식수 공급과 위생시설 보급 및 임신 및 모유 수유기 영양 부족에서 기인한다. 최근 들어 특히 도시 빈민가를 중심으로 한 가정 내 영양 결핍과 영양 과다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로 도시 빈민가 비만 여성의 22%가 영양 부족 상태였는데, 이는 저소득, 높은 실업률, 그리고 식자재 및 생필품 물가 인상에서 비롯한다. 또한 빈곤이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빈곤층 대상의 성별 통계자료 수집 및 성인지적 분석도 부족한 상태이다.

2. 국가 젠더정책 및 법체계

가. 젠더정책

1) 국가 젠더정책

인도네시아는 1978년 “여성역할을 위한 국무장관실(MENUPW: Office of the Minister of State for the Role of Women)”을 설립하고 1980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는 등 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젠더정책을 수립해왔다. 이를 통해 1978년부터 “인도네시아 5개년 개발계획(REPELITA)”과 “국가정책지침(GBHN)”에 여성과 관련된 장이 포함되었으며, MENUPW 장관 주최 자문 회의, 부처별 젠더 담당관, 지자체 젠더팀, 그리고 민관 젠더연구소 등이 생겼다 (CEDAW, 1997, 23).

이후 2000년대에 시행된 대표적 젠더정책은 다음과 같다 (ADB, 2006a, 31-42; JICA, 2011, 10-11).

- ‘대통령령 No.9/2000’ - 국가개발계획에 성 주류화를 도입하여 여성의 역할 증진과 가족,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의 성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각 정부 부서와 기관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젠더 분석과 중앙/지방 정부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해 기획, 조직, 도입, 모니터링의 전 단계에서 성 주류화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MeWECP는 이러한 과정에서 각 정부부서에 기술 지원과 진행사항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담당한다.
- “MoWECP 성 주류화 도입 가이드라인 (2002)” - “대통령령 No.9/2000”의 도입을 위한 국가행동강령 정부부처와 기관은 개발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단계에서 성 주류화 전략을 국가 또는 지역 단위로 도입한다. 여성역량 강화 및 아동보호부서(MoWECP: 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and Children Protection)가 대표기관으로서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한 기술지원 및 리더십을 제공한다.
- “대통령령 No.88/2002” - 여성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국가행동강령이다.
- “가정폭력근절법 (No.23/2004) 도입 정부규정 No.4/2006” - 가정폭력 피해자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 “MoWECP 규정 No.1/2007” - 경찰서와 병원 안에 MoWECP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고자 제정되었다.
- “내무부 규정 No.15/2008 (지방정부 성 주류화가이드라인)” - 지방정부 거버넌스, 지역개발, 커뮤니티 서비스 등에 성인지적 관점 도입과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지사나 시장이 내무부와 MoWECP에 진행과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BAPPENAS 규정 No.KEP.30/M.PPN/HK/03/2009” - 2009년 성인지 예산 도입을 위한 위원회와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7개 정부부서 (재정부, 교육부, 농업부, 보건부, 공공사업부, MoWECP, BAPPENAS)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워크숍 지원, 성인지예산 성명서 발표)

2) 젠더정책 도입주체 및 방안

현재 인도네시아의 여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 부처는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보호부 (MoWECP)”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젠더 정책 비전은 양성평등의 실현 및 아동의 보호이며, 중점 과제는 ① 여성 삶의 질 향상 및 여성 보호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 도입, ② 아동의 건전한 발달 지원 및 폭력으로부터 아동 보호이다. 이에 따른 세부 목표는 ① 성인지적 정책 개발 및 아동 보호를 개발의 우선과제에 포함, ② 여성과 아동의 권익 증진을 통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③ 관련 기관 역량강화 및 지역 커뮤니티 참여 증진, ④ 도입 및 이행체계 관리이다 (ADB, 2006a, 33-34).

젠더정책 도입 방안으로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보호부는 “MoWECP 전략 계획(2010-2014)”을 수립하여 ① 국가발전 전반의 성인지적 정책개발 및 도입 촉진, ② 여성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홍보 및 인식 증진, ③ 젠더기관 및 여성단체 역량강화, ④ 위 세 가지의 전략 이행을 보장하는 통합적 관리체계 실현의 네 개 전략 분야를 중점으로 여성 삶의 질 개선과 보호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MoWECP는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정책 (2010-2014)’ 하에서 교육, 보건, 경제활동, 정치참여, 사회와 문화 각 다섯 개 분야에서 여성역량강화 및 성 평등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JICA, 2011, 13-16).

〈표 Ⅲ-5〉 MoWECP의 젠더정책 도입 방안

분야	목표	전략 및 활동
교육	여성의 교육 기간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지역사회 정책 지지 • 읽기와 쓰기교육 도입 • 과학기술분야 여성 인력 증대 • CEDAW 도입 모니터링
보건	여성의 생식 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 및 영아 사망률 감소 • 모유수유 홍보 • HIV/AIDS 전염 방지 • 여성 질환 방지
경제활동	여성의 경제적 생산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층 가정 대상 보건지원서비스 • 융자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빈곤층 대상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정치참여	여성의 정치, 입법, 사법 관련 의식과 지식 함양과 여성의 정치참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및 입법과정에 여성의 참여 증대 • 입법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 도입 • 책임집행기관 내 여성지위 향상 • 사법기관 내 여성 지위 향상
사회와 문화	젠더에 관한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적 현황 파악 • 대중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인지도 변화 • 관련 정부부서와 여성 기관들 간 협력체계 구축

자료: JICA, 2011

3) 젠더정책 도입과정과 문제점

인도네시아에서 젠더 정책을 도입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젠더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 정치인이나 고위급 정부 관료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또한 젠더 관련 시민단체의 수가 많고 이들과 정부 간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젠더 정책의 수요를 정책에서 반영하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이슬람 문화와 분권화로 인한 지역별 관습이 잔존하고 있어 성 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법이나 제도를 제정하더라도 사회문화적 성차별적 요소로 인해 도입이나 이행의 과정이 더디다.

나. 젠더관련 정부기관

1)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보호부 (MoWECP)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보호부 (The Ministry of Women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구: State Minister for Women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는 여성문제 주무부처로 성 주류화에 대한 전 국가적 지지를 얻기 위해 중앙과 전국 33개 지방 정부, 그리고 500개 이상의 지자체에 설립되었다 (JICA, 2011, 13). 지방의 MoWECP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만 중앙의 MoWECP와 정례적인 회의를 갖는 등 밀접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 MoWECP의 국장들은 지자체 MoWECP를 지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006년에는 대통령에게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반인신매매법 등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III-6〉 MoWECP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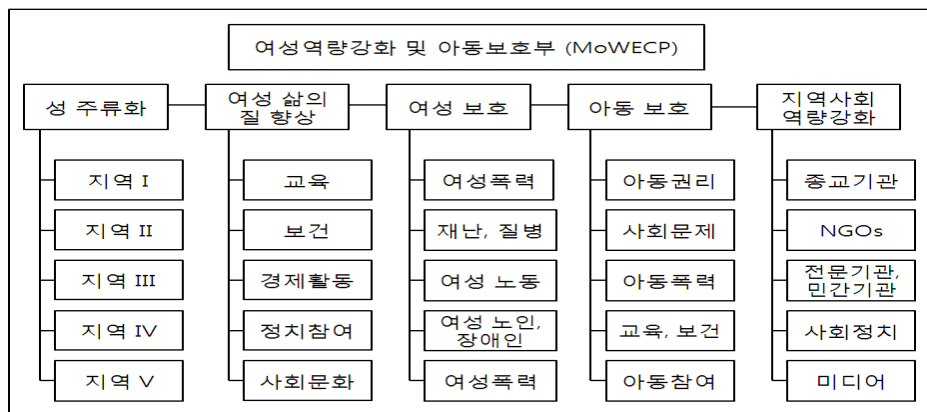
명칭	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직원	300명 이상
예산	NA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아동의 삶의 질 향상 •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통한 여성 권리 증진 •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아동 보호 (학대, 인신매매, 성매매) •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 •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여성 역량강화와 아동 보호
역할	여성정책 개발 및 제안, 지역사회 차원의 역량강화, 타 정부부서에 성 주류화 관련 기술 지원, 젠더관련 정부기관 네트워킹, 모니터링

자료. JICA, 2011

〈표 Ⅲ-7〉 MoWECP 구성

해당 규정	MoWECP 규정 No. P. 01/Meneg.PP/V/2005	
부서	사무국	MoWECP 사무 총괄 및 행정 업무 지원
	성 주류화	정치, 경제, 입법, 사법, 복지, 사회, 문화, 주정부 운영에 있어서 성 주류화를 담당 (지부 5개 총괄)
	여성 삶의 질 향상	교육, 보건, 경제활동, 정치참여, 사회문화 총 5개 부문 지원부서 총괄
	여성보호정책 기획	여성폭력, 재난과 질병, 여성 노동, 여성노인과 장애인, 여성 관련 사회문제 총 5개 부문 지원부서 총괄
	아동보호정책 기획	아동 권리, 아동관련 사회문제, 아동폭력, 교육과 보건, 아동 참여 등 총 5개 부문 지원부서 총괄
	지역사회기관 역량강화	종교 기관, NGOs, 전문기관과 민간기관, 사회정치적 업무, 미디어 등 총 5개 부문 지원부서 총괄

자료. JICA, 2011



자료. JICA, 2011

[그림 Ⅲ-1] MoWECP 조직도

2) 기타 젠더관련 정부기관

MoWECP 이외의 젠더관련 정부기관으로 반여성폭력위원회 (Komnas Perempuan),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등이 있다.

〈표 III-8〉 기타 젠더관련 정부기관

정부기관	영문명칭	주요 젠더활동
반여성폭력 국가위원회 (1998 설립)	The Indonesian National Commission on Anti-Violence against Wom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근절과 여성인권 및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민관기관 네트워크 등을 담당. 가정폭력근절법 No. 23.2004 및 각 정부부서 여성폭력관련 법령 제정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The Indonesian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관련 연구, 교육, 평가, 조정 담당 대통령과 의회(상·하원)에 직접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여성인권 침해 사례 다룸
국가개발기획청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개발계획의 성 주류화 (주로 인구, 가족계획, 여성역량강화, 복지 영역) 예산기획의 성 주류화

자료. ADB, 2006a; JICA, 2011

이 외에도 인구가족계획정보활동센터, 국민복지조정부, 재무부, 보건부, 교육부, 농업부, SMEs부, 공공사업부, 국가재난관리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젠더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의 <표 III-9>은 MoWECP 이외의 정부부서에서 진행한 젠더 관련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9〉 기타 정부부서의 젠더관련 활동

정부부서	주요 젠더활동
재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예산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및 성인지 예산 도입
보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모와 청소년 생식건강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기획 및 도입 성인지 예산 도입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기와 쓰기 교육과 성 주류화를 지역 차원에서 도입 성인지 예산 도입
농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 (예. 식재 관련 성별분리 통계 작성, 여성친화적 농기구개발 및 보급) 성인지 예산 도입
SMEs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사업자의 영세사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공공사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인프라를 이용한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 성인지 예산 도입

정부부서	주요 젠더활동
국민복지조정부	• 여성복지정책 계획과 시행에 있어 대통령의 조정업무 지원
국가재난관리소	• 국가 행동강령의 성 주류화
인구가족계획 정보활동센터	• 국가 가족계획과 보건전략 수립

자료. ADB 2006a; JICA, 2011

다. 젠더관련 법체계

인도네시아에는 1960년부터 젠더적 시각의 해석이 가능한 법률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성 평등적 시각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 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표 III-10>는 젠더 이슈에 관련된 주요 법률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10> 젠더 관련 주요 법과 정부규정

법 / 규정	연도	내용
인도네시아 헌법	1945	(27조 1, 2 단락) “모든 시민은 법과 정부 앞에 예외 없이 평등하고 존엄하다.”
결혼법	1974	최소결혼연령을 남성의 경우 19세, 여성의 경우 16세로 규정함. 또한 자녀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함. 그러나 최소결혼연령 조항과 같이 성 평등하지 않은 조항을 포함함.
가정폭력근절법 (No.39/2004)	2003	가정폭력, 처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 정의함.
국제 이주 노동자 보호법 (No.39/2004)	2004	국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시민법 (No.12/2006)	2004	국제결혼 아동의 시민권과 국제 이주 노동자들의 국적 보장
인신매매근절법 (No.21/2007)	2006	인신매매 방지와 인식 재고, 피해자 보호
정당법 (NO.2/2008)	2007	“각 정당은 적어도 선거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총선거법 (No.10/2008)	2008	국회에서 여성 대표자가 적어도 30%가 되도록 규정
포르노그래피근절법	2008	포르노그래피로부터 특히 남아와 여아를 보호

자료. JICA, 2011

〈표 Ⅲ-11〉 젠더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부문별)

법률		규정
결혼 과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법 1974 No.1 31조 결혼법 이행조항 1975 (9/75) 종교재판법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 연령: 19세 이상의 남성, 16세 이상의 여성 기본적으로는 일부일처제이나 기존 아내의 동의와 사법적 승인이 있으면 각 종교에 따른 일부다처제를 금지하지는 않음 법적으로 배우자는 동등한 지위를 누리며, 가사 양육의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 배우자는 동등한 거주지 선택권을 가짐. Talaq (결혼법): 이혼 판결 이후에는 이슬람 남편인 경우, 종교 재판소에 이혼 청원을 내야하고, 결혼법의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6가지 중 해당 사유가 있어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이혼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관찰 기간을 가짐. 여성의 경우, 증거 없이도 법 규정에 따라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음. 이혼 후 결혼기간 중 취득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나 자녀 양육비, 생활비 등의 지급 의무이행 가능 (기간, 액수는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권법 1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 양육권 다툼이 있을 경우, 남편은 재정적 능력이 있는 한 양육 및 생활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 공동 재산은 이혼 후 지역 관습 또는 종교법에 따라 분할함. 일반적으로 아내에게 더 적은 양을 지급함.
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 (비이슬람) 이슬람법 (대법원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슬람법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적게 상속받고, 할아버지는 과부보다 더 많이 상속받음. 민법(civil code)은 남녀 동일한 상속을 보장함. 관습법은 모계 또는 부계 사회구성에 따라 다름.
토지 소유, 신용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본법 1960 제 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등록할 경우 토지명이나 토지소유권을 얻을 수 있으나, 법 집행 과정에서 차별을 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법 1974 제 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 공동소유’ 개념 채택의 근거로 작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 제 10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혼 여성이 독립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근거로 작용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계획과 가족 번영계획법(10/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계획 서비스가 기혼여성에게만 국한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법 (23/1992),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태 금지. ‘산모나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만 신빙성있는 의료기관에서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시민법 220조에 세부 사항 기술). 기혼 또는 임신한 여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적용 (몇몇 학교에서 실제로 도입).
사회 복지 (근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5 조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시민은 인간 존엄성에 걸맞은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규정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고용주는 동일한 작업에 대한 보수에서 남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DAW 비준안 (1984) 조항 No.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평등의 중요성 강조 양도 불가능한 노동권과 고용에 있어서의 여성차별 철폐주장

법률		규정
	• 노동법 13/2003	- 월 2일의 월경 휴가, 출산 전후 각 1.5개월의 출산 휴가, 유산 후 1.5개월의 휴가 제공을 보장함. - 근무 시간 중 모유 수유 시간 보장. - 아내의 출산이나 유산의 경우 남성 근로자의 조퇴를 인정함.
	• 인적자원부, 근무지 보건/ 위생/ 조명 규정 1964	- 남녀 분리된 화장실과 화장실 내 여유 공간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여성 폭력	• 형법 1915, 칙령 No. 33	- (285조항) 배우자 이외의 여성에게 무력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시도한 경우, 강간죄가 적용되며 최대 12년의 징역에 처함을 명시. - (288조항) 결혼 적령기 이하의 여성과 성교를 시도한 남성의 경우 최대 징역 4년에 처함을 명시.
	• 가정폭력근절법 No. 23/2004	- 육체적, 성적, 정신적 가정폭력과 무관심, 그리고 최초로 부부사이의 강간에 대한 규정을 포함. - 가족은 동거하는 혈연관계의 구성원으로 규정.
이주 및 인신 매매	• 이주노동자 보호법 No. 39/2004	- 인권에 대해 원칙적 명시 - 이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포함하지 않음.
	• 기초원안 (Draft Bill)	- 여성·아동인신매매철폐 국가행동강령에 부분적으로 의거함. - 인신매매 억제 및 불법화를 중점으로 다룸.

자료. ADB, 2006a

라. 젠더 프로젝트

1) 인도네시아 원조체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황으로 인해 해외 원조가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표 III-12> 참고). 인도네시아 해외원조는 세계개발은행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UNDP 등의 국제기구와 일본의 JICA, 네덜란드의 SNV, 호주의 AusAid 등의 양자기구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ODA에 관련하는 부처와 기구가 다양하다 ([그림 III-2] 참고). 인도네시아 정부 내의 수원체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림 III-3]과 같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련 기관에서 ODA 사업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이 검토하여 해외원조 국가 및 기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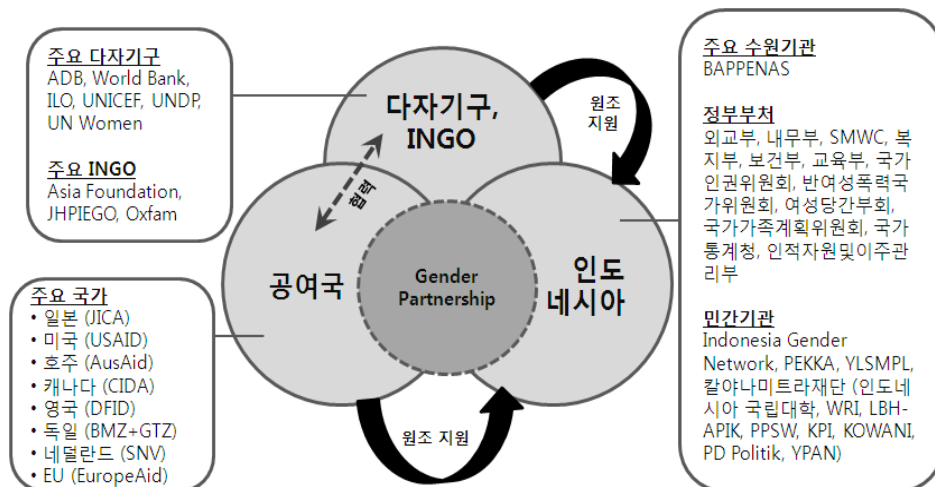
자국 외교부 심사를 거쳐 신청하게 된다. 공여국은 이를 자국 외교부 에서 심사하여 다시 대사관을 통해 사업승인을 통고한다.

〈표 Ⅲ-12〉 2000년대 인도네시아 ODA 수원현황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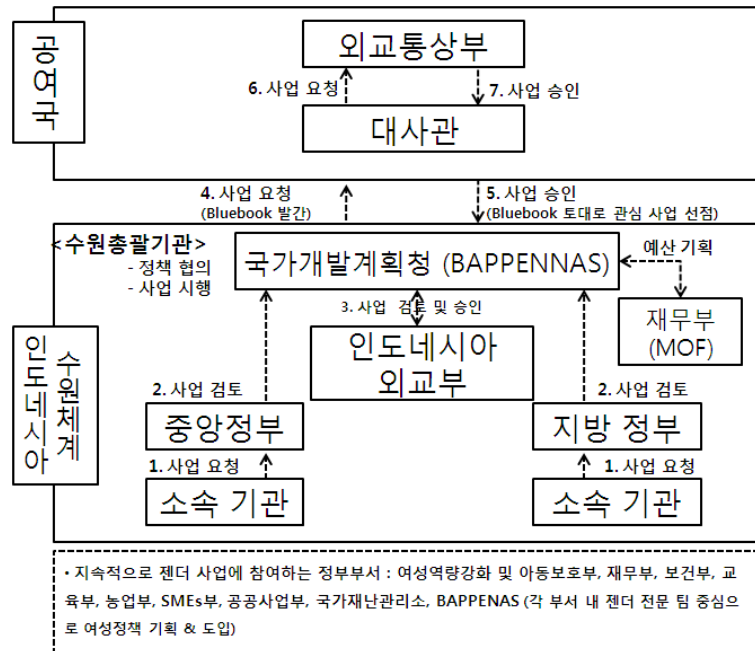
연도	ODA			총 ODA (% of GNI)
	양자	다자	총액	
2005	2.33	0.17	2.50	1.0
2006	0.76	0.55	1.31	0.4
2007	0.52	0.38	0.90	0.2
2008	0.65	0.58	1.23	0.3
2009	0.45	0.60	1.05	0.2

자료. World Bank, Bank of Indonesia



자료. JICA, 2011; World Bank Indonesia; Indonesia Government

[그림 Ⅲ-2] 인도네시아의 개발원조 파트너십



자료. JICA, 2011; World Bank Indonesia; Indonesia Government

[그림 Ⅲ-3] 인도네시아 수원체계 조직도

2) 양자기구 젠더 원조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양자 원조기구로 일본, 네덜란드, 호주의 원조기관과 이 외에도 미국, 독일, 영국, EU 등의 기관이 있으며, 이들 양자 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젠더 프로젝트는 교육, 건강, 정치, 거버넌스, 인권 등의 분야에 걸쳐 있다.

〈표 Ⅲ-13〉 양자 기관의 젠더 프로젝트

공여 기관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현지 협력기관	
				NGO	정부부처
Aus Aid (호주)	Australia's Education Partnership with Indonesia * 호주 NGO들과 협력	2011-2016	성인지적 관점에서 교육서비스 질 향상	-	BAPPENAS, 외교부, MoWECP, 교육부
	Australia's Education Partnership with Indonesia * 호주 NGO들과 협력	2006-2010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기초 교육의 기회 증진	-	BAPPENAS, 외교부, MoWECP, 교육부
	Learning Assistance Programme for Islamic Schools	2004-2010	여학생 진학률이 높은 이슬람 학교 지원	-	BAPPENAS, 외교부, MoWECP, 교육부, 종교부
	Australia Indonesia Partnership for HIV	2008-2015	HIV/AIDS 억제 (성매매업 종사 여성 중 HIV/AIDS 감염인 지원)	-	BAPPENAS, 외교부, MoWECP, 보건부
	Australia Indonesia Partnership for Maternal and Neonatal Health	2008-2011	산모 및 유아 건강 증진	-	BAPPENAS, 외교부, MoWECP, 보건부
CIDA (캐나다)	Building Better Budget for Women and Poor *Asia Foundation과 협력	2010-2014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젠더정책 계획	-	BAPPENAS, 외교부, MoWECP, 재무부, 지방 정부
	Support to Voter Education for Election 2009	2008-2010	여성과 청년층 투표율 증진 (도입주체: UNDP)	-	BAPPENAS, 외교부, MoWECP, 선관위
KOICA (한국)	고위 공무원 초청 젠더 연수사업 - 2011년 5월 3-7일, 총 19명 초청	2005-현재	여성 인권 및 성평등 정책 역량강화 방안 연수	-	(한국)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진흥원
SNV (네덜란드)	Human Rights for All Program on Strengthening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vement with Special Support for Gender Equality and Sexual Reproductive Rights *HIVOS (네덜란드)와 협력	2008-2010	여성과 성적 소수자의 인권 및 성과 생식관련 권리 증진	-	BAPPENAS, 외교부, MoWECP, 보건부, 국가인권위

공여 기관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현지 협력기관	
				NGO	정부부처
	Strengthening Democracy and Development through Participation *Asia Foundation과 협력	2008-2012	여성의 정치 참여 증진	-	BAPPENAS, 외교부, MoWECP, 정치·법·안보부
GTZ (독일)	Strengthening Women's Rights Project	계속	여성 권리 증진	-	BAPPENAS, 외교부, MoWECP, 국가인권위, 정치·법·안보부
	Promotion of Small Financial Institution	On-going	영세 사업 지원 (여성 영세 상인도 포함)	-	BAPPENAS, 외교부, MoWECP, Bank Indonesia, 경제협력부, SMEs 협력부
USAID (미국)	The Pathway to Achieving MDGs 4&5 - Health * UNICEF와 합작	2010-2015	산모 및 영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지역 차원의 응급진료 접근성 강화	-	BAPPENAS, 외교부, MoWECP, 보건부
	Malaria in Pregnancy	2005-2015	인도네시아동부지역 산모 및 영아의 말라리아 감염률 감소를 위한 의료적 지원	-	BAPPENAS, 외교부, MoWECP, 보건부, 동부지역 지방 정부/ (미국) 질병예방 및통제센터(CDC)
	Maternal and Child Health Integrated Program (MCHIP) * JHPIEGO와 협력	2010-2011	산모 및 영아 대상 국가 보건 서비스 개선 및 Aceh, Banten, East Kalimantan 지방 정부 관련 역량 강화	-	BAPPENAS, 외교부, MoWECP, 보건부, Aceh, Banten, East Kalimantan 지방 정부
DFID (영국)	Civil Society Initiative against Poverty * Asia Foundation과 협력	2008-2011	빈곤층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성평등적 예산 편성 도모	-	BAPPENAS, 외교부, MoWECP, 내무부, 재정부
	Oxfam's Practical Review on DRR Investment * Oxfam과 협력	2010	정부의 재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반영 평가	-	BAPPENAS, 외교부, MoWECP
	Indonesia's Country Gender Assessment	2010	인도네시아 성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데이터 수집	인도네시아 현지 NGO 다수	BAPPENAS, 외교부, MoWECP, 국가통계청

공여 기관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현지 협력기관	
				NGO	정부부처
EuropeAid (EU)	Building Partnership among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Support for Pro-Poor and Gender-Responsive budget Initiatives in south Sulawesi	2008-2010	빈곤층을 위하고, 성인지적인 예산 계획을 위한 정부, 의회, 시민 사회 간의 파트너십 강화	YLSM PL ⁴⁹⁾	BAPPENAS, 외교부, MoWECP, 내무부, 재무부, South Sulawesi 지방정부

* 양자기구와 협력한 NGO를 표기하였음.

출처. JICA (2011); AusAid, CIDA, DFID, EuropeAid, SNV, USAID 홈페이지

여성의 정치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CIDA는 UNDP와 협력하여 여성과 청년층 투표율 증진을 위해 “2009년 선거 유권자 교육 (Support to Voter Education for Election 2009, 2008-2010, 220만달러)”를 진행했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해 네덜란드 SNV는 “참여증진을 통한 민주주의 및 개발 증진 (Strengthening Democracy and Development through Participation, 2008-2012, 80만 유로)”를 진행 중이다.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 독일의 GTZ는 영세사업 지원 프로그램인 “소규모 재정기관 홍보 (Promotion of Small Financial Institution)”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SNV의 경우, 여성과 성적 소수자의 인권 및 성과 생식관련 권리 증진을 위한 “성 평등과 생식건강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인도네시아 인권운동 강화 (Human Rights for All Program on Strengthening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vement with Special Support for Gender Equality and Sexual Reproductive Rights, 2008-2010, 4,300유로)”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KOICA도 ‘고위 공무원 초청 젠더 연수사업 (2005~현재)’을 통해 여성 인권 및 성 평등 정책 역량강화 방안을 전수하고 있다. 아울러 독일의 GTZ는 여성 권리의 전반적 증진을 위해 “여성권리강화 프로젝트 (Strengthening Women's Rights Project)”를 진행 중에 있다.

48) An International Non-Profit Health Organization Affiliated with Johns Hopkins University

49)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to monitor Indonesia Government's Legislation Process

인도네시아 여성과 여아 교육과 관련하여 호주의 양자 기관인 AusAid가 “인니-호주 교육 파트너십 I&II (Australia's Education Partnership with Indonesia I& II, 2006-2016, 2차 예산 3억 8,700만 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AusAid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초 교육의 기회를 증진하고 교육 서비스에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자 한다. AusAid는 또한 “이슬람 학교 교육과정 지원 (Learning Assistance Programme for Islamic Schools, 2004-2010, 3,500만 달러)”를 통해 여학생 진학률이 높은 이슬람 학교를 지원한다.

여성/여아 보건과 관련하여 호주의 AusAid의 경우 성매매업 종사 여성 중 HIV/AIDS 감염인 지원 프로그램인 “HIV 인니-호주 파트너십 (Australia-Indonesia Partnership for HIV, 2008-2015, 1억 달러)”와 산모와 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한 인니-호주 파트너십 (Australia-Indonesia Partnership for Maternal and Neonatal Health, 2008-2011, 4,900만달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미국의 USAID의 경우 산모 및 영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응급진료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인 “MDG 목표 4, 5 달성방안 (The Pathway to Achieving MDGs 4&5, 2010-2015)”과 동부지역 산모 및 영아의 말라리아 감염률 감소를 위한 의료 지원으로 “임산부 말라리아대책 (Malaria in Pregnancy, 2005-2015)”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USAID는 산모 및 영아 대상 국가 보건 서비스 질의 전반적 향상을 위해 “모자건강프로그램 (Maternal and Child Health Integrated Program, 2010-2011)”를 운영했다. 또한 JICA의 경우 산모 사망률 감소와 가족계획 및 HIV/AIDS 대처를 위한 “모자건강 소책자 (Project for Diffusion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Handbooks)”를 발간하였다.

빈곤층 여성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빈곤층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성 평등적 예산 편성 도모를 위한 영국 DFID의 “시민사회 빈곤근절 대책 (Civil Society Initiative against Poverty, 2008-2011, 5,700만 달러)”와 EU의 EuropeAid가 주관하는 빈곤층을 위한 성인지 예산 기획 프로그램인 “슬라웨시지방 빈곤층과 성인지 예산을 위한 민관협력 (Building Partnership among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Support for Pro-Poor and Gender-responsive Budget Initiatives in South Sulawesi, 2008-2010, 25만 유로)”이 있다.

이 외에도 영국의 DFID는 재난관리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위한 “DRR 투자에 대한 옥스팜 리뷰 (Oxfam's Practical Review on DRR Investment, 2010, 약 9만달러)”와 성별통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국가 젠더평가 (Indonesia's Country Gender Assessment, 2010, 약 4만 달러)”를 진행하였다. JICA의 경우, 성인지 예산 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공공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기술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 분권화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CIDA는 지방정부 차원의 젠더 정책 기획력 증진을 위해 “여성과 빈곤층을 위한 예산 마련 (Building Better Budget for Women and the Poor, 2010-2014, 약 6백만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자 원조기관의 경우 교육, 보건, 인권 분야의 지원 프로젝트가 다수이며 지원액의 규모도 크다. 여성 정치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캐나다의 CIDA와 네덜란드의 SNV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경제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독일 GTZ의 사업이 유일하다. 여성인권과 관련해서는 네덜란드의 SNV, 한국의 KOICA, 독일의 GTZ가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며, 교육과 관련해서는 호주의 AusAid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호주의 AusAid, 미국의 USAID, 일본의 JICA가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영국 DFID는 빈곤층 여성, 재난관리, 성별 통계 등 간과되기 쉬운 개발분야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서는 BAPPENAS, MoWECP, 외교부가 젠더 개발 프로그램 전반에 관여하고 있고,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관련 부서가 협력하고 있다.

3) 다자기구 젠더 원조프로젝트

인도네시아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다자 기구는 ADB, ILO, UNDP, World Bank, UNICEF, UN Women 등이 있다. 다자 기구에서도 교육, 건강, 인권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농업, 재난 관리, 이주 노동자 등 포함)에 역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도 많다. <표 III-14>는 인도네시아와 협력하는 다자 기구의 젠더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다자원조기관은 다음과 같다.

- 세계개발은행 (World Bank) 젠더와 개발 부서 (Gender and Development Department) - 세계개발은행의 ‘빈곤과 경제 재건관리팀’ 소속으로 인도네시아의 여성이주노동자, 여성가장세력화 및 자생 개발프로그램 지원의 일환인 여성의 법적 세력화를 담당하고 있다.
- 아시아 개발은행 (ADB) 젠더와 사회개발지부 (Gender and Social Development Community of Practice) - ADB의 ‘지역 지속가능한 개발 담당부서’ 소속으로 젠더와 사회개발을 담당한다.
- 유엔 여성기구(UN Women)의 인도네시아 지부 (자카르타, 아체) - 여성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고, 성인지 예산 도입에 대한 기술적 지원,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실무단과 시민단체 간의 네트워킹을 돕는다.
- 국제노동기구 (ILO) 인도네시아 지부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노동 및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 유니세프 (UNICEF) 인도네시아 지부 - 아동폭력근절을 위한 사회인식 재고와 신고체계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또한 아동보호 관련 법체계 개정 관련 기술적 지원과 정책 지지를 담당한다.

〈표 Ⅲ-14〉 다자 기구의 젠더 프로젝트

공여 기관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협력기관	
				NGO	정부부처
ADB	Sustainable Capacity Building for Decentralization	2003-2011	분권화 관련 양성평등 증진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법 제정	-	BAPPENAS, 외교부, 내무부, MoWECP, 낙후지역개발부
	Decentralized Basic Education Project	2002-2009	여성과 남성의 기초 교육 기회 확대	-	BAPPENAS, 외교부, 교육부, MoWECP
	Nutrition Improvement through community Empowerment Project	2007-2012	영양상태 개선 (빈곤층 여성과 아동 포함)	-	BAPPENAS, 외교부, 보건부, 국가사무처, MoWECP, 낙후지역개발부

공여 기관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협력기관	
				NGO	정부부처
	Coomunity empowerment for Rural Development	2001-2007	농업 지원, 자원 활용 노하우 전수 (여성 농업 종사자 포함)	-	BAPPENAS, 외교부, 내무부, 농업부, 국가사무처, 낙후지역개발부
	Gender Responsive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2004-2007	젠더적 시각에서 국가 단위와 국가하부단위의 행정 서비스 개선	정치부문 여성 NGO 다수	BAPPENAS, 외교부, MoWECP
ILO	Entrepreneurship Skills Development Programme (Papua Province)	On-going	Papua지방 경제 활동 지원 (특히 여성에 대해 집중적 지원)	-	BAPPENAS, 외교부, MoWECP, 경제부, SMEs 협력부, Papua 지방정부 개발지원팀
	Equality and Decent Work Promotion for Asian women through Prevention of Human Trafficking, Protection of Domestic Workers and Gender Capacity Building	2009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관리 및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 평등 증진과 성 주류화 추진: 성 평등에 관한 ILO 국제 행동강령 이행, 고용에 있어서의 성 평등 추진, 강제 노동 및 아동노동 착취 근절	KSPSI ⁽⁵⁰⁾ , KSPI ⁽⁵¹⁾ , KSBSI ⁽⁵²⁾ , Apindo	BAPPENAS, 외교부, MoWECP, 인적자원및 이주노동부
UNDP	The Gender Equity and Women's Rights: Rising the Profile	2008-2009	여성 인권 및 양성평등 현황 분석	Indonesia Gender Network	BAPPENAS, 외교부, MoWECP, 국가인권위, 국가여성폭력 철폐위
	Safer Communities through Disaster Risk Reduction	2007-2012	재난관리 지원 (재난 지역 여성 역량강화, 보호 프로그램)	-	BAPPENAS, 외교부, 국가재난관리소, 내무부, MoWECP
World Bank	Demand for Legal Reform: Women's Legal Empowerment	2010-2011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법 제정	PEKKA ⁽⁵³⁾	BAPPENAS, 외교부, MoWECP, 정치·법·안보부
	Developing the Capacity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Support Women Migrant Workers	2005-2008	(여성 포함) 이주 노동자 지원	-	BAPPENAS, 외교부, MoWECP, 인적자원&이주 관리부

공여 기관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협력기관	
				NGO	정부부처
	Empowerment Women Overseas Migrant Workers	2010 - NA	여성 보건 및 복지 서비스 (40%), 교육 및 직업 교육 (30%), 그리고 관련 행정 및 법 개선	TIFA Foundation	BAPPENAS, 외교부, MoEWCP, 보건부, 교육부, 정치·법·안보부
	Women's Legal Empowerment	2010-2011	성 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행정 및 법제도 개선 및 이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강화	PEKKA	BAPPENAS, 외교부, MoEWCP, 정치·법·안보부
	Sustaining Women's Leadership	2009-2014	보건 및 기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강화	PEEKA	BAPPENAS, 외교부, MoEWCP, 보건부 등
	Poverty Reduction and Women's Leadership	2007-NA	보건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빈곤 여성의 접근성 강화	PEKKA	BAPPENAS, 외교부, MoEWCP, 보건부, 교육부
UNICEF	The Pathway to Achieving MDGs 4&5 - Health * USAID와 합작	2010-2015	산모 및 영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지역 차원의 응급진료 접근성 강화	-	BAPPENAS, 외교부, MoWECP, 보건부
	Monitoring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2007-2010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	BAPPENAS, 외교부, MoWECP, 보건부/ (영국) DFID, (호주) AusAid
	Traditional Birth Attendance and Midwife Partnership	2007-2010	특히 빈곤층 출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 산파 역량 강화	-	BAPPENAS, 외교부, MoWECP, 보건부/ (영국) DFID, (호주) AusAi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2006-2011	저 연령 아동들 개발을 위해 특히 교육과 보건 분야 서비스 지원을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방안 마련	Global Girls' Education	BAPPENAS, 외교부, MoWECP, 교육부, 보건부
	Integrating Support for Women and Children	2006-2010	말루쿠 (Maluku) 폭력이나 착취로 고통받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심리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제공	Global Thematic Fund	BAPPENAS, 외교부, MoWECP, 보건부, 말루쿠 지방정부 및 경찰청
	Wadul Bae - Community Care for Women and Children	2005-2009	폭력, 착취로부터 여성,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 구축	Global Thematic Fund	BAPPENAS, 외교부, MoWECP, 서 자바 (Java) 및 치르본 (Cirebon) 지방정부

공여 기관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협력기관	
				NGO	정부부처
UN Women	Women Participate for Gender-Responsive Governance in Aceh	N/A	분쟁지역재건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및 의사결정 과정 참여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연수	-	BAPPENAS, 외교부, MoWECP, 정치법안보부
	Safe Community Initiative finding community solutions to violence against women in Aceh * CEDAW 추진위원회 (CWGI)와 공동 추진	2009	분쟁지역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캠페인 및 피해 여성 보호	-	BAPPENAS, 외교부, MoWECP, 국가인권위, 정치법안보부, 여성폭력철폐국가위원회
	CEDAW Southeast Asian Program * CEDAW 추진위원회(CWGI)공동 추진	N/A	동남아시아 지역에 CEDAW 도입 및 이행	APAB ⁵⁴⁾ , Kalyanamitra, KPI ⁵⁵⁾ , LBH APIK ⁵⁶⁾ , Mitra Perempuan, Rahima, Rumpun Gema Perempuan, SP, Yayasan Kesehatan Perempuan, Yayasan Jurnal Perempuan	BAPPENAS, 외교부, MoWECP
	Empowering Women Migrant Workers	N/A	여성 이주 노동자들 권익 보호 및 역량 강화	-	BAPPANAS, 외교부, MoWECP, 인적자원및 이주관리부
	Capacity Building for Women Candidates	NA	여성 후보자 역량강화	KPI	NA
	Legal Support to develop a Law to Protect Rights of Women Migrant Workers, Blitar	NA	블리타르 (Blitar) 지역 여성 이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 제정 지원	해당지구 지역사회 NGO 참여	BAPPENAS, 외교부, MoWECP, 블라타르 지방정부

* 다자기구와 협력한 양자기구 및 NGO를 표기하였음.

출처. JICA (2011); ADB, ILO, UNDP, UNICEF, UN Women, World Bank 홈페이지

50) All Indonesian Workers Union Confederation

51) Indonesian Trade Union Confederation

52) Indonesian Prosperity Trade Union Confederation

53) National Movement for Empowerment Female-headed House

54) Inter-Nation Rainbow Alliance (an Org. for Change in Indonesian Laws)

55) Indonesian Women's Coalition for Justice and Democracy

56) Legal Aids of Indonesian Women's Association for Justice

인도네시아 여성의 정치역량강화 증진을 위해 ADB는 “분권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Sustainable Capacity Building for Decentralization, 2003-2011, 4,200만 달러)” 프로그램을 통해 분권화 과정 내에서 성 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경제역량강화를 위해 ILO는 파푸아 지방 여성의 경제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기술발달 연수 프로그램 (Entrepreneurship Skills Development Programme)”을 진행 중이다.

여성 인권과 관련하여 UNDP는 현황 분석을 위한 “성 평등과 여성인권 : 프로파일 분석 (The Gender Equity and Women's Rights: Rising the Profile, 2008-2009, 15만 달러)”을 진행하였다. 또한 세계개발은행은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사법개혁요구: 여성의 사법역량강화 (Demand for Legal Reform: Women's Legal Empowerment, 2010-2011)”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ADB는 여성 농업인 대상 자원 활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인 “농촌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Community empowerment for Rural Development, 2001-2007, 1,150만 달러)”를 진행하였다. 여성 및 여아 교육과 관련해서 ADB는 국민 전반의 기초교육 확대를 위한 “기초교육 분권화 프로젝트 (Decentralized Basic Education Project, 2002-2009, 1억달러)”를 추진했다.

보건과 관련하여 ADB는 (빈곤층) 여성과 아동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영양개선 프로젝트 (Nutrition Improvement through Community Empowerment Project, 2007-2012, 5,000만 달러)”를 진행 중이다. 또한 UNICEF는 산모 및 영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지역 응급진료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으로 “MDG 목표 4, 5 달성방안 (The Pathway to Achieving MDGs 4&5, 2010-2015)”와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인 “임신 및 수유 여성 모니터링 (Monitoring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2007-2010)” 및 지역산파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전통출산 방식의 산파 파트너십 (Traditional Birth Attendance with Midwife Partnership, 2007-2010)”을 운영했다.

여성 이주 노동자와 관련하여 세계개발은행의 (여성) 이주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인 “외무부 역량강화를 통한 여성 이주노동자 지원 (Developing the Capacity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Support Women Migrant Workers, 2005-2008)”와 UN Women의 여성 이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여성 이주노동자 역량강화 (Empowering Women Migrant Workers)”가 있다.

분쟁지역 여성 지원을 위해서 UN Women은 분쟁지역 재건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아체지역 성인지적 거버넌스를 위한 여성 참여 (Women Participate for Gender-Responsive Governance in Aceh)”와 분쟁지역 여성폭력 근절 프로그램인 “안전한 지역사회 계획: 아체 지역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Safe Community Initiative: Finding Community Solution to Violence against Women in Aceh, 2009)”을 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UNDP의 재난 지역 여성 역량강화 및 보호 프로그램인 “재난 위업 감소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Safer Communities through Disaster Risk Reduction, 2007-2012, 1,800만 달러)”와 UN Women의 CEDAW 도입 및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CEDAW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CEDAW Southeast Asian Program)”이 있다.

다자 원조기관의 경우 보건과 인권, 그리고 재난관리 및 분쟁지역 여성보호 프로젝트가 다수이며 지원액의 규모도 크다. 여성 정치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ADB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경제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ILO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여성인권과 관련해서는 UNDP와 세계개발은행이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며, 교육과 농업과 관련해서는 ADB의 프로그램이 각각 한 개씩 운영 중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ADB와 UNICEF가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UN Women는 분쟁지역 여성보호와 역량강화 등 시급한 현황에 대한 젠더 프로그램과 CEDAW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UNDP는 재난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 지역 여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서는 BAPPENAS, MoWECP, 외교부가 젠더 개발 프로그램 전반에 관여하고 있고,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관련 부서가 협력하고 있다.

3. 부문별 젠더분석

가. 국가개발정책

2000년대에 시행된 국가개발정책의 젠더 사업은 다음과 같다 (ADB, 2006a, 31-32).

-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RPJM, 2004~09)” - 인도네시아의 5년 단위 중장기 개발계획으로서 평화 (안보), 민주국가 건설, 그리고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다. 이 사업 하의 성 주류화 전략은 ‘민주국가 건설’의 기치 하에 다양한 방면에서의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한 여성의 복지 향상 및 아동에 대한 보호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RPJM 제 13장 ‘교육, 건강, 빈곤’).
- “Rencana Kerja Pemerintah (RKP)” - RPJM 하의 1년 단위 개발 프로그램으로서 2006년에는 젠더가 4개 중점 사업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국가 개발법 No.25/2004는 지방 정부가 5개년 개발계획 추진 시 RPJM과 RKP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대통령령 No.9/2000 성 주류화 사업” - 모든 정부부서와 기관은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단계에서 성 주류화 전략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단위로 도입해야 한다. 여성역량 강화 및 아동보호부서(MoWECP: 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가 이러한 정부의 양성평등 사업의 대표 기관으로서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리더십을 제공한다.

나. 정치 및 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1) 관련 법률 및 국가정책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 헌법은 (1945년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여성은 선거권과 정당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당법 No.31/2002” 13조 3항은 정당의 간부 선출은 성 평등과 정의를 고려하여 당내 민주적 공개 토론을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여성 의원의 선출이 그 자체로 여성의 권익 증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성평등 실현에 유용함을 증명한 젠더 연구들에 기반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법 12/2003”은 각 정당의 당원 중 3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하는 할당제를 도입했다 (30%에는 못 미치지만, 2004년 선거 이후 여성 당선자/ 여성 정치인 임명 증가). 또한 ‘DPR RI, DPD RI, DPRD⁵⁷⁾ 위원 임명법’ 65조 1항은 “각 참가 정당은 당선된 선거구에서 DPR RI, DPD RI, DPRD 위원 임명 시 적어도 30%의 여성 대표자를 지명하도록 권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MoWECP 내부자료, 2011).

2) 현황

2004년 총선 준비기간 동안 의회 (국회, 지방의회) 후보명단의 최소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를 권고하는 “선거법 No.10/2008”이 통과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 및 정치적 대표성에 변화가 생겼다. 2004년 총선 이후 여성 하원(국회의원)의 비율이 8.8% (499석 중 44석)에서 11.3% (549석 중 62석)으로 약간 증가했고, 특히 이슬람 정당 출신 여성 당선자가 22석 (4.0%)로 크게 늘었다 (ADB, 2006a, 40-46; IPU). 또한 대통령의 경우, 인도네시아 역사상 Megawati Soekarnoputri만이 유일하게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자문회의 (MPR, the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내 비공개선거로 당선되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임기를 수행했다. 그러나 2004년 9월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로는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법 No.10/2008”의 도입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 여성의 정치참여 및 대표성 개선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04 총선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목표량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여성 후보 중 당선 비율은 2.6%로 남성 후보당선비율인 9.2%보다 훨씬 낮다. 또한 인도네시아 24개 정당 중 30% 할당량을 만족시킨 정당이 단 한 곳도 없었다 (ADB, 2006a, 46-49). 국제선거제도재단 (IFES: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57) DPD RI (Dewan Perwakilan Daerah Republik Indonesia, Regional Representative Council)는 상원, DPR RI (Dewan Perwakilan Rakyat Republik Indonesia)는 하원 (국회의원), 그리고 DPRD (Dewan Perwakilan Rakyat Daerah)는 지방 하원을 의미한다.

Election System)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성 정치인의 과반수가 정당 내 후보 지명 순위가 낮아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실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국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비주류 위원회에 속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인구 위원회 25%, 종교/교육/문화 위원회 12.5%, 산업/무역 위원회 9.6%).

지방의회는 경우 2004년 총선거 이후 128석 중 21.1%에 해당하는 27선에 여성이 당선되어 국회보다 높은 여성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933명의 후보자가 지원한 지방의회 공개선거에서 정치 외 분야 89석 (9.5%)에 여성이 당선되어 지방의회 운영위원의 여성 비율이 30%를 웃돌게 되었다 (IPU). 그러나 지방정부 고위직 여성의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문제가 있다 (2009년 기준, 주지사 33명 중 여성 1명). 이러한 인도네시아 여성 정치참여 및 대표성은 다음의 <표 Ⅲ-15>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표 Ⅲ-15> 인도네시아 여성의 정치참여 및 대표성

구분	여성의 정치참여 및 대표성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원의 여성 비율은 11.8% (2004)에서 18.04% (2009)로 증가 의회의 여성비율은 11.8%(2004)에서 18%(2009)로 증가 상원의 여성 대표성은 22.6% (2004)에서 26.5% (2009)로 증가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 총선 이후 여성 당선 비율 21.1% (27석) 지방 하원의 여성 비율은 13.53%에 불과하여, 여성 대표성 부족 33명 주지사 중 여성 1명 (200), 부지사 중 여성 1명 (2009) 402개 부시장 자리 중 여성 당선 12개 (2009, 2.27%)
내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명 내각 구성원 중 4명의 여성장관 (MoWECP, 보건부, 통상부, BAPPENAS), 1명의 여성차관 (재정부)
공공 서비스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비율이 45.4%이나, 고위급은 남성이 지배적임 여성 공무원 중 9%만 공공서비스분야 1급 직위 (Echelon I) 도달
사법 (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대법원 판사 0명 (2010), 대법원 지위별로 1급 (Echelon I) 0명, 2급 16.22% (6명), 3급 30%, 4급 35% 민사법원 여성판사 24.91% (903명), 종교법원 29.65% (633명), 국가행정법원 39.35% (91명), 군사법원 10.14% (7명) 여성 법률가 비율 20.3% (2004)에서 29.17% (2009)로 증가
여성 유권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총선 당시 유권자 비율은 여성 50.8%, 남성 49.2% 당시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한 비율은 여성 75.9%, 남성 72.7%

자료. MoWECP 내부자료, 2011

3) 여성의 정치 역량강화 장애요인

여성의 정치 참여를 막는 걸림돌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이념적,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분류된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정당지원과 연수프로그램의 부족, 선거 제도의 문제, 여성의 정치적 자신감 부족 등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 선거 체계 - 2004년 총선 당시 국민 의견반영률을 높이고자 부분적 후보자 명단 공개 (Partially Open List System)⁵⁸⁾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당선된 550명의 국회의원 중 정당 당수 두 명만이 당선 가능한 개인 지지율을 획득했고, 나머지는 정당 내 지명에 의한 방식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정치인다수는 실질적 개인 지지율이 남성 후보자보다 높아도 정당 내에서 후순위 후보자로 지명되어 당선 비율이 매우 낮았다.
- 종교칙령 (Fatwa) - 2004년 대통령 직선제 선거 당시 여동부 자바(Java) 지역의 NU 이슬람 종교단체 지도자들은 국가적 위급시기를 제외하고는 여성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고 발표했고, 이는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초래했다.
- 여성 후보자 득표현황 - 국제선거제도재단 (IFES)의 2004선거 직후 국가조사에 따르면, 28%의 응답자 (남성 응답자 중 23%, 여성 응답자 중 33%)가 최소 한 명이상의 여성후보자에 투표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NDI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에서 수행된 초점집단 토론에 참여 유권자 다수가 여성후보를 지지한 이유가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이라 밝혔다.
- 정당 - 정당 내에 일반적으로 여성위원회가 없고, 따라서 정당 내 여성 정치인들 간의 결속이 힘들다. 2004년 선거에 참여한 24개 정당 중 오

58) 이 부분적 공개 리스트 시스템은 과거 정당만 선택하던 선거 체계와 다르게 유권자가 정당과 지목한 정당 내 소속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 지지율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지지율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 변수로 작용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에 따라 높은 개인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가 우선 당선되고, 나머지 득표율을 후보자 리스트에 오른 정당 내 다른 당원에게 나누는 방식이 적용되어 유권자의 후보 선호도 및 의견 반영률을 높이고자 했다.

직 세 개 정당⁵⁹⁾만이 여성 당수의 지도하에 선거에 참여했다. 선거 이후 7개 거대 정당 중 오직 PDI-Perjuangan당만 유일하게 여성 당수가 남아있다.

- 여성 국회의원 단체 - ‘여성국회의원회 (KPPI Parliament)⁶⁰⁾’가 국회 안에 조직되어 여성 하원의원의 결속을 도모하고 있지만, 상원 (DPD RI)의 경우 여성의원 간 결속을 도모할 단체가 없다 (현재 여성상원단체 조직 중에 있음).

다. 여성 고용 및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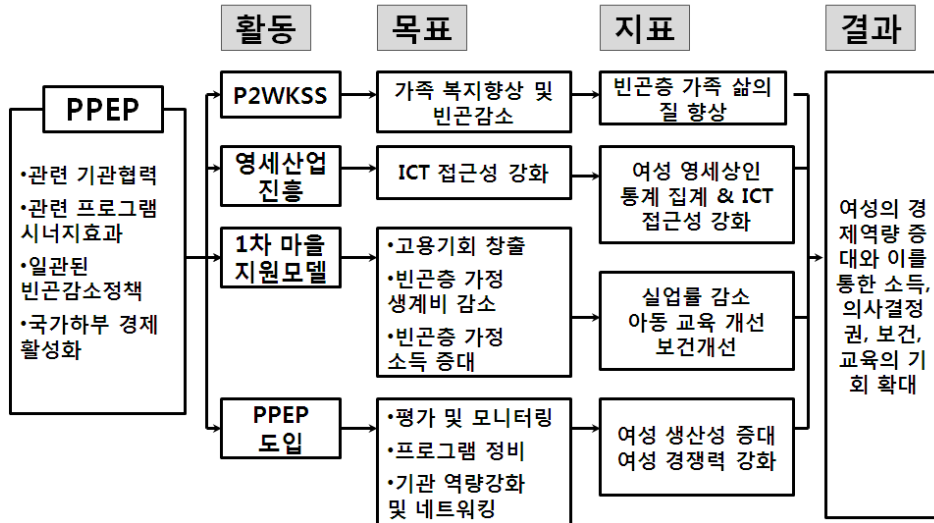
1) 관련 법률 및 국가정책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MoWECP는 경제부, SMEs협력부와 협동하여 PPEP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PPEP는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협력을 통해 **가족경제활동활성화계획 (P2WKSS)**과 **지방산업 (Cottage Industry) 활성화**를 통한 여성과 가족의 경제력 및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PPEP는 MoWECP와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특히 빈곤층 가정의 교육 및 복지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고용을 증진하려는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노동법 No.13/2003”은 생리휴가 (1달에 2일), 출산휴가 (출산 전후 각각 1.5개월), 유산휴가 (1.5개월), 근무 중 모유수유 시간 등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무지 내 모유수유 공간 확보를 위해 2008년 MoEMCP, 인적자원부, 보건부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외에도 정부의 규제조항 ‘PP No.8/1981’는 “동일 업무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

59) PDI-Perjuangan (Megawati Soekarnoputri 당수), PNI-Marhaenisme (Sukmawati Soekarnoputri 당수), Partai Pelopor (Rachmawati Soekarnoputri 당수)

60) 인도네시아 명칭은 Kaukus Perempuan Parlemen Indonesia (the Indonesian Women's Parliamentarians Caucus)이다.



자료. MoWECP 내부자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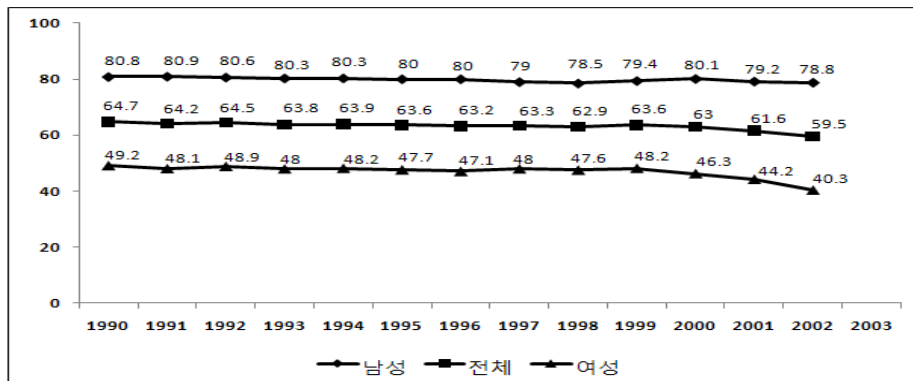
[그림 Ⅲ-4] PPEP 구조 및 체계

2) 현황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를 보면, 농업 생산량이 GDP 상으로는 15%에 해당하지만 약 40%의 노동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인구 중 80%가 SMEs에 종사한다. 여성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주로 농업(45%)과 서비스업(41%)에 종사하고 있다. 2009년 총 경제활동 참가율은 67%였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9% (남성의 경우, 83.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여성의 완전 실업률은 2009년 기준 8.47%로 남성의 7.5%보다 높았다. 이는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가 되는 비율이 높고, 남성 채용의 기회가 더 많으며, 또한 자영업자나 가사 일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 중 67%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JICA, 201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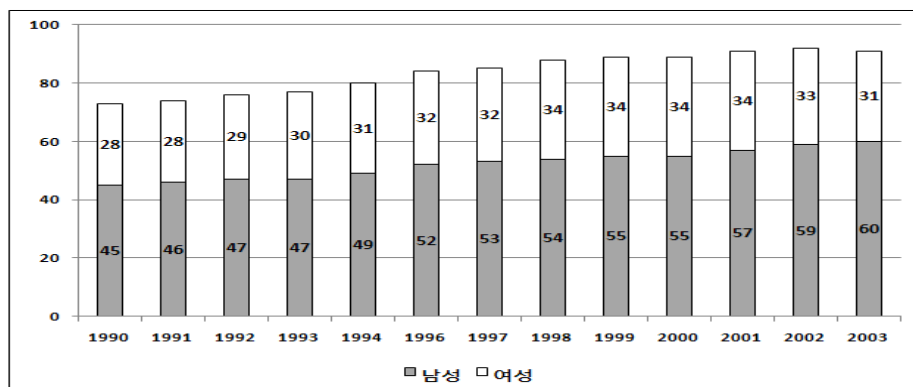
아울러 무보수 노동자의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는데, 총 여성노동인구의 33%가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비농업 부문 여성의 유급 고용비율은 29% (780만명, 2004)에서 33% (1,050만명, 2009)로 증가했지만, 여성 대부분이 종사하는 농업의 경우 동일기간동안 여성 유급 노동자의 수가 40만명

정도만 증가했다 (2004년 50만 명에서 2009년 90만 명으로 증가).



자료. ADB, 2006a

[그림 Ⅲ-5] 성별 경제활동 참여율 (1990~2002년,%)



자료. ADB, 2006a

[그림 Ⅲ-6] 성별 고용 성장 추세 (1990~2003년)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여성 중 비정규직 비율은 64.5% (남성의 경우, 59.3%)이다. 2000~2003년 동안 내 공무원 은 38%, 고위 관리직의 14%만이 여성이며 여성 공무원 (1천 9백만 명)의 경우 대부분 교원이나 간호 등 복지 분야에 종사한다. 또한 여성 정규직 근로자 채용 기회는 지역에 따라 그 격차가 증가되어왔는데, 특히 지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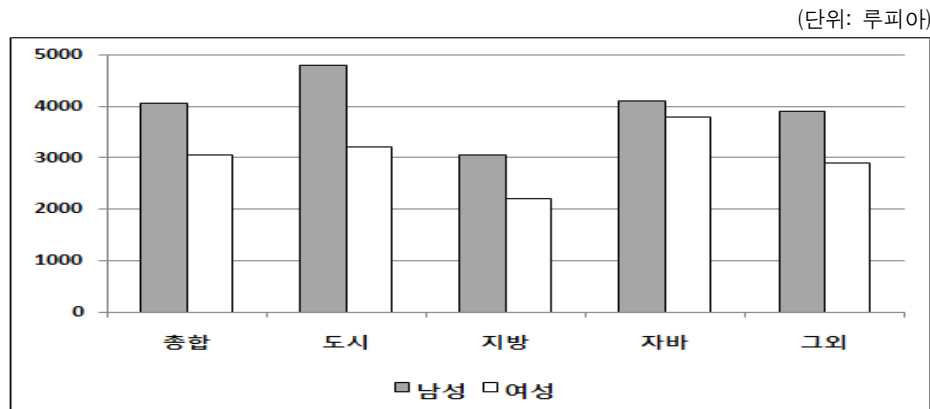
1997~2003년 사이 여성 정규직 근로자 채용 기회는 50%나 감소되었다 (JICA, 2011, 29; UNICEF, 2010, 14).

〈표 Ⅲ-16〉 부문별 남녀 고용비율 (2010년)

부문	고용				전체	비율 (%)
	남성 (명)	남성 (%)	여성 (명)	여성 (%)		
정부기관	2,257,408	NA	1,825,952	NA	4,083,360	NA
민간기업	NA	NA	NA	NA	NA	NA
자영업	13,105,087	19%	7,351,648	17%	20,456,735	19%
무보수	5,754,062	8%	13,922,330	33%	19,676,392	18%
전체	65,969,742	100%	41,435,830	100%	107,405,572	100%

자료. JICA, 2011; UNICEF, 2010

인도네시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증가하고 있다 (사무직 여성임금의 경우, 2004년 677,000루피아에서 2009년 1,098,000루피아로 증가).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남성 근로자 임금의 78% 수준에 불과하였고, GNI 중 여성 소득의 비율은 30%에 해당한다 (JICA, 2011, 29). 이러한 남녀소득격차의 원인은 교육 수준과 고용에 있어서의 성차별이었으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의 성차가 심하고 여성의 승진 기회가 제한되었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 누사탕가라(Nusa Tenggara) 지역 여성 임금은 남성의 58%인데 반해, 술라웨시 우타라 (Sulawesi Utara)지역은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JICA, 2011, 30; UNICEF, 2010, 17).



자료: ADB 2006a

[그림 Ⅲ-7] 시간당 성별 임금 격차 (2004년)

3)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장애요인

인도네시아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직장 업무와 가사 노동 과중으로 정규직 근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여성의 총 노동 시간은 주당 40~60시간 (40%+)으로 동일 기준 남성보다 6~8시간 초과 근무하고 있다. 노동법도 고용인의 여성 구직자에 대한 선호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법 No.13/2003’에 의하면 여성 노동자의 경우 사전 통지가 있는 경우, 생리통에 의한 1~2일 휴가 인정하고 출산 전후 1.5개월, 결혼 후 1.5개월의 유급 휴가 보장하며 업무 시간 중 여성 노동자의 모유 수유를 위한 휴식 인정한다 (ADB, 2006a, 11-12). 또 공무원 휴가 및 휴직에 관한 1976 정부 규제를 보면 출산 전 1개월, 출산 후 2개월의 유급 휴가(급여전액수령) 보장하는데 실제 업무 상황에서 출산·결혼 휴가가 보장되기 보다는 여성 근로자 해고가 잦다.

이 외에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 존엄성에 걸 맞는 고용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인도네시아가 가입한 국제조약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도 양성평등, 양도 불가능한 노동권, 고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시장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부의 실업률 감소 대책에서도 물성적(gender-blind) 경제성

장 위주 개발계획으로 여성의 정규직 진출 장애요인이나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여성 이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1995/96년 남성 대 여성 이주 노동자 비율 48:100에서 1997/98년 20:100로 변화) 특히 비숙련 여성 노동인구의 경우, 소득 증대를 위한 차선책으로 여성 이주 노동자 취업은 저임금 간병·보육, 가사 도우미, 연예 종사자 등에 국한되고 있다.

라. 여성 인권 및 여성폭력

1) 관련 법률 및 국가정책

“가정폭력 근절법 No.23/2004”⁶¹⁾는 CEDAW 비준 20년 후인 2004년에야 제정되었다. 가정폭력근절법의 성과는 ① 경찰, 사법부, 법정, 변호사, 사회 기관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②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의료 서비스 지원, ③ 비밀 유지, ④ 수사 과정 전반에서 사회 복지사의 도움 및 법률 자문 제공, ⑤ 상담 서비스 지원 등의 피해자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여성·아동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강령 (2002년 12월 30일)”⁶²⁾은 MoWECP의 주도 하에 “대통령령 No.88/2002”를 통해 제정되었다.

본 국가행동강령의 목표는 ① 인신매매 피해 여성 및 아동 보호 보장 및 관련 서비스 개선, ②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예방적 조치와 처벌 방안 마련, ③ 인신매매 관련 행위들을 제재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지속적인 개선이다. 세부목표로는 ① 법률 제정 및 집행, ②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 근절, ③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④ 여성과 아동의 역량 강화, ⑤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으로 모든 차원의 정부 및 관련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 증진이다.

61) ‘23/2004법’ 44조에 따르면, 가정 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 또는 3,0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경미하여 경제 활동에 큰 지장이 없을 때는 배우자 간에 발생한 폭력은 4개월 이하 또는 3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이외의 경우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선고 한다.

62) a 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NPA)

“반여성폭력 국가위원회 (Komisi Nasional Kekerasan Terhadap Perempuan 또는 Komnas Perempuan)”는 1998년 설립된 이래로 ① 전략적 담화를 통한 국민의식 강화, ② 법적·정책적 개선을 통해 여성폭력 철폐에 호의적인 환경조성, ③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활동으로는 ① 양질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서비스 기준 제시, ② 지역 여성폭력 피해자 수요조사 및 행동강령 관련 워크숍 개최, ③ 여성폭력철폐에 대한 민관 담화, ④ 관련 여성 단체네트워킹 및 역량 강화, ⑤ “가정폭력 철폐법 No.23/2004” 지지 등이 있다.

아울러 2002년에는 MoWECP, 환경부, 사회 복지부, 그리고 경찰청이 여성 폭력피해자를 위한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법률적, 그리고 의료 지원의 통합적 제공의 필요성을 규정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여성 폭력에 대한 범아시아적 또는 국제적 대응을 하기위해 인신매매 및 관련 국제 범죄에 대한 2차 장관급 지역 회담 (2003년 4월, 발리)을 열고 2004년 6월 13일 여성폭력철폐에 대한 ASEAN 회원국 외교부 공동 선언과 2004년 11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ASEAN의 “비엔티안 선언문” 채택하였다⁶³⁾.

2) 현황

인도네시아 여성폭력은 크게 가정폭력, 인신매매, 성폭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여성폭력 국가위원회 보고서와 여성 긴급 상담소 (Mitra Perempuan, Women's Crisis Center)의 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가정 폭력은 4,310건 (2002)에서 5,163건 (2004)으로 증가하였다 (ADB, 2006, 58; CEDAW, 2007). 이처럼 공식 보고되는 가정 폭력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공식 보고되는 사건과 실제 가정 폭력 발생 건수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⁶⁴⁾. 여성 NGO 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실제 발생 건수의 15%만 공

63) 전자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국내법 강화, 법 집행, 법체계, 법제정 및 집행 주체 간의 협력 강화, 정보 공유 및 불법 이주의 원인 분석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논의하였다. 후자에서는 여성폭력 관련 정보 수집,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방법론 구축, 성 주류화 지지,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국내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논의하였다.

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음의 <표 III-17>는 인도네시아 내 가정폭력문제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 III-17〉 인도네시아 가정폭력 현황 조사 연구

연구 주제	세부 내용 및 결과
지역별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구성원 인식조사 (UNIFEM,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부/ 동부 누사탕가라 (Nusa Tenggara), 북부 수마트라 (Sumatra), 동부 칼리만탄 (Kalimantan) 지역 대상 응답자: 남성 339명, 여성 362명 응답 결과: “배우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적이 있다 (남성 응답자 21%).”, “배우자를 학대한 적이 있다 (남성 응답자 11%).”, “맞거나 차이는 등 신체적 학대에 고통을 받았다 (여성 응답자 16%).”
가정폭력피해여성 조사 (인도네시아 보건부,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주 29,500명의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응답자 약 30%가 음식 태움, 남편과 연쟁, 남편 허가 없이 외출, 아이 양육 소홀, 남편과의 잠자리 거부 등의 이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아내에 대한 폭력이 용인된다고 답함.
가정폭력 지역조사 (ADB,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푸아 (Papua) 지역 대상 1999-2002년 사이 파푸아 내 자아위자야 (Jayawijaya) 지역에서만 구타, 칼 부림, 살인 등 총 216건의 가정폭력 발생 지역 여성들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도박을 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여성 자존감 및 가정폭력 휴유증 조사 (ADB,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혼 여성 1,100명 대상, 마카사 (Makassar) 지역 조사 결과: 응답자 대체로 낮은 자존감과 정서적 불안감을 보임. “가정 내 구금 또는 본인 의지에 반하는 굴종적 관계를 남편에게 요구 당한다 (응답자 60%).” “성적/차별적/폭력적/희롱적 학대경험이 있다 (응답자 90%).”, “가정 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응답자 40%).”

자료. UNFEM 방콕 지부, 2003; 인도네시아 보건부, 2003; ADB, 2006a

두 번째로 여성대상 인신매매 발생 경로는 마약 밀수 등 기타 불법 거래를 주도하는 국제 조직에 의해 자행되거나 경제적 이유에 의한 불법 국제 이주 경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들은 성적 또는 노동 착취, 구걸이나 입양, 위장 결혼, 불법 장기 거래로 희생되고 신체적·심리적 학대, 노동권 및 기타 법적 권리 박탈, 의료 서비스 접근 제약, 인신매매 소개업자에게 의존적인 관계 강요 등에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서부 칼리만탄 (Kalimantan)

64) 여성 NGO 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실제 발생 건수의 15%만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 폰티아낙 (Pontianak)과 엔티퐁 (Entikong) 지역, 리우 (Riau) 섬, 북부 수마트라 (Sumatra) 지역에서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납치된 인도네시아 여성과 아동에 대한 문서 조작이 자행되기 때문에 피해 집계가 매우 어렵다.

세 번째로 최근 인도네시아 내에서 여성인권 및 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시 되는 분야는 성폭력이다. 성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성폭력 특별법이 부재하고, 실제 피해 발생 시 성 차별적 형사처벌의 사례가 빈번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또한 부재한다. 더욱이 가정폭력에만 국한된 여성폭력논의와 성폭력을 개인적 문제 또는 가족문제로 치부하는 경향, 그리고 피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법체계로 인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3) 여성 폭력의 원인

가정 폭력의 원인은 ①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② 낮은 교육률과 취업률 및 제한적 의사 결정 과정 참여, 그리고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적 통제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정 폭력을 사적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여성학 연구소나 기타 공적 기관에서 다루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가정 폭력의 현황 파악 및 사회적 논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가정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서비스를 취약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여성대상 인신매매 근절 및 방지의 어려움은 일차적으로 인신매매 규모와 진행 과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 수집의 어려움이다. 인신매매는 불법 이주 노동이나 국제 범죄조직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문서나 기록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인신매매 발생의 원인은 빈곤, 취업 기회 부족, 부모의 생활고 등에 의해 피해자가 소개업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도록 하는 사회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사회적 환경 (UNAID 2003년 발표)으로 낮은 출

생 신고 비율 (2000년 기준 인도네시아 5세 미만 아동 중 37%는 출생 신고 미등록)로 인한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미등록자 발생과 피해여성의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한 제한적 취업 기회, 사기 계약 시 문서 이해 부족이 있다.

인도네시아 여성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논의와 시민사회 조직화는 가정폭력에 치중된 면이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에만 국한된 여성폭력논의로인해 성폭력 등 다른 중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성폭력을 개인 또는 가족 문제로 치부하고 공론화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피해 여성의 상담이나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사법체계 내에서도 여성 또는 젠더적 시각을 가진 입법자나 판사, 변호사의 부족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물이해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여성폭력과 관련된 통계 집계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여성 폭력 집계가 어려운 이유는 ① 여성 폭력 정의가 사회문화적 관습에 따라 다르며, ② 오직 소수의 여성폭력 사례만이 공식적으로 보고되고, ③ 여성 폭력은 대개 사적 문제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마. 여성/여아 교육

1) 관련 법률 및 국가정책

인도네시아 공교육은 “교육법 No.23/2003”과 헌법, 그리고 건국이념인 “펜차실라 (Pancasila)”에 명시된 교육권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7~15세의 모든 시민은 기초교육 이수 의무를 가지며, 공교육은 ① 종교적 신념과 관심, ② 국가 교육주체, ③ 민주주의, ④ 사회 정의에 기초하여 시행된다. 교육체계는 초등교육 (6년), 2차 교육 (1차 3년, 2차 3년), 고등교육, 그리고 비정규 교육으로 나뉜다. “교육법 No.23/2003”은 현재 “공교육전략계획 (Strategic National Education Plan, 2010-2014)”⁶⁵⁾에 의해 특히 아동교육, 의무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그리고 공교육 행정 개선에 초점을 맞춰 이

65) ‘공교육전략계획 2005-2025’의 2차 시기에 해당하는 중기계획이다.

행되고 있다.

교육에서의 성별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은 <표 III-18>과 같다. “교육법 No.23/2003”에 여성역량강화는 비정규교육부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공교육전략계획 (2010-2014)”에서 비정규 교육부문 50%이상의 성 주류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III-18> 교육 서비스 성별격차 감소를 위한 국가정책과 법률

정책 또는 법률	젠더 관련 내용
교육법 No.23/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조항) 유아교육, 생활기술, 아동교육, 여성역량강화, 그리고 문자 교육 등을 비정규 교육분야로 규정
공교육전략계획 2010-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상의 비정규 교육분야에서 성 주류화 달성 • 성 주류화 활동은 i) 성별통계수집, ii)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 모델 개발, iii) 지방정부 차원의 성 주류화, iv) 젠더 교육 도입, v) 성평 등 정도 평가로 진행
공교육전략계획과 중기 국가개발계획 (2010-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교육의 성별격차 감소 • 2차 공교육기관에서의 성교육 관련 법안 초안 작업
교육부 규정 No.35/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교육 의무이수와 문맹 근절 (2015년까지 식자율 95% 달성)

자료. JICA, 2011

2) 현황

인도네시아의 남녀 교육 격차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교육기간이 남성은 8.24년인 것에 비하여 여성은 7.32년 (2011)이다. 또한 여성의 문맹률은 남성의 2배에 달한다⁶⁶⁾. 아울러 고등 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성별 격차가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 여성의 3차 교육 기관 등록률이 5.6% (1993)에서 8.3% (2003)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JICA, 2011, 18). 여전히 10세 이상 여아의 13.5%가 공교육을 받지 못하고

66) 인도네시아 15세 이상 국민의 식자율은 2009년 기준으로 92.58%로 상당히 높지만, 남15세 이상 남성의 식자율이 95.65%인데 반해 15세 이상 여성의 경우 89.65%이다. 지방의 경우, 남성 식자율 93.46%, 여성 식자율 85.62%로 성별격차가 더 커진다 (JICA, 2011, 19).

있다 (10세 이상 남아의 경우 5.9%).

〈표 Ⅲ-19〉 지역별 남녀 학교 등록률 (2003년, %)

교육수준	남성			여성		
	도시	지방	전체	도시	지방	전체
초등교육	92.3	92.6	92.7	92.0	93.0	92.8
2차 (중등) 교육	72.5	56.2	60.9	73.0	58.8	62.5
2차 (고등) 교육	56.9	28.5	38.8	55.2	29.0	37.7
3차 교육	16.0	2.1	9.2	14.9	2.1	8.3

자료. ADB, 2006a

인도네시아 국가통계청(BPS)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초등교육 전체 등록률은 94.37%이고, 남학생은 94.49%, 여학생은 94.24%로 성차가 거의 없다 (JICA, 2011, 18). 또한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도 거의 없다 (도시 94.4%, 지방 94.3%). 지역 간의 격차는 아직 있으나, 파푸아 (Papua)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90% 이상의 초등교육 등록률을 보인다. 2차 교육 중 중등교육의 총 등록률은 67%이고, 남학생은 66.7%, 여학생은 68.1% (2009년)로 여학생의 등록률이 더 높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경우 총 등록률이 45.1%, 남학생이 45.9%, 여학생이 44.2%로 남학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더 높았다. 또한 고등교육 등록률의 경우 도시와 지방의 격차도 커졌다 (도시 52.8%, 지방 37.6%).

이처럼 3차 교육을 제외하고는 남녀 격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성 평등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등 교육일수록 성별의 격차가 증대되고 있다. 2010년 CEDAW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성의 3차 교육기관 등록률이 1993년 5.6%에서 2003년 8.3%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여성의 고등교육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통계청 (BPS)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도네시아 국민의 식자율은 92.58% (2009년)이고, 15-24세 청년층의 식자율은 지역에 상관없이

98% 이상이다 (JICA, 2011, 19). 그러나 15세 이상 남성의 식자율이 95.65% 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 89.68%에 그치고 있어 남성의 두 배에 달하는 문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남녀 식자율의 격차가 더 크다 (남성 93.46%, 여성 85.62%).

중등교육 이수자가 지원할 수 있는 직업교육(공교육)과 관련하여 전공 선택 시 성차가 두드러진다. 남학생의 경우 자동차, 건설 등을 선택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전기, 요리, 패션디자인 등을 선택한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직업 선택은 이후 사회에서의 직업별 성비 격차로 연장된다 (자동차, 건설 등에 남성 근로자 비율이 월등히 높고, 요리, 디자인 등에서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음).

인도네시아 교육에 있어 성차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체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교원 비율은 공립학교는 49%, 마드라사(Madrasah) 학교가 38%였다. 특히 고등교육 기관일수록 남성 교원 비율과 성차는 증가하였다. 1차 초등교육 기관의 경우, 여성 교원 비율이 공립학교 54%, 마드라사 학교 45%를 차지하며, 2차 중등교육 기관은 공립학교가 45%, 마드라사 학교 33%를 여성 교원이 차지하고 있었다. 2차 고등교육 기관은 공립학교 39%, 마드라사 학교 32%를, 3차 이상 교육 기관의 경우 남성 교원이 69%를, 여성 교원은 31%에 불과하였다.

3) 여성/여아 교육 서비스 개선의 장애요인

여성의 3차 교육 기관 등록률이 낮은 원인은 교육 기관의 지리적인 위치와 여성의 조혼 때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여성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이유는 종교적인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 다수의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딸을 정부 종교부 산하 이슬람 계통의 중고등 교육기관인 마드라사 (Madrasah)에 등록하기를 선호한다. 이슬람 교육 기관은 일반적으로 일반 공립학교보다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 등/하교길에서의 성폭력이나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부모가 여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기 쉬우며 여성의 인성교육에 종교수업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마드라사에 등록하는 여학생의 비율이 증가한다 (2차 고등 교육과정의 무

드라사에 등록하는 여학생 비율 55%). 그러나 마드라사는 평균적으로 일반 공립학교보다 교육 서비스의 질 (시설, 교원 등)과 수익 면에서 열등하다. (UNICEF, 2010, 10-13).

인도네시아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과 여성의 교육 수준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빈곤지역 4군데에서 행해진 아시아개발은행의 소규모 참여적 빈곤 평가에 따르면, 빈곤계층의 경우 교육비용에 부담을 느껴 2차교육부터 여아의 학업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성 격차보다는 경제력에 따른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⁶⁷⁾. 이는 최상위 계층의 자녀 학교 등록률이 72%임에 반해 최빈층 계층의 자녀 학교 등록률은 50%에 그침을 통해 알 수 있다. 단, 소득별 5단계 계층 중에서 최빈층 교육 등록률에는 성차가 없지만, 최상류층의 경우에는 특히 2차 교육 과정에서 남성의 등록률이 우세함을 보였다 (전체 교육과정에 해당).

교육 간 성차는 등록률보다 중퇴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균 교육 기간의 성차는 요그야카르타 (Yogyakarta)와 발리 (Bali) 지방에서 1.7년, 파푸아(Papua) 지방에서 1.5년, 서부 누사탕가라 (Nusa Tenggara) 지방에서 1.4년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여성의 평균 교육 기간은 파푸아 지방 5.1년, 서부 누사탕가라 지방 5.2년, 동부 누사탕가라 지방 5.6년, 서부 칼리만탄 (Kalimantan) 5.8년, 중앙 자바(Java)와 동부 자바 지역 각각 5.9년으로 집계된다 (ADB, 2006, 19-21).

바. 여성/여아 보건

1) 관련 법률 및 국가정책

“보건법 No.23/1992”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보건의식개선과 지역 보건기

67) 최상위 계층의 자녀 학교 등록률이 72%임에 반해 최빈층 계층의 자녀 학교 등록률은 50%에 치고 있다. 반면, 교육과정 등록율의 남녀 격차는 경제력에 따른 격차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 (초등교육 남학생 94.4%/ 여학생 94.2%, 2차교육 남학생 66.7%/ 여학생 68.1%, 3차교육 남학생 22%/ 여학생 20%) (ADB, 2006a, 19-21).

관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9년 “건강한 인도네시아를 위한 보건개발계획 2010 (Health Development Plan towards Healthy Indonesia 2010)”이 도입되었다. 본 계획의 목적은 ① 보건상태 개선, ② 전염성 질병률 감소, ③ 비전염성 질병 예방 프로그램 도입, ④ 보건부문 공공예산 증가, ⑤ 낙후지역인적자원 증가이다 (JICA, 2011, 21). 특히 젠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1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 위원회를 통해 보건부문 성 주류화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보건부는 성인지 예산 시범부서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영양과 관련하여 “식품영양전략 실행계획 (Food and Nutrition Action Plan, 2006-2010)”과 “인도네시아 보건전략계획 (A Strategy Document-Indonesia Health 2010)”을 통해 영양과 산모건강을 개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족계획을 국가개발계획의 우선순위로 지정해 인구증가 조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계획 하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MDG 목표 5를 달성하기 위해 2014년까지 ① 피임률을 65%까지 증가하고, ② 십대 임신을 1,000건당 35에서 30건으로 감소하며, ③ 비계획적 임신을 5%로 감소하고, ④ 지역간 보건 서비스 격차 감소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 현황

출생 시 기대수명은 남성은 68.8세, 여성은 72.7세 (2009)이고 산모 및 영아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염성 질병이 여전히 문제시 되고 있다 (매일 25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말라리아와 Dengue 감염비율도 높음, WHO, 2010). 5세 이하 영양실조 비율도 줄고 있지만 2007년 기준으로 여전히 18.4%를 기록하고 있다 (JICA, 2011, 22). 특히 15~49세 여성의 13.6%가 만성적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WHO,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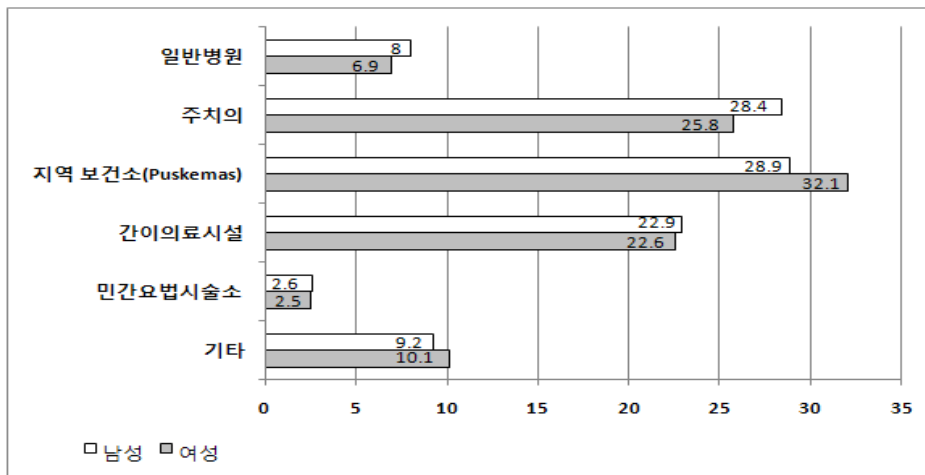
<표 III-20>은 MDG 목표 3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국내 여성/여아보건 개선 사항이다. 소득에 따른 보건 서비스 접근성은 1차 응급진료 총지출 구성비에 있어 소득 상위 20%가 36%, 최하 20%가 10%, 중산층 60%가 54% (BAPPENAS, 2004, 56)로 격차가 크다. 그러나 보건서비스 접근성 성별격차는 [그림 III-8]에서 보는 것처럼 의료시설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병원이나

주치의 부문에서는 여성이 조금 낮고 지역 보건소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질병 발생률에 있어서도 2000년에 여성 25.9% 남성 25.2%, 2002년에 여성 26.8% 남성 25.7%로 성차는 미미한 편이다.

〈표 Ⅲ-20〉 인도네시아 MDG5관련 개선사항

MDG 5. 임산부 건강 개선	지표	1992	2002
(목표 6) 1990-2015년 사이 임산부사망률을 3/4 수준으로 감소	임산부 사망건수 (정상출산 10만 건당)	390.0 (1994년)	307.0
	전문 의료진에 의한 출산비율 (%)	40.7	68.4
	15-49세 기혼여성 피임 이용 비율 (%)	50.5	54.2

자료. ADB, 2006a, WHO, 2010



자료. ADB, 2006a

[그림 Ⅲ-8] 보건 서비스별 남녀 접근성 (2002년)

산모 건강 관련 보건 서비스는 여전히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낙 후되어 있지만, 산모 사망률이 매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00,000건의 정상 출산 당 1995년 334건, 2000년 307건, 2003년 230건, 2007년 228건의 산모 사망 발생⁶⁸⁾). 그러나 청소년기의 산모는 20세 이상 산모보다 출산

시 사망률 2-4배(the Johns Hopkins Centre Communication Program 2003)에 이르고 있고, 지역별로는 낙후 지역인 파푸아 (Papua) 지방에서 100,000건 출산 당 1,025건의 산모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 의료진의 집도 하에 출산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 2009년 77.3%에 달했지만 여전히 지역 간의 격차가 크다 (자카르타의 경우 98.1%, 말루쿠 지역 45.2%). 또한 2007년 기준으로 전문 병원에서의 출산 비율이 높고 있는 반면, 여전히 과반수 이상이 집에서 출산하고 있다. 특히 임신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거주지가 지방일수록 의료시설 이용비율이 감소했다 (2007년 도시지역 70.3%, 지방 28.9%, 고졸 이상의 여성 81.4%, 중졸 28.2%).

총 출산율은 198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 3%, 1990년 2.2%) 그러나 인도네시아 피임률 이용은 2002~2003년 60% (인도네시아 인구 보건 조사)에서 2004년 63% (국가 사회-경제 조사⁶⁹⁾)로 증가 속도가 더디다. 또한 피임 기구 이용율이 낮고 성차가 크다 (여성 61%, 남성 3%). 특히 남성 중 0.5%만이 불임 수술을 하고 남성 중 콘돔 사용 비율 0.5%⁷⁰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별 격차도 커서 벵쿨루 (Benkulu) 지역은 피임률이 70%에 달하지만, 말루쿠 (Maluku) 지역은 34.1%에 그치고 있다. 주요 피임법은 주사 (32%)나 피임약 복용 (13%)이고, 콘돔 이용률은 1.3%에 그친다 (JICA, 2011, 22).

‘인구개발계획 및 가족계획법 10/1992’이 있지만, 법적 기혼여성에게만 가족계획 및 피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임 여부 결정권이 있는 남성 대상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연간 7만 5천~160만 건의 낙태 수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법 23/1992’은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만 전문 의료진의 제한적 낙태 수술 허용”하고 있다. 15-19세 청소년기 임신은 1991년 1,000건당 67건에서 2007년 35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역격차가 크고, 특히 도시지역 청소년 임신에 의한 낙태 건수는 증가되고 있다.

68) 참고로 베트남은 2003년 100,000건의 정상 출산 당 130건의 산모 사망이 발생하였다.

69) SUSENAS: Indonesia National Socio-Economic Survey, 2007

70) Indonesia National Socio-Economic Survey, 2007

3) 여성/여아 보건 서비스 개선의 장애요인

높은 산모 사망률의 원인은 지역과 소득 계층 간의 격차, 높은 청소년 임신 비율, 그리고 의료시설 및 기술 부족이다. 지역 간 산모사망률 격차를 보면 100,000건 정상출산 당 파푸아 (Papua)지역 1,025건, 말루쿠스 (Malukus) 지역 796건, 서부 자바(Java) 지역 686건이다. 이는 분권화와 지역 간 인적·물적 자원 분배의 불균등 때문이다. 고급 인력의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해 2000년까지 전문 의료진이 출산 시 대기하는 경우의 총 평균은 63%에 그치고 있으며,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소득에 따른 보건서비스 수혜의 격차도 발생한다. 빈곤층 여성의 경우 오직 21%만이 전문 의료진의 집도 하에 출산하고, 대부분의 경우 산파의 도움으로 집에서 출산한다.

여성의 피임 이용 장애요인은 가족계획 서비스의 질이 낮고 이용이 어려운 점, 피임정보 부족, 가족이나 남편의 반대, 임신 위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이 있다. 국가 조사 자료에 따르면, 특정 지역 낙태 건수 중 80%가 기혼 또는 미혼 여성의 계획되지 않은 임신 또는 남성의 양육 및 경제지원 거부 때문임이 나타나있다.

사. 여성 농업인과 식량안보

1) 관련 법률 및 국가정책

2005년 정부는 “농업, 어업, 임원의 부흥 (Revitalization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을 위한 칙령을 발표하고 국가발전계획의 우선순위로 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와 국제시장에서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부문 중기국가정책체계 (NMTPF: National Medium-Term Policy Framework for Indonesia's Agricultural Sector, 2010-2014)”가 도입되었다 (JICA, 2011, 25). NMTPF는 인도네시아 농가 가장 중 20%가 여성가장임을 밝혀 농업 정책에 젠더적 관점을 도입하는 데 일조했다. 이 외에도 2000년 성 주류화 국가발전계획이 발표되면서 농업정책에도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었다.

“국가농업발전전략”은 거버넌스, 지역사회 구조적 개선, 그리고 여성과

커뮤니티 역량강화를 목표로 여성 농업인에게 자원, 교육, 농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업부는 2009년부터 성인지 예산 시범부서로 선정되었다. 더불어 “결혼법 No.35/1974”의 35조는 결혼기간 취득한 토지 및 자산의 공동소유를 명시하고 있다⁷¹⁾. 아울러 공공사업부는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PNPM: National Community Empowerment Programme)”의 일환으로 환경 인프라 개선 및 수자원 등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농촌지역 여성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JICA, 2011, 26).

2) 현황

BAPPENAS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우 하루 일당 1.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계층을 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빈곤계층은 13%이고, 16개 주의 빈곤층 비율은 13%보다 높다(파푸아 지역의 경우 36%). 또한 빈곤층 비율은 도시지역 (9%)보다 농촌 지역 (16%)이 더 높으며 빈곤층의 63%가 농촌 지역에 거주한다 (JICA, 2011, 26). 따라서 농업부문 개발과 발전은 인도네시아 빈곤층 역량강화와 MDG 1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여성은 농업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농업 부문 노동력 인구비율 중 61%가 여성이며 이들은 쌀 생산 관련 농장 작업의 75%를 담당하고 있다 (FAO, 2007). 그러나 농촌지역 여성은 도시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식수원이나 전기 등 기초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교육의 기회가 적으며 경제활동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권한이 낮다. 마을 단위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노동 시간은 남성보다 대체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1.1시간으로 남성의 8.7시간보다 김).

인도네시아의 높은 인구 밀도와 불평등한 토지 소유제로 인해 농촌 지역 주민들은 농업이외의 소득 수단을 찾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농촌 여성들도 농사 이외의 소득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여성은 가축을 기르거나, 영세사업 운영, 정원 손질, 텃밭 일구기 등의 부업

71) ADB (2006)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자산 공동 소유권이 잘 실행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남편 명의로 토지나 자산이 등록된 경우가 많다.

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가족계획청 (BKKBN)과 마을협동조합 (KUD)의 후원에 의한 KUB (Kelompok Usaha Bersama)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여성들에게 소액 대출의 형식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농촌지역 여성과 여아는 가족의 식량 보장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추가적 노동을 해야 되었다. 이는 당시 경제위기 직후 전업 주부의 비율이 2.7% 줄고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8%에서 4.2%로 증가한 데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여성들의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발언 권한을 강화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 밖에서는 농촌 지역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여성은 농촌 지역 개발 프로그램, 지역 의회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고, 이들의 대표성 또한 약하다. 또한 세계개발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 지역 여성의 경우 사회규범과 관습법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쌀농사에만 치중하여 농업 종사자 대상 연수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텃밭이나 가축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은 이러한 연수나 지원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농촌 지역 여성의 경우 가족의 소득원 공급을 위한 책임은 과중되어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지역 주요 생필품에 대한 접근성에도 ‘성차별적 요소’도 존재하고 있다. 남부 술라웨시 (Sulawesi) 지역의 경우, 주요 작물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접근권과 통제권을 가지지만, 고소득 직종인 다년생 환금 작물과 대규모 가축에 대해서는 남성만이 접근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여성은 오직 접근권만을 가지고 있다 (World Bank, 2005, 5-9).

어업과 임업의 경우 각각 농업의 16.1%, 6.1%를 차지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대부분 어부의 아내이거나 딸인 경우가 많으며 주로 양식이나 어시장에서 수확물을 판매한다. 어업 및 해양부 (Ministry of Fisheries and Marine Affairs)는 해안가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초양식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농업발전전략 (2010-2014)”은 어업 종사 여성과 청년층에게 기술 지원, 소액대출 등을 하고 있다. 임업과 관련하여 FAO의 현황분석

에 따르면 임산물의 대규모 농작과 판매가 급증하면서 여성들이 식수, 땀감, 식량 등을 숲에서 채집하기 어려워졌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레몬그라스 등의 산림 자원을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4. 크로스-보더 (Cross-Boarder) 이슈

가. 지역개발과 젠더

인도네시아는 1999년 “지방 자치법 No. 22/1999”와 “지방정부 재정 개선법 No. 25/1999”가 통과된 이래로 국가 행정, 재정 등의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행되는 전면적 분권화 과정을 거쳤다⁷²⁾. 분권화가 지역단위의 자치권을 강화하면서 샤리아 (Shari'a)와 아다트 (Adat) 등의 성차별적 관습과 문화가 특정 지역에서 재조명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2002년 아시아재단 (Asia Foundation)에서 15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53%의 여성이 지방 정부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났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ADB, 2006a, 37). 실제로 몇몇 지방정부들은 여성을 지역사회의 주요 이해당사자로 인식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⁷³⁾. 아울러 예산편성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됨으로써 여성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 기회도 증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간의 격차는 크다.

이러한 분권화의 맥락에서 지역사회 개발운동 또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PNPM (Program Nasional Pemberdayaan Masyarakat)⁷⁴⁾의 일환인 KDP

72) 지방자치법 No.22/1999는 지방행정법 No.32/2004로, 지방정부 재정 개선법 No.25/1999는 No.33/2004로 개정되었다.

73) 수마트라(Sumatra) 남부지역 지방정부는 여성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여성개발 지표를 개발했고, 칼리만탄 (Kalimantan) 남부지역 지방정부는 여성역량강화사업부를 만들어 지역 여성의 니즈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젠더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74) PNPM은 지역사회 빈곤근절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6년부터 도입한 지역 커뮤니티의 자발적 개발참여 지원 프로그램이다. PNPM은 각 지역사회에서 적용

(Kecamatan Development Program)⁷⁵⁾은 특히 여성 지역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역량강화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지역사회 개발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KDP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개발의 수혜자로서 정당하게 권리를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KDP를 통해 정부에 제안하는 마을 개발계획 중 하나는 반드시 여성으로부터 제안되도록 규정하여 지역 여성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다. 아울러 여성들의 개발계획제안서 작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제공한다. 사업 실행 및 사후관리단계에서의 업무 분담 역시 성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남녀 균등하게 나누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진 목표를 세우고 케카마탄 회의 초대장에 Mr.와 Mrs.를 병기하거나, 여성의 노동 시간을 고려하여 이 외의 시간에 회의를 잡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달성해 나간다.

아울러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케카마탄 단계의 회의 (6마을 참석)에서 적어도 3명의 마을 대표가 여성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고, 케카마탄 프로젝트 담당 지역관인 FD (fasilitator desa)선출 단계에서도 최소 2명 이상의 여성 FD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D로 선출된 여성이 지역문화와 관습에 의해 정규 훈련과정에서 주도적 참여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 FD를 위한 특별 수업을 제공하여 이들의 업무수행능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케카마탄 지역회의 중 브레인 스토밍 및 사회화 과정 참가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 (Guggenheim, Scott E., 2003b, 25)하고, 이들의 KDP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덧붙여서 개발계획제안서 준비와 선정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의견

되는 빈곤대처프로그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역사회에 대한 원활한 보조금 지급 및 지원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PNPM은 도시 빈곤 근절 프로그램인 UPP (the Urban Poverty Project)와 농촌지역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KDP (Kecamatan Development Program)로 구성된다.

- 75) KDP는 내무부의 지역사회 개발협력팀 주도로 독일, 일본, DFID, World Bank 등의 협력 하에 1998~2008년 동안 총 3기에 걸쳐 160억달러 규모로 전국 케카마탄 (면/읍 단위)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이다. 2008년부터는 국가주도 농촌 자립형 지역사회 개발프로그램 (Program Nasional Pemberdayaan Masyarakat Mandiri Pedesaan/ PNPM Mandiri Pedesaan)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사업 목표는 빈곤층과 여성의 참여 증대와 지역 분권화 및 권력이양이다.

수렴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KDP는 여성 대상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이 일상적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예상치 못한 경기변동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여성의 경제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바탕 (Banten) 주 씨 쿠셀 (Cikeusal) 케카마탄 지역의 소액대출프로그램은 대출금 상환이 끝난 여성에 한해 2007년 무슬림 최대 명절인 이돌 피트리 (Idul Fitri) 기간 동안 폭등한 생필품 가격을 보조해주었다. 또한 동일 지역 KDP 부서는 교통비 등의 소소한 지출에서부터 재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등 다방면에 걸친 여성의 경제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나. 여성의 자원 접근성

인도네시아 여성의 물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종교와 문화적 이유로 제한적이다.

1) 토지 접근성

토지 거주권 농촌의 경우, 토지에 대한 접근성과 통제권은 식량 생산, 소득창출,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식수/관개/목재 등 기타 자산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있어 증대된 토지 거주권은 그들의 가정 내 협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제한적 토지 소유권과 재산권만을 여성에게 부여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내 또는 딸의 신분으로서만 토지 접근 권한이 부여되며, 사별/이혼/처자유기/남성 이민의 경우 자동적으로 여성의 재산권과 토지 소유권이 박탈된다. 토지 상속권은 무슬림의 경우 이슬람 율법(1991)을, 그 외의 경우에는 민법(1847)을 따른다 (ADB, 2006, 17).

- 이슬람 율법 (1991) -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사별의 경우 부부 재산의 절반을 아내가 상속받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 구성원 당 재산 분할 몫에 대한 규정이 복잡하여 여성이 실제 상속받는 양은 더욱 줄어든다⁷⁶⁾.

- 민법 (1847) - 기본적으로 남녀 동일한 상속분을 보장하고 있지만, 각 지방의 관습법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관습법 중 여성 소유의 토지를 여성 친인척에게만 상속하도록 보장하는 경우는 없다.
- 자산 공동 소유권 - ‘결혼법 35/1974’에 의하면 결혼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법의 집행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부분의 자산은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1998년 기준, 자산 등록 비율은 여성 명의 30%, 남성 명의 65%, 공동 명의 5%).

〈표 Ⅲ-21〉 결혼 후 토지 등록 명의 (2002년, Java 지역, %)

토지 종류	아내 명의	남편 명의	공동 명의
도시	14.3	76.9	1.7
근교	27.4	67.4	2.8
도서산간	20.4	66.7	1.0

자료. ADB, 2006a

2) 금융 서비스 접근성

인도네시아 인구 중 20%가 영세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들 중 오직 25%만이 은행 등 제 1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세사업자 중 50%가 여성이고, 영세사업 고용인 중 70% 이상이 여성이다 (ADB, 2006a, 5-7).

여성의 영세 비즈니스 활동은 활발하지만, 지난 20년 간 주요 금융기관의 여성 고객 숫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는 여성의 신용거래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 라크예트 (Rakyat) 은행의 경우, 소액 대출/예금 거래 중 25%만이 여성 고객이다 (World Bank, 2005b, 53). 기혼 여성의 신용 거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성차별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 민

76) 유언장에 따른 상속인 간 합의가 없는 이상 사별한 여성은 자녀가 없는 경우 남편 재산의 1/4를, 자녀가 있는 경우 1/8를 상속 받고, 딸은 아들의 상속분의 1/2를 상속받는다.

법 108조에 의하면 거래 시, 기혼 여성의 단독적 계약을 금지하고 남편의 보증이 있어야만 금융 거래를 허하고 있다. 또한 기혼 여성의 경우 본인 명의의 납세자 번호 등록 불가능하고 남편 명의의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예금 계좌 생성 등 기본적 금융거래에서조차 기혼 여성의 접근성이 낮다 (IFC-PENSA, 2006, 21-22).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금융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성별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별 평가를 위해서 여성 신용거래에 대한 양적 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신용 거래와 소득 증대 활동에 대해 여성이 얼마만큼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증대된 가정 소득의 지출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의 질적 방법론에 기반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나. 여성 이주 노동자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젠더 및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법과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이주노동자과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 조약 비준 (2004년)”
- “이주노동자보호 및 취업알선법 No. 39/2004”
- “대통령령 No.81/2006” - 이주노동자 보호 및 취업알선 담당 국가 기관을 설립하고, 이주 노동자 최소 연령을 21세, 최소학력을 중졸로 규정함
- “대통령령 No.106/2004” - 강제 추방된 이주 노동자 지원
-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인도네시아 노동자와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본국 송환 지원
- 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소속 이주노동자 및 피해자 지원팀을 구성하여 심리사회학적 상담과 재활 지원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주 노동자 보호와 인권을 위한 ASEAN 선언 (2007년)에 동참하는 등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와 MOU를 맺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여권 소지를 가능케 하고,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1980년 이전에는 국제 이주가 거의 없었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4년 기준 총 이주 노동자는 400만 명 (총 노동인구의 4%)에 달했고, 매해 유출되는 약 38,700명 중 여성이 70% 이상이다 (UNIFEM, 2009, 67). 인도네시아는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로 아시아에서 가장 노동력 유출이 심한 나라 중 한 곳이 되었다. 2006년 해외이주 여성의 도착국가는 싱가포르 (600,000명), 사우디아라비아 (600,000명), 말레이시아(250,000명) 등 가사 노동이나 보육 등에 수요가 많은 국가였다 (JICA, 2011, 30). 인도네시아 정부 집계에 의하면 이주 노동자가 종사하는 주 업종은 가사 노동 (23%), 제조업 (36%), 농업 (26%), 건설 (8%) 순이고, 국제 이주는 주로 경제적 이유 (일자리, 소득 창출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ADB, 2006a, 70; IOM, 2003). 이주 노동자들은 이주기간 중 노동력 및 성적 착취와 귀국 후 재정착과정에서의 남편과의 불화 등에 노출된다.

이주 노동자의 성비 (남성 : 여성)는 100:48 (1995~96)에서 20:100 (19997~98)으로 변화하였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급감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취약한 여성 노동력의 해외 유출이 상대적으로 심화되었다. 2004년 기준으로 이주 노동자 중 80%가 여성이었으며, 여성 이주 노동자 중 95%가 비정규직 가사 도우미나 보육/간병인으로 근무하였다. 이주 지역은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지이다 (IOM, 16-17). 해외 가사 노동이나 보육/간병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이주 시 기대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⁷⁷⁾ 때문에 특히 어리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지방 출신인 여성들이 해외이주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77)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자카르타 20만-50만 루피아, 사우디아라비아 120만 루피아, 홍콩 420만루피아 (World Bank 미공개 연구)

〈표 Ⅲ-22〉 이주 노동자 성별분리자료 (1994-2004년)

(단위: 명)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총합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94-98	-	-	-	-	440,033	1,020,071
2002	97,988	23,493	18,791	340,121	116,779	363,614
2003	90,271	64,451	14,446	188,977	104,717	253,428
2004	68,648	47,583	15,427	249,032	84,075	296,615

자료. ADB, 2006a

그러나 해외 이주노동은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 등과 맞물려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우선 준비과정에서 실제 정착금보다 높은 중개수수료에 의한 경제적 부담과 연수 기관의 부족에 의해 소개료를 떼이거나 과중한 경제적 부담, 또는 정착 실패가 발생한다. 아울러 정규 이주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 불법 이주를 많이 하면서 인신매매나 노동력 착취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주 이후에도 언어적 한계나 차별 대우로 인해 노동력 착취 또는 성착취 문제가 발생한다 (2002년 한 해 동안 2,598건의 해외이주 여성폭력 보고). 마지막으로 모국 귀국 후에도 적절한 재적응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Guggenheim, Scott E. and Naovalith Tina, 2003, 4-5)

여성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모니터 및 관련 정부 기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여성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유의미한 인권 보호 체계와 법, 적절한 연수 과정 등을 개설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 이주 노동자 학대 및 노동력 착취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와 가족이 이주 과정에서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UN 인권특별조사위원회에 인도네시아 국내 노동자들의 인권 및 노동권 문제를 다룬 보고서 제출하였고, 지역 NGO들은 또한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 및 보건, 법률 서비스와 관련 연구 및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 이주 노동자 연합(KOPBUMI)’과 ‘이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여성 운동(GPPBM)’과 같이 귀국 이주 노동자들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다. 젠더와 HIV/AIDS

인도네시아 내 HIV/AIDS 전염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BAPPENAS 보고서에 따르면 HIV 감염인은 193,000명, AIDS 발병률은 8,194건(2006년)에서 19,973건 (2009년)으로 증가했다 (JICA, 2011, 23). 전체 인구 중 감염비율은 그리 높지 않으나 (인도네시아 성인 인구의 0.22%만이 HIV에 감염), 지역 간 격차가 크다 (파푸아 지방의 HIV 감염률 2.2%). 또한 AIDS 발병의 절반 이상이 20-29세 사이의 청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감염의 주요 경로는 이성간 성교 (50.3%), 약물 복용 및 주사 (39.3%), 출산전후 감염 (2.6%) 등이었다. 임신 여성의 오직 0.1%만이 HIV 검사를 받으며 검사 받은 임신 여성 중 25%가 양성반응을 보인다 (JICA, 2011, 23). 아울러 청년층 (15-24세)의 HIV/AIDS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기혼 남성의 14.7%, 기혼 여성의 9.5%, 미혼 남성의 1.4%, 미혼 여성의 2.6%만이 HIV/AIDS에 대한 상식적 지식을 보유함).

그러나 HIV/AIDS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 보고하지 않은 실제 감염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기준 공식 집계 40만명, 전문가 추산 실제 감염 및 보균자는 약 100만 명). 또한 마약 중독자, 성매매업 종사자, 이주 노동자 등의 고 위험군에서의 감염률은 5%이상이다. 국가 HIV/AIDS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업 종사자 (여성종사자 190~270만명) 중 HIV 양성 반응은 6~26%이고, 약 130만 명의 이주 노동자 (대부분 여성) 중 10%가 HIV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HIV 감염자에 대한 감시/관찰 또는 대처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인도네시아 통계 인구보건조사 (2002~03)에 따르면 HIV/AIDS 주된 감염 원인은 낮은 콘돔 사용률과 정보부족에 기인한다. 결혼 경험이 있는 여성 중 59%, 남성 중 73%가 AIDS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HIV/AIDS 대응 전략이 특히 HIV/AIDS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니라 금욕 권장, 콘돔 이용 등 임시적이고 단선적인 대처에 기반하고 있어 정보 부족에 의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국가 HIV/AIDS 위원회는 ① 성병과 HIV/AIDS 예방, ② HIV 보균자와 AIDS 환자에 대한 의료 및 사회적 지원, ③ HIV/AIDS와 기타 성병 전염 억제, ④ 관련 연구 진행을 목표로

“국가 HIV/AIDS 프로그램 (2007-2010)”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표 III-23> 와 <표 III-24>은 HIV/AIDS 관련 인도네시아의 MDG 6 관련 국가 목표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I-23> 인도네시아 MDG 6 관련 개선사항

MDG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지표	1992	2002
(목표 7) 2015년까지 HIV/AIDS 확산 중지, 이후 감소	15-24세 임신여성 중 HIV감염률 (%)	n/a	n/a
	15-49세 기혼여성 피임 (콘돔) 사용 비율 (%)	1.3	0.4
	HIV/AIDS로 인해 발생한 고아 명수	n/a	n/a

자료. ADB, 2006a

<표 III-24> 2003년 국가 HIV/AIDS 실태 보고

항목	내용
총 성인(15-49세)인구 중 HIV 전염률	0.1% (0.0-0.2% 오차범위)
총 성인(15-49세) HIV 감염자	110,000 명 (53,000-180,000 오차범위)
성인 및 아동 (0-49세) HIV 감염자	110,000 명 (53,000-180,000 오차범위)
성인 여성 (15-49세) HIV 감염자	15,000 명 (7,100-24,000 오차범위)
AIDS로 인한 사망	2,400 명 (1,100-4,100 오차범위)

자료. United Nations Joint Programme on HIV/AIDS 2004

라. 젠더와 환경

인도네시아는 최근 10년 사이에 여러 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2004년 12월 인도양 쓰나미, 2006년 5월/7월 자바지역 지진, 2007년 2월 자바지역 홍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2003~2007년 산림과 토지 복구를 위한 국가운동을 도입하였다. “환경부 전략계획 (2010-2014)”에는 성 주류화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여성과 환경 이슈를 복합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주류화를 위한 “대통령령 No.9/2000”에 따라 성인지 예산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여성운동” 소책자 발간을 준비 중에 있다 (JICA, 2011, 33). 아울러 2000년 환경보호를 위해 시작한 국가 운동에 다양한 여성 단체들을 초대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환경운동에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자 MoWECP와 환경부는 2002년 MOU를 체결하였다. 상기 MOU의 목적은 (1)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 특히 여성과 환경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와 관련된 국가행동계획 도입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 도입, (2) 여성과 환경에 관한 국가 정책과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조직을 국가 차원, 지역 차원,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강화하고 연계, (3) 성 평등 개념 전파와 환경 관리와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젠더 분석 실시를 목표로 한다 (UNDP, 2010).

본 MOU를 통해 얻은 성과로 (1) 2004년 환경부 연간 계획에 여성과 환경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포함, (2) 각 정부부서 내 공무원들 전반에 대한 젠더 의식 강화와 여성과 환경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젠더 분석 시행, (3) 성 인지적 정책과 프로그램 형성에 젠더 연구소의 참여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성과 환경에 대한 IEC, 여성과 환경에 대한 매뉴얼,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여성 단체에 대한 기술적 지원, 여성주의 친환경적 프로그램 개발, 환경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기획 및 도입 등 방법을 통해 여성과 환경 이슈 연계와 환경 이슈에 여성의 역량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DP, 2010).

인도네시아는 최근 여러 번의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재난 대처 및 관리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통계청(BPS)와 국내 시민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재난에 따른 피해는 연령, 성별,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다. 특히 자연 재해 발생 시 여성 사망자수는 남성의 14배에 달하고, 지진이나 쓰나미 이후 여성 환자의 수도 남성의 4배에 달한다. 여성은 재난 발생 시 집에서 아이들이나 노인을 챙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남성에 비해 대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 사후에 해당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인신매매도 급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국가행동강

령 (2010~2012)”는 (1) 재난사후 관리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고, (2) 남녀에게 재난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하며, (3) 여성의 재난대처 관련 정보 접근성을 증진하고, (4) 성인지적 관점의 재난 연구를 도입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재난관리소는 MoWECP와 연계하여 “재난지역 여성보호 국가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JICA, 2011, 34).

5. 소결

인도네시아의 성 평등 정도는 세계 기준에 비해 낮은 편 (2007~09년 GDI 93위)이나 자국의 경제성장 정도 (2009년 GDP 109위)나 인간개발지수 (2009년 111위)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강화와 정책 결정 참여도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2009년 GEM 96위)에 머물고 있다. 개발과 젠더의 문제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2년 기준 국민의 52%가 여전히 국제 빈곤선 2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소득, 고용 등 경제활동 전반에서 차별을 당하는 여성의 경우, 빈곤과 이로 인한 만성적 영양실조, 그리고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는 위험이 높아진다.

국내 상황 중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전반적 성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으나, 여성의 정치 및 경제적 참여와 역량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와 가정폭력에 의한 여성폭력도 고질적 젠더문제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의 경우 해외이주로 인한 노동력 유출이 심한 국가 중 하나인데, 이주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시급한 젠더문제이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적 대표성 및 참여가 낮은 이유는 토지나 금융 서비스 접근성과 같은 기본적 자원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성 중에서도 약자인 빈곤층 여성이나 농업 종사 여성의 역량강화와 보호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 보건 분야는 양자, 다자 원조기구의 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하나, 여전히 전반적 위생수준이 낮고 이에 따른 모자보건 문제가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역량강화 및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기구, NGO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젠더 정책과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MoWECP와 BAPPENAS를 중심으로 정부부서 중 시범기관을 정해 성인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여성의 정치, 경제적 참여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이 권고 사항에 그치거나 도입 과정이 효과적이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NGOs 간의 협력체계 구축도 과제로 남아있다.

〈표 Ⅲ-25〉 인도네시아 젠더관련 대표 기관

기관명		전문분야	활동
국문	영문		
정 부 기 관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보호부	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and Children Protection (MoWECP)	여성인권, 아동권리보호, 젠더 전반	젠더정책계획, 성 평등 증진 도모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의약, 보건	보건정책 계획
국가개발계획청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국가개발계획	국가개발정책 계획 및 도입
국가재난관리소	National Agency for Disaster Management	재난관리 및 사후복구	재난정책관리, 재난 피해 지원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보존	환경보호정책계획
다 자 원 조 기 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농업, 식량안보	농업과 식량안보 지원
국제노동기구	ILO	노동이슈	노동자 권익보호
세계개발은행	The World Bank	개발이슈	농업, 공공사업, 보건, 교육, 경제활동 등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개발이슈	개발 지원, MDGs
유엔 아동기금	UNICEF	아동권리, 여성권리	교육, 모자보건, 청년층 사회참여 등
유엔 여성기구	UN Women	젠더이슈	젠더 정책 자문

기관명		전문분야	활동
국문	영문		
양 자 원 조 기 관			
일본개발협력기구	JICA	개발이슈	보건, 성인지 예산, 공공사업 성 주류화
네덜란드 대사관	Embassy of the Netherlands	개발이슈	환경 및 인권보호
독일개발원조기관	GTZ	개발이슈	기후변화, 거버넌스, 민간부문 지원
NGOs			
칼야나미트라 재단	Kalyanamitra Foundation	여성인권, 여성폭력	가정폭력

자료. JICA, 2011, 40-41

IV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젠더현황 비교분석 및 정책제언

1.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젠더현황 분석	157
2. 국별 정책제언	161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젠더 사업 제안	164

1.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젠더현황 분석

가. 양국의 여성 지위 현황 비교 (국제지표)

우선, UNDP에 의해 발표되는 인간개발지수(HDI) 및 국제 젠더지표에 의해 두 국가를 개괄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우선,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인간개발지수(HDI)는 각각 124위와 108위로 두 국가 모두 생활 수준 면에서 중하위 수준이지만 캄보디아의 생활수준이 좀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국가는 젠더관련 지표인 남녀평등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 및 성불평등지수(GII)면에서도 뒤처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평등지수(GDI)의 경우, 2007년을 기준으로 캄보디아는 116위, 인도네시아는 93위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기준의 두 국가의 여성권한척도(GEM) 역시 각 91위와 96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기준의 성불평등지수(GII)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95위와 100위를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두 국가 모두 여성들의 생활수준 및 권한 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캄보디아가 인간개발지수(HDI)와 남녀평등지수(GDI)면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비해 뒤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권한척도(GEM)와 성불평등지수(GII) 면에서는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 젠더 지표에 반영되는 구성요소의 확인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남녀평등지수(GDI)는 수명, 성인 문해율, 평균 진학률, 소득 수준 등을 바탕으로 측정되는 반면, 여성권한척도(GEM)는 여성의 의회 의석수, 정부 고위급 및 관리직의 여성 비율, 전문직/기술직 여성 노동자의 비율, 남녀 임금격차 비율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측정되고 있으며, 성불평등지수(GII)에는 모성사망률, 청소년기 임신율, 여성의 의회 의석수, 최소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 노동시장 참여율, 피임의 보급률, 모성관련 보건에 관한 비율 등이 반영된다. 이는 캄보디아가 인도네시아에 비해 여성의 교육 수준과 모성사망률 면에서 뒤처지는 반면, 의회의 여성 의원의 비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면에서는 캄보디아가 더 나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⁷⁸⁾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를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의회 진출을 좀 더 향상시키고,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캄보디아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모성보건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여성들의 교육 수준과 모성보건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캄보디아가 여성의 의회 진출과 경제적 참여의 증가를 위한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두 국가 간의 비교일 뿐이고, 두 국가 모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의 생활수준 면에서 남녀 간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표 IV-1〉 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의 HDI 및 젠더관련 지표

국제적 지표												
캄 보 디 아	(1) HDI			(2) GDI			(3) GEM			(4) GII		
	연도	지수	순위	연도	지수	순위	연도	지수	순위	연도	지수	순위
	2010	0.494	124	2007	0.588	116	2009	0.427	91	2008	0.672	95
	2007	0.593	137	2005	0.594	114	2005	-	-	-	-	-
인 도 네 시 아	(1) HDI			(2) GDI			(3) GEM			(4) GII		
	연도	지수	순위	연도	지수	순위	연도	지수	순위	연도	지수	순위
	2010	0.6	108	2007	0.726	93	2009	0.408	96	2008	0.680	100
	2007	0.734	111	2005	0.721	94	2005	-	-	-	-	-
한 국	(1) HDI			(2) GDI			(3) GEM			(4) GII		
	연도	지수	순위	연도	지수	순위	연도	지수	순위	연도	지수	순위
	2010	0.877	12	2007	0.926	25	2009	0.554	61	2008	0.310	20
	2007	0.937	26	2005	0.910	26	2005	-	-	-	-	-

자료. UNDP, 2007/8; UNDP, 2009; UNDP, 2010.

나. 주요 부문별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여성 지위 현황의 비교

국제적 젠더관련 지표들은 국가 간 여성의 지위 현황을 비교하기 쉽도록 보여주는 반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다양한 분야의 여성지위 현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주요 분야별로 두 국가의 여성지위 현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두 국가의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 측면에서 두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면, 두 국가 모두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0~20% 사이⁷⁹⁾로 남녀 간 국회의원 비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 이처럼 여성의 국회 진출이 어려운 이유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측면에서 두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면 두 국가 모두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남성의 경제 참여율보다 낮다는 공통점을 보인다.⁸⁰⁾ 그 정도 면에서 두 국가 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여성에 비해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 높은 편이고, 남녀 간 경제활동 참여율의 격차도 캄보디아의 것이 더 작은 편이다. 그렇지만 두 국가 모두 남녀 간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두 국가 모두 차별적 성별분업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활동이 비교적 활발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진정한 경제적 세력화라기 보다는 여성들의 값 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의류산업의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 인권의 측면에서 두 국가 모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역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국가 모두 여성폭력에 대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역시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두 국가의 여성 모두 낮은 교육 수준 및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인신매매, 이주노동자로서의 노동력 착취라는 위협

79) UNDP(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2008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캄보디아의 경우, 15.8%, 인도네시아의 경우, 11.6%이다.

80) UNDP(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캄보디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75.6%,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86.2%이고, 인도네시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3.3%,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86.2%이다.

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성 평등 증진을 저해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비교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는 각국의 여성 지위 향상 및 양성평등 발전을 위해 많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의 여성 정책은 그 실효성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두 국가의 여성 지위 현황이 개선기 어려운 데에는 두 국가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캄보디아의 경우, 불교가 지배적인 종교인데, 불교에 기반한 ‘업(karma)’에 대한 가치관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교에서는 여성이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쌓아 비구승이 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교적 편견이 캄보디아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남성에게 복종적인 여성을 이상적 여성상으로 묘사하는 캄보디아의 ‘차뵈쓰레이(Chbap Srey)’ 전통 역시 캄보디아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슬람교가 가장 지배적인 종교인데, 무슬림의 율법인 ‘샤리아(shari'a)’법에는 성차별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어 인도네시아 여성지위 향상에 큰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이루어진 지방분권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약화 시키면서 지방정부에서 강경한 이슬람 교도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 억압적인 ‘샤리아(shari'a)’법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두 국가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증진에 방해가 되는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두 국가의 사회·문화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이념은 무척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2. 국별 정책제안

가. 캄보디아 정책 제안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캄보디아 NGO 및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의 역사가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정책의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2007년)로 주변국인 태국이나 필리핀에 비하여 높은 편에 속하며 남녀 간의 격차도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종에 있어서 의류사업 등 1차 산업에서의 단순생산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황률도 높으며,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컸다. 캄보디아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은 편이고 일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보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전문성이나 사회경력을 키우기에는 부족하며, 여성의 건강문제로 자녀 출산율도 낮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험과 시행착오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또 캄보디아 실정에 부합하는 여성 취업 촉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캄보디아 여성들은 가내기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이 취업하는 업종 및 직종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성 취업의 질은 지극히 낮은 상황이다.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을 감안하면 단기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캄보디아 정부가 요구하는 여성 경제역량 강화 사업은 지역의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일본 JICA 등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젠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2) 여성폭력

캄보디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정책은 관계자들의 중요성 인지도도 불구하고 실현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였는데 NGO는 정부 정책의 구

체성, 집행력 담보를 의문시 하고 있었고, 여성폭력 의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NGO 활동에 대한 상호역할이 모호한 점 때문이다.

여성폭력근절을 위해서는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도전과 사회의 의식, 문화, 관행을 바꾸기 위한 통합적 정책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관계자들은 캄보디아의 여성폭력의제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여성운동의 경험에서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공유를 원하고 있었다.

여성 NGO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여성 NGO 리더의 발굴과 교육, NGO 활동의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도입 (NGO 활동가 학교 등 지원)을 위해 한국여성단체와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활동 공유도 원하고 있었다.

나. 인도네시아 정책제안

1)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

인도네시아는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은 낮지만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인도네시아 여성 NGO 활동가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과의 네트워크 및 NGO 활동가들간의 네트워크도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도 2008년 선거법개정을 통해 여성후보 30%할당제를 권고사항으로 두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선거출마가 어렵다는 애로점을 이야기 하였다. 선거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광역비례대표인 선거제도 하에서 정당에서 우선순위를 받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에 드는 비용이 문제였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지낸 한 여성정당인⁸¹⁾도 인도네시아의 정치는 금권정치(money politics)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였고, 비례대표후보 순번을 정하는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며, 정당차원에서는 당선가능성만을 놓고 보기 때문에 여성정당인을 배려하기보다는 대

81) Lena Marian Mukti. PPP 소속.

중적 인지도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권자들 조차 선거시에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는 후보자는 낙선이 확실하다고 하여 인도네시아의 선거풍토가 한국의 50-60년대와 유사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더불어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를 표방해온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하는 제도적인 측면과 유권자들의 인식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여성NGO는 한국의 호주제폐지나 할당제 관철에 크게 기여한 한국여성운동의 전략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여성 NGO 활동가와 일반 시민운동가들의 연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2004년 시민운동이 함께 벌인 ‘낙천·낙선운동’ 같은 시민단체의 움직임이나 총선여성연대 같은 연대활동을 시도해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2)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인도네시아 대표들은 정부의 여성 폭력 철폐 정책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관련 이슈 중에서 ‘성매매’와 같이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여성단체가 어떻게 이슈를 제기하고 또 법제화를 주도했는지에 대한 한국의 여성단체의 활동사례, 그리고 전략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 측에서는 반성폭력국가위원회(KOMNAS Perempuan, IV장 참고)⁸²⁾와 협력가능성을 제안하였는데 이 위원회의 업무는 대중 교육, 사실 확인 및 모니터링, 전략적 연구, 정책검토와 개선, 지역-국가-국제적 차원의 지지 네트워크 형성이며,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실을 대중에게 홍보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폭력철폐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한국과 함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82) 이 위원회는 여성폭력철폐를 위해 1998년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n. 181/1998, no. 65/2005)에 의해 설립되었다. 위원회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종교와 도덕률에 근거한 성차별적 정책이 206개 존재하고 있다.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젠더 사업 제안

이번 연구사업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협력대상국가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이 두 국가는 다르면서도 같은 부분이 존재하는 국가이다. 경제 수준, 국토면적, 인구, 종교 등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반면, 부패지수나 젠더개발지수 등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치구조와 인식수준이 전 세계 기준으로 하위수준인 것은 공통적이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정책의 법제화와 국가의 제도적 장치에 있어서는 모두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는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한 틀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었다. 실행되지 않는 법과 정책,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정부가 양성평등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두 국가의 여성NGO 활동가들은 어떻게든 이러한 현실을 뛰어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역량강화와 정치사회 구조안에서 힘을 갖게되는 것이다. 이 연구사업은 바로 이러한 지점을 찾아들어갔고, 1년을 이들과 함께 하였다. 이 연구사업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와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한국의 정부부처 및 KOICA의 관심과 노력으로 젠더분야 ODA 사업주제를 함께 발전시킬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모두 개발도상국으로서 이미 개발의 단계를 겪은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한류의 붐에 따라 패션과 소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화려한 이미지도 부가되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여성정책 관계자들에게는 무엇보다 경제와 정치 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여성 세력화와 양성평등 증진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내용과 차원은 다양하다. 주체에 있어 정부, 민간(기업 등),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가 협력에 참여할 수 있고 협력관계는 정부-정부, 정부-시민사회, 시

민사회·학계를 중심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조합이 가능할 것이다.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 정치 참여, 여성 경제 세력화,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비롯한 여성 인권 증진에 대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연수사업과 컨설팅으로 시작하여 여성 직업 훈련이나 생산 공동체의 수립, 운영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또한 대국민 홍보나 의식개선 같은 것도 모두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사업의 일환인 역량강화 워크샵에서 개발된 정책제안서 주제들 역시 두 국가를 대상으로한 젠더분야 ODA 지원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정책제안서 주제들은 다음 표와 정리될 수 있는데, 이는 양국의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표 Ⅳ-2〉 정치·경제·인권 분야별 ODA 젠더사업 주제

분야	협력국가	정책제안서 주제	본원과 협력가능한 국내기관
정치적 역량강화	캄보디아	· 여성 정치인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증진 및 세력화를 위한 방안 ·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방법과 활용방안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정치학회
	인도네시아	· 의회 및 지역구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 ·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의 증진 · 한국의 공직선거법 발전과정과 선거풍토 변화 · 총선여성연대 및 시민연대 활동을 통한 선거문화 개선	
경제적 역량강화	캄보디아	· 농촌지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전환 등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 민관협력을 통한 취업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제시 · 여성개발센터(WDC)의 지속적 활용방안(한국의 여성가족부 및 노동부와 협의 가능)	· 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 여성인력개발센터 · KDI · 직업능력개발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	· 취업교육과 ICT연수를 통한 농촌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분야	협력국가	정책제안서 주제	본원과 협력가능한 국내기관
여성 인권	캄보디아·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법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국의 원스탑(one-stop)서비스 · 성폭력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실행도구로서 미디어 모니터링 방법과 활용방안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 공동실시 · 한국여성운동과 정부·의회의 굿 거버넌스 사례 및 전략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 법무부 · 원스탑지원센터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 민주화 경험, 여성 인권 증진의 경험들을 정리하여 양국에 전달함으로써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여성정책 및 운동이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경험을 각 국에서 자신의 발전과정으로 구체화시키는데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자문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수요자 맞춤형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여성 발전 과정에서 비슷한 단계에 있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 광물 등 풍부한 자원과 넓은 국토, 많은 인구를 가진 대국이다. 특히 5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이 나라는 나라 안의 다양성이 잠재력이기도 하면서 당장의 정책 시행에는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슬람이라는 엄격한 종교계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도 여성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벽이다. 캄보디아는 최빈국으로서 많은 것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폐쇄적이며 시민사회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여성 NGO가 여성 이슈를 주도하며 여성 정책을 이끌어간 우리의 발전과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와 양국의 협력관계는 각각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연구사업 기간 동안 본 연구진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사이의 워크숍, 컨설팅 등의 방법을 통한 많은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젠더 분야 사업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고 보다 지속가

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규모 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한국의 여성정책의 발전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여성정책 기관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젠더 분야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 프로젝트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당초 한국에서도 연구 및 교육 기능이 통합된 여성개발원에서 출발하여 후에 기능에 따라 정책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교육기관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두 기관으로 분리된 점을 고려할 때 여성정책의 연구 및 양성평등 의식 교육을 위한 기관 설립 프로젝트는 아태지역 여성정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프로젝트사업에는 기관 설립과 한국의 젠더 전문가 파견, 기존의 연구수요사업이 종합적으로 통합될 수 있어 중장기적인 여성정책의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여성개발원과 유사한 여성정책연구와 교육훈련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의 연구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젠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자 공동 협력사업은 젠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사업 역량을 전수 받고 발전시키고 국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젠더분야 ODA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UNWomen의 전신인 UNIFEM과 MOU를 맺고 2010년 아태개발협력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UNWomen 아시아태평양양지부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연구주제를 모색해 오고 있다. 또한 UNDP 젠더팀 국장과의 면담(2011. 10. 26.)을 통해 캄보디아 UNDP 사무소와 유사한 관심사로 아시아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고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UNDP는 캄보디아 젠더프로젝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캄보디아에 대한 다자기구로서 캄보디아 여성부와 다양한 주제로 젠더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사업의 현지사업에 UNDP와의

협력은 양측이 구체적인 사안으로 협의할 때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젠더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연수과정의 개발 및 확대, 프로젝트 개발 및 다양한 다자협력사업 개발 등은 그 사업 결과에 따라 ODA사업에 있어 젠더사업의 개발협력 모델로 향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지의 국가들에 대한 젠더사업에 적용으로 지평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을 외(2009),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경희(2005b),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여성학 제21권 2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2010.4.15.
- 임정희, “빈곤의 여성화와 개발협력정책”, 제46차 빈곤의 여성화와 개발협력 정책포럼. 2008.06.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미경(2009), 「상좌부불교와 경제발전」, 라이프&라이프.
- 정미경(2007), 『선진공여국 및 국제기구 교육개발협력 방안 연구: 기초교육 및 교육의 경제적 활용관점의 접근』,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희 (2009). 「캄보디아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상호관계」. 한국정치학회보 2009 제43집 1호.
- 조은(1983), “경제발전과 여성의 노동”, 『현상과 인식』 제7권 3호.
- 한국국제협력단 (2008). “캄보디아 국별지원전략 2009-2011”. 한국국제협력단 내부자료.
- Annalise Moser (2007), “Gender and Indicators: Overview Report”, BRIDGE and UNDP, 11-36
- ADB (2010), “Gender Equality Results in ADB Projects: Indonesia Country Report”, ADB Southeast Asia Regional Department, Manila
- _____(2006a), “Indonesia: Country Gender Assessment”, ADB Southeast Asia Regional Department, Manila, 1-80
- _____(2006b), “From Poverty to Prosperity: A Country Poverty Analysis for Indonesia”, ADB Indonesia, 19-42
- _____(2004), “Papua Regional Consultation”, ADB, Southeast Asia Regional Department, Manila
- ADHOC (2006).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05". ADHOC.
- Asia Regional Cooperation to Prevent People Trafficking(ARCPPT) (2003), “Gender,

- Human Trafficking,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Cambodia”, ARCPPT.
- Asian Development Bank (2001), “Participatory Poverty Assessment: Cambodia”, Asian Development Bank.
- Asian Development Bank and Cambodian Researchers for Development (2004), “Garment Factory Survey”, ADB and CRD.
- Asia Regional Cooperation to Prevent People Trafficking (2003), “Gender, Human Trafficking,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Cambodia”, Asia Regional Cooperation to Prevent People Trafficking
- BAPPENAS (2010a), “A Roadmap to Accelerate Achievement of MDGs in Indonesia”, BAPPENAS
- _____(2010b), “Report on the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donesia 2010”, BAPPENAS
- BAPPENAS, UNICEF (2004), & Ministry for People's Welfare, “Indonesia Progress Report”, BAPPENAS Indonesia, 20
- Badan Nasional Penanggulangan Bencana: BNPB (2008), "HIMPUNAN PERATURAN PERUNDANGAN TENTANG ENANGGULAN PENCANA", BNPB
- BPS Statistics Indonesia (2009a),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2009 (Government)”, BPS
- _____(2009b), “Trends of the Socio-Economic Indicators of Indonesia 2009”, BPS
- _____(2009c), “Welfare Indicators 2009”, BPS
- Cambodia Women Health Organization, "Maternal Mortality Statistics". <http://c-who.org/issues.htm>. (2011.10.30 접속).
- Cambodian Committee of Women (2007), “Violence against Women: How Cambodian Law Discriminate against Women”, Cambodian Committee of Women
- CDRI (2010), “Leadership in Local Politics of Cambodia: A Study of Leaders in Three Communes of Three Provinces”, CDRI.
- CEDAW (2007), “Country Report Indonesia”, CEDAW, 1-196
- CEDAW (2006), “Women's Anti-Discrimination Committee Considers Cambodia's Report; ‘Code of Conduct’, Trafficking, Quotas Among Issues Addressed” UN CEDAW, <http://www.un.org/News/Press/docs/2006/wom1530.doc.htm> (2011.10.30. 접속).

- CIA (2011),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b.html> (2011.10.29 검색)
- Cooperation Committee for Cambodia and Analyzing Development Issues (CCC-ADI) Project (2006), “Domestic Violence in a Rapidly Growing Border Settlement: A Study of Two Villages in Poipet Commune, Banteay Meanchey Province.” CCC-ADI
- DanChurch Aid(DCA)-Cambodia (2006), “Gender Based Violence”, DCA-Cambodia Civil and Political Space Programme
- Decentralization Support Facility at Jakarta (2007), “Working paper on the findings of Joint Donor and Government Mission: Gender in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Project”, Decentralization Support Facility at Jakarta
- Derks, Annuska., et al. (2006), “A Review of a Decade of Research on Trafficking in persons in Cambodia”, The Asia Foundation and Center for Advanced Study
- Deutsch, R. (2006), “Beneficiary Assessment of Land Titles Recipients under Land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Project(LMAP”,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2007),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East Asia - toward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ERIA Research Project 2007 No.2
- FAO (2007), “Fact Sheet Indonesia: Women in Agriculture, Environment and Rural Production”, 23-40
- Fletcher, Dan (2009), "The Khmer Rouge", Time. Feb.17, 2009, <http://www.time.com/time/world/article/0,8599,1879785,00.html> (2010.10.31 접속).
- Gender Helpdesk, Stockholm University (2010), “Gender Mapping of Cambodia.” Stockholm University.
- Grown, C., Rao Gupta, G., and Kes, A (2005), *Taking Action: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ing Women*, UN Millennium Project Task Force on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London and Sterling, VA: Earthscan
- Guggenheim, Scott E. et al. (2004), “Indonesia Kecamatan Development Program: A large Scale Use of Community Development to Reduce Poverty”, BAPPENAS Indonesia
- Guggenheim, Scott E. and Naovalith Tina (2003a), “Indonesia: Female Migrant

- Workers' Vulnerability: In Search of Solutions”, World Bank Indonesia, 1-5
- Guggenheim, Scott E. et al. (2003b), “Enhancing Women's Participation: Learning from Field Experience”, World Bank, 23-30
- GTZ (2007), “Civil Rights and the Position of Women in Aceh”, GTZ
- _____, “Leaders, Lenders, and Breadearners: Women in Microfinance in Indonesia”, GTZ
- _____, “Strengthening Women's Rights”, GTZ
- GTZ, EWMI-HRCP and UNIFEM (2005), “Violence Against Women: A Baseline Survey”, MoWA, GTZ, EWMI-Human Rights in Cambodia Project (HRCP) and UNIFEM
- Hak, Chhun and Siphath, Kim (2011),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and Decision-making”, 캄보디아-한국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 IFC-PENSA (2006), “Access to Credit for Businesswomen in Indonesia”, IFC-PENSA, 15-31
- ILO (2010), “Social Security for Informal Economy Workers in Indonesia : Looking for Flexible and Highly Targeted Programmes”, ILO
- _____(2008), “ILO in Indonesia a Glimpse”, ILO Indonesia, Jakarta
- _____(2009), “Labor and Social Trends in Indonesia 2009: recovery and beyond through decent work”, ILO Indonesia, Jakarta
- _____(2001), “Women's Empowerment through Enterprise and Skills Development in Cambodia: A Review of Women in Development(WID) Centers of the Ministry of Women's and Veteran's Affairs”, ILO
- Indonesian PPEP system, obtained from MoWECP
- Indonesia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obtained from MoWECP
- IOM (2006), “Review of Labour Migration Dynamics in Cambodia”, IOM
- IOM, “Labor Migration from Indonesia: An Overview”, IOM Indonesia, Jakarta 16-17
- IPU, “Women in National Parliament”, <http://www.ipu.org/wmn-e/classif.htm>, (2011년 4월 26일 접속)
- JICA (2011), “Country Gender Profile: Indonesia”, JICA, 1-41
- _____(2008), “Pakistan: Country Gender Profile”, JICA Islamabad
- JICA (2007). “Country Gender Profile: Cambodia”. JICA.

- Lee, Chen Chen (2006). “Cambodian Women Migrant Workers: Findings from a Migration Mapping Study”. UNIFEM.
- LICADHO (2004). “Cambodian Women Report 2004: A Brief on the Situation of Women in Cambodia”. LICADHO.
- LICADHO (2006). “Violence Against Women in Cambodia”. LICADHO.
- Mehrak, M. et al. (2008). “Women’s Perspectives: A Case Study of Systematic Land Registration in Cambodia.” Gender and Development for Cambodia.
-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 (2004). "Cambodia National Youth Risk Behaviour Survey: Summary Report". MoEYS, UNICEF, UNESCO.
- Ministry of Health (2002). “Health Sector Strategic Plan 2003-2007”. Ministry of Health.
- Ministry of Planning (2007). “Cambodia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 Expanding Choices for Rural People”. Ministry of Planning.
- Ministry of Planning (2010). “Achieving Cambodia'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Gap Analysis”.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 Ministry of Women's Affairs (2004a). “A Fair Share for Women”. UNIFEM.
- Ministry of Women's Affairs (2004b). “The Ministry of Women's and Veterans Affairs' Counter Trafficking Information Campaign: Stakeholder Analysis of Six Provinces: Preliminary Results and Recommendations”. Ministry of Women's Affairs.
- 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and Children Protection (2008), “State Ministry for Women's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Presidential Instruction Republic of INDONESIA No.9 the Year 2000 on gender Mainstreaming in National Development and Minister of Home Affairs Regulation No. 15 Year 2008 on General Guidelines for in the Regions”
- _____, “Statistics of Child Protection”
- _____, “Statistics of Education”
- _____, “Statistics of Elderly and Disabled”
- _____, “Statistics of Health”
- _____, “Statistics of Manpower”
- _____, “Statistics of Women's Representation”

_____, website (<http://www.menegpp.go.id>)

Ministry of Women's Affairs (2004c). "The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Beijing Platform for Action on Women Issues 1995-2005". Ministry of Women's Affairs.

Ministry of Women's Affairs (2008a). "A Fair Share for Women". UNIFEM.

Ministry of Women's Affairs (2008b). "Five Year Strategic Plan 2009-2013 Neary Rattanak III". Ministry of Women's Affairs.

The National AIDS Authority (2010). "UNGASS Country Progress Report: Cambodia". The National AIDS Authority.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Ministry of Planning (2004). "Cambodia Inter-Censal Population Survey 2004, General Report". NIS/MoP and UNFPA.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06). "Cambodian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05".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NCHADS Surveillance Unit (2007). "Current Situation of HIV/AIDS Epidemic in Cambodia: Consultative meeting on Situation and Response Analysis" November 2007, Phnom Penh.

NGO CEDAW Committee (2005). "NGO Shadow Report Cambodia". NGO CEDAW Committee.

OECD DAC (2011). "Aid Statistics". http://www.oecd.org/document/49/0,3746,en_2649_34447_46582641_1_1_1_1,00.html (2011.10.31. 접속)

Oung, Chanthol (2002).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Prevention." University of Sydney.

PADV (2004). "Men Against violence toward Women Pilot Project Evaluation". PADV.

Roeun, Aing Sok (2004). "A Comparative Analysis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Roles of Khmer Women in the Household: A Case Study in Leap Tong Village",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05),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6-2010",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Shelton, Tracey (2007). "Domestic Violence Attitudes Changing". The Phnom Penh Post, Issue 16/06, March 23 - April 5, 2007.

Sopheap, Ross (2007). "Gender and Development in Cambodia: Challenges and

- Alternatives” in: A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ssistance for Gender Mainstreaming in Asia. Expert Group Meeting on Gender and Developmen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7. 4. 26-27.
- SUSENAS (2007), “Indonesia National Socio-Economic Survey”, RAND corp., <http://www.rand.org/labor/bps/susenar.html>, (2011년 3월 10일 접속)
- Thiel, F. (2010). “Gender Equality and Land Law in Cambodia”. Center for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 Toure, Seneb (2009), "Gender Profile of the Union of the Comoros", AfDB, 10-12
- UN (2006). "Women's Anti-Discrimination Committee Considers Cambodia's Report", UN.
- UNAIDS (2011). Country Fact Sheet. <http://www.unaids.org/en/dataanalysis/tools/aidsinfo/countryfactsheets/> (2011.10.30 접속).
- UNESCAP (2006). “Perspectives on Gender and Migration”. UNESCAP.
- UNIAP (2010). “Mekong Region Country Datasheets: human Trafficking 2010” UNIAP.
- UNDP (2011). “Thematic Highlight: Human Development Report Cambodia” UNDP.
- _____(2010). “Explanation Note on 2010 HDR Composite Indices”. UNDP.
- _____(2006), “Gender Equality: Evaluation Gender Mainstreaming in UNDP”, UNDP, 21-32
- _____(2008),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08”, UNDP, 326-333
- _____(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UNDP, 156-160
- _____, “Indonesia: Questionnaires to Indonesia”, UNDP, www.un.org/womenwatch/daw/Review/responses/INDONESIA-English.pdf (2011년 10월 20일 접속)
- UNICEF (2010), “Thematic Paper on MDG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UNICEF, 7-25
- UNIFEM (2009). "Preventing Spousal Transmission of HIV in Cambodia: A Rapid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s for Action". UNIFEM.
- _____(2009), “Legal Protection for Migrant Workers and Asia and Arab States”, UNIFEM, 1-70
- USAID (2010). “Cambodia: HIV/AIDS Health Profile”. USAID.

WHO (2010),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at a Glance: Indonesia", WHO, http://www.who.int/countryfocus/cooperation_strategy/ccsbrief_idn_en.pdf (2011년 10월 3일 접속)

_____(2007). "Country Health Information". WHO.

World Bank, (2011a). "The Migration and Remittances Factbook 2011". World Bank.

_____(2011b).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2011.10.31. 접속).

World Bank, ADB and DFID (2007), "Working Paper on the Findings of Joint Donor and Government Mission: Gender in Community Driven Project, Decentralization Support Facility at Jakarta", World Bank Indonesia, 32-37

World Bank (2006a). "Cambodia: Halving Poverty By 2015? Poverty Assessment 2006" World Bank.

_____(2006b). "The Little Green Databook." World Bank.

_____(2005a), "Engendering Rural Information Systems in Indonesia", World Bank Indonesia, 7-21

_____(2005b), "Implementation Completion Report on a Credit in the Amount of SDR 73.5 million (US \$100 million equivalent) to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 an Urban Poverty Project", World Bank Indonesia, 10-13

_____(2005c), "Implementation Completion Report on a Credit in the Amount of SDR 73.5 million (U.S.\$ 100 million equivalent) to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 an Urban Poverty Project, World Bank



부 록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여성관련 기관〉 179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여성관련 기관>

1. 캄보디아 여성관련 기관

Name/ IOs/ Local NGOs	Past records/ Projects	Contact Address
Amara	Mentoring Activities for the Commune Council	National Road 5, Battambang Province; Tel: 053 952 419; Email: amara@camintel.org
Agir Pour les Femmes En Situation Precaire (AFESIP)	Advocacy, legal assistance and protection to trafficking victims; reintegration, rehabilitation (among other) of victims of trafficking	#23 Street 315 Boeung Kork 1, Toul Kork, Phnom Penh; Tel: 023 884 123; Email: admcamodia@afesip.org
Banteay Srei	Tackles domestic violence issues; promotes livelihood activities among women through home gardens	#36 Street 480 Phsar Doem Thkov, Chamcar Mon, Phnom Penh; Tel: 023 216 922; Email: banteaysrei@online.com.kh
Cambodian Association for Assistance to Families and Widows (CAAFW)	Livelihood programme, social services (legal advice, medical/ emergency assistance), community organising	#447, Group 20, Road 2, Sisophon Town, Banteay Meanchey Province; Tel: 054 958 882/ 012 599 094; Email: caafw@forum.org.kh
Cambodia Defenders’ Project	Women’s Resource Centre	Address: No. 12, Street 282 Sangkat Beung, Keng Kang 1, Khan, Chomcar Mon, Phnom Penh; Tel: 023 362 524; Email: cdp@cdpcambodia.org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Public forums on trafficking and prevention; protection of young migrant women & girls seeking work abroad	#1, Street 158, Boeung Raing, Daun Penh, Phnom Penh, P.O: 1024, Phnom Penh, Cambodia, CCC Box: 20, Tel: 023 218 653/990 544, Fax: 023 217 229, Email/ web page: adhoc@forum.org.kh / www.adhoc.org.kh
Cambodian Midwives’ Association (CMA)	Promotion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among women through midwives	#44C Street 454, Tuol Toumpong Phnom Penh; Email: cma@forum.org.kh
Cambodian Women for Peace and Development (CWPD)		#23 Street 47, Stras Chak, Daun Penh, Phnom Penh; Tel: 023 724 274; Email: cwpd@online.com.kh

Name/ IOs/ Local NGOs	Past records/ Projects	Contact Address
Cambodian Women's Crisis Centre (CWCC)	Improving Girls Life's Options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provision of start-up capital for survivors of trafficking in Siem Reap	#42F, Street 488, Phsar Deum Thkov, Chamcar Mom, Phnom Penh, CCC Box: 356, Tel: 023 982 158, Fax: 023 982 158, Email: cwcc@forum.org.kh
Cambodia Women's Development Association (CWDA)	Advancement of women's economic and social rights	Address: #19, St. 242, Kh. 7 Makara Postal address: P.O.Box 2334, Phnom Penh 3, Cambodia Tel: (855) 23 210 449, (855) 12 970 660 Email: cwda@online.com.kh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ED)	Domestic Violence / Men's Network	Street 3, Tropang Pring, Kratie Province, CCC Box: 308, Tel: 072 971 676, Email: cedcam@camintel.com
Gender and Development for Cambodia (GAD-C)	Training and internships Advocacy and networking Information, education % communication Specific projects/ activities are: GADnet (network of 61 NGOs) Women's Empowerment through Legal Activities (WELA) Cambodian Men's Network (CMN)	#4, Street 294, Tonle Bassac, Chamcar Mon, Phnom Penh, Tel: 023 215 137; Email: gad@online.com.kh
Hagar	Shelter and livelihood programme (and employment) for battered women, literacy education/ life skills and vocational training for trafficking survivors and women and girls at risk	53D, Street 242, Veal Vong, 7 Makara, Phnom Penh; Tel: 023 219 045; Email: info@hagarproject.or
Islamic Local Development Organisation (ILDO)	Women for Development (Sewing projects)	# 238, Group 18, Damspey, Slaket, Battambang province, CCC Box: 362, Tel: 012 830 223, Fax: 053 952 213, Email: ildosokha@camintel.com
Kampuchean Action for Primary Education (KAPE)	Girls' education and scholarship programme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curriculum enhancement; vocational training for girls	Provincial Teacher Training College of Kampong Cham, Kampong Cham Province, Tel: 042 941 481, Fax: 042 941 918, Email: kape.cambodia@online.com.kh, Website: www.kapeonline.com
Khemara	Leads 50 other Cambodian NGOs in forming public debate on women's issues; lobbying on women's issues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Ottara Padei Wat, National Rt. 5, Russey Keo, Mittapheap, Phnom Penh, Cambodia Tel/Fax855-23-360134

Name/ IOs/ Local NGOs	Past records/ Projects	Contact Address
Khmer Women's Voice Centre (KWVC)	Empowering & encouraging women to participate and make decision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pheres. One of its major projects is the Gender Democracy and Women's Access to mid and top-level positions in the government.	94, St. 470, Toul Tumpoung 1, Chamcar Mon, Phnom Penh, Cambodia Phone/Fax :855) 23 21 23 52 Email: seametr@forum.org.kh
Khmer Youth Association (KYA)	Human Rights Investigations Advocacy on Youth Policy, Right to Education, Right to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project Targets young women and men from secondary schools,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135A, Group 33, Street 259, Toek Laak 1, Toul Kork, Phnom Penh; Tel: 023 884 306; Email: kya@forum.org.kh
Khmer Youth Camp for Culture (KYCC)	Gender women's rights and CEDAW workshop	# 236, Street 376, Boeung Keng Kang III, Chamcar Mon, Phnom Penh, CCC Box: 377, Tel: 012 736 166, Email: info@kycc4peach.org, Website: www.kycc4peach.org
Kratie Women's Welfare Association (KWWA)	Gender and Community Development	Sresdao, Orussey, Kratie Province, CCC Box: 274, Tel: 072 971 586 / 012 916 329, Fax: 072 971 586, Email: kwwakrt@caminet.com
Legal Support for Women and Children (LSCW)	Assists Cambodian migrant workers, particularly women and children and those in crisis in Klong Yai District, Trad province, Thailand and Koh Kong province of Cambodia	#38, Street 456, Tuol Tumpoung II, Chamcar Mon, Phnom Penh; Tel: 023 986 457
Mlup Baitong	Gender and Environment	#37B, Street 113, Boeung Keng Kang II, Phnom Penh, P.O Box: 2510, Phnom Penh, Cambodia, CCC Box: 400, Tel: 023 214 409, Fax: 023 220 242, Email: mlup@online.com.kh, Website: www.mlup.org
Project Against Domestic Violence (PADV)	Pioneering research on domestic violence; community workshops involving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students and local authorities	#15, Street 105/278 Boeung Keng Kang II, Chamcar Mon, Phnom Penh; Tel: 023 721 654; Email: padv@online.com.kh

Name/ IOs/ Local NGOs	Past records/ Projects	Contact Address
Stung Treng Women's Development Centre (SWDC)	Livelihood Development	Sre Po, Stung Treng province, P.O Box: 9500, Phnom Penh, Cambodia, Tel: 074 973 977, Email: swdcs@camintel.com
Trotrung Ning Akphiwat Sokopheap Neak Kre Kror (TASK)	Women's health	#227, Street 10CA, Chak Angre Leu, Meanchey, Phnom Penh, P.O Box: 2681, Phnom Penh, Cambodia, Tel: 023 425 045, Email: task@servantsasia.org
Urban Poor Women Development (UPWD)	Savings and credit programmes; trainings on reproductive health; people's organisations with focus on women's participation	11Deo, Street 183, Tumnub Teuk, Chamcar Mon, Phnom Penh; Tel: 023 211 474; Email: upwd@forum.org.kh
Women Associ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WACD)	Public Forum	Otapouk Loeu, Pailin City, CCC Box: 198, Tel: 011 743 704 / 016 855 807
Women's Media Centre of Cambodia (WMC)	Promotes, through the media, specifically broadcasting, social change, particularly on HIV/AIDS, trafficking, election, domestic violence, and poverty among women	#30, Street 488, 484 Phsar Deum Thkov, Chamcar Mon, Phnom Penh; Tel/ Fax: 023 364-882; Email: wmcc@online.org.kh
Women for Prosperity	Training for women's legal rights and advocacy; supports a network of women commune councillors; providing a forum for women-elected officials on experiences, problems/ issues of concern	#4 Street 432 Boeung Trabek, Chamcar Mon, Phnom Penh; Tel: 023 212 429; Email: wfpnp@forum.org.kh

자료: JICA, 2007

2. 인도네시아 여성관련 기관

Name of Organization	Area of Specialization	Activity	Contact
Government Organization			
State 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Women's rights, Child's Rights, Gender etc.	Planning of gender policy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Ms. Sulikanti Agusni Deputy assistant of gender in the cooperatives, small and medium business, industry and trade. Jl.Medan Merdeka Barat No.15 Jakarta 10110 INDONESIA Tel: +62-21-3805541 Fax: +62-21-3805562
Ministry of Health	Health and Medical	Planning of health policy	Dr. Trisa W.P. Indra MSc. Rachmalina Soerachman Prasodjo, Jl.Percetakan Negara No.29 Jakarta 10560-INDONESIA Tel: +62-21-4261088 Fax: +62-21-4243933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Development Planning	Planning and implementing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Dr. Subandi Sardjoko Director of Directorate of Population, Women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Jl.Taman Suropati 2,Jakarta 10310,INDONESIA Tel: +62-21-3926587 Fax: +62-21-3101925
National Agency for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Support after disaster	Policies for disaster management Support after disasters	Ms. Eny Supartini Head of Sub Directorate of Community Participation Gedung Graha55 Jl.Tanah Abang II No.57, Jakarta10160 Tel: +62-21-3503682 Fax: +62-21-3503682
Ministry of Environment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of policies for environment	PhD. Nurul Jannah Gedung B, Lantai 5 Jl.D.I.Panjaitan Kav.24, Jakarta 13410 Tel: +62-21-85904919 Fax: +62-21-8580087

Name of Organization	Area of Specialization	Activity	Contac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AO	Agriculture Food Security	Support for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Dr. Benni H. Sormin Assistant FAO Representative Menara Thamrin, 7th Floor Jl.M.H.Thamrin Kav.3 Jakarta10250 Tel: +62-21-3141308 Fax: +62-21-3922747
ILO	Labour	Protection of Labour's rights	Ms. Parissara Liewkeat Senior Programme Officer Jakarta Office Menara Thamrin,Level 22 Jl.M.H.Thamrin Kav3 Jakarta 10250 Tel: +62-21-3913112 Fax: +62-21-3100766
The World Bank	Development issues	Agriculture, public works, health, educ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etc.	Ms. Yulia Immajanti Consultant, Gender Specialist Ms. Nia Sarinastiti Special Assistance to the Country Director Indonesia Stock Exchange Building,Tower 2,12th Floor Jl.Jenderal Sudirman Kav.52-53, Jakarta 12190 Tel: +62-21-52993297 Fax: +62-21-52993111
UNDP	Development issues	Development assistance, and MDGs	Ms. Rini Widiastuti Evaluation Analyst and Learning Manager Menara Thamrin Building, 8-9th Floor Kav.3, Jl.M.H.Thamrin Jakarta10250 Tel: +62-21-3141308 Fax: +62-21-3102204
UNFPA	Reproductive Health	Maternal health, family planning and support for adolescents	Ms. Lany Harijanti Program Officer for Gender Tel: +62-21-3907121 Fax: +62-21-31927902

Name of Organization	Area of Specialization	Activity	Contact
UNICEF	Child's rights and women's rights	Education, maternal health and youth participation etc..	PhD. Niloufar Pourzand Chief of Social Policy and Protection Cluster Wisma Metropolitan II, 10th-12th floor Jl.Jenderal Sudirman Kav.31 Jakarta 12920 Tel: +62-21-29968090 Fax: +62-21-571132
UNIFEM	Gender issues	Advice for gender policy	Ms. Dwi Faiz National Programme Officer Menara Thamrin, 3rd Floor. Suite 306 Jl.MH.Thamrin Lav.3 Jakarta 10250 Tel: +62-21-39830330 Fax: +62-21-39830331
Bi-lateral Agencies			
Embassy of the Netherlands	Development issues	Support for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Ms. Christien Hukom Programme Offic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Jl.H.R.Rasuna Said Kav.S-3, Kuningan, Jakarta 12950 Tel: +62-21-5241060 Fax: +62-21-5275976
GTZ	Development issues	Climate change, good governance, support for private sector	Ms. Jasmin Freischlad Plaza Bapindo, Citibank Tower 22nd Floor Jl.Jenderal Sudirman Kav.54-55, Jakarta 12190 Tel: +62-21-5267001 Fax: +62-21-5267004
NGO			
Kalyanamitra Foundation	Women's rights Violence against women	Domestic violence	Ms. Rena Herdiyani JL. Kaca Jendela II No.9, Rawajati, Kalibata, Jakarta 12750 Tel: +62-21-7902109 Fax: +62-21-7902112

자료. JICA, 2011

2011 연구보고서-23-1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젠더 프로파일

2011년 12월 28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대)

ISBN 978-89-8491-461-2 94330

978-89-8491-459-9 94330 (세트)

<정가 11,000원>